

2023 감리회 농산어촌

목회자 및 교회 실태 조사 자료집 결과 발표회

주관_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농어촌선교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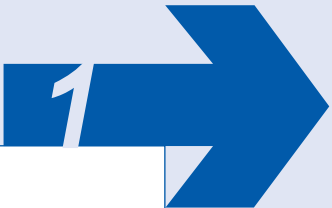
연구_ 목회사회학연구소

수행_ 목회데이터연구소/지앤컴리서

● 2023 감리회 농어촌 목회자 및 교회 실태 조사 자료집 결과 발표회

- ▶ 일시 : 2023년 3월 30일(목) 오후 2시 - 4시
- ▶ 장소 : 기독교대한감리회 16층 본부교회(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 ▶ 주관 :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농어촌선교위원회

PROGRAM	14:00 ~ 16:00	1. 농어촌교회의 실태조사 결과 정재영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종교사회학)
		2. 감리교 농어촌교회 실태조사 심층인터뷰 “인구감소와 노령화, 그럼에도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 - 농어촌목회에 대한 인식 변화 / 귀농귀촌 인구이동 조성돈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목회사회학연구소)
		3. 농촌 의료 정책 “농촌사회 건강돌봄에는 교회와 지자체, 사회적협동조합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임종한 교수 (인하대학교의과대학학장/보건대학원원장)



농어촌교회의 실태조사 결과

정재영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종교사회학



농어촌교회의 실태조사 결과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종교사회학)

1. 들어가는 말

농어촌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척박한 지역이다. 1960년대 이후 연평균 5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의 농어촌을 버리고 도회지로 떠났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농가 인구는 연평균 3.7%p씩 꾸준히 감소하여 1970년 14,422천명에서 2019년 2,245천명으로 50년 동안 무려 84%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농가 인구비율은 1970년 45.9%에서 2019년 4.3%로 크게 줄어들었다. 농가 인구의 변화 중 가장 극단적인 추세변화는 유소년인구와 고령 인구의 역전이다. 1970년 농가의 유소년인구는 627만 명으로, 고령 인구의 71만 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다수였다. 그러나 추세는 꾸준히 역전되어 2019년 농가의 유소년인구는 9만7천 명, 고령 인구는 104만 명이 되었다. 지난 50여 년 동안 농가의 유소년인구가 98.5% 감소하는 동안, 고령 인구는 오히려 46.7% 증가한 것이다. 2019년 농가의 전체 농가 인구 대비 유소년인구의 비율은 4.3%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농촌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는 아직 초고령사회 진입 전이지만 농촌은 이미 초고령사회가 된 지 오래이다.

또한 농촌의 생활이란 인프라 등 그 삶의 여건이 절대적으로 도시만 못하다. 농촌의 열악한 교육 환경 때문에 자녀들을 도시로 이주시키거나 가족 전체가 농촌을 떠나기도 한다. 또한 의료와 관련해서도 농어촌에는 장기 질병으로 투병하는 중장년층이 많다. 이들은 몸이 불편한데도 의료시설의 부족과 교통의 불편으로 적기에 양질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면 단위마다 소규모의 보건소가 있어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는 등 초보적인 의료 혜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농촌 거주자들은 의료나 문화, 교육, 취미생활 등의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으며,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자본주의의 폐해라고 할 수 있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실이 농촌에도 그대로 파급되고 적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빠른 도시화 과정에서 한국의 도시 지역들은 종교 열정이 활발하게 확산되었으나 농촌 지역은 오히려 종교 열정이 약화되어왔다. 한국 개신교의 급성장은 빠른 도시화 과정에서 농촌 인구의 도시로의 유입을 통해 주로 도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농촌 인구는 급감하였고, 농촌 지역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교회들 역시 대부분 미자립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 교회 교인 수의 급성장과 최근의 정체 현상마저도 사실은 도시 교회들에 해당되는 것이다. 한국 교회가 급성장을 구가 하던 당시에도 이미 농어촌교회는 위기 상황에 빠져 있었고,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최근에도 농어촌교회들은 도시 교회들보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¹⁾

이런 상황에서 농어촌교회에 별로 희망이 없으니 기회만 있으면 떠나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많다고 한다. 교인들조차 농어촌에 부임하는 목회자는 언제고 떠날 사람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제는 농어촌 목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농어촌교회에 와서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도시 목회식으로 목회를 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농어촌은 사람과 함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자연환경이 함께 어우러진 공간이다. 그 자연환경과 모든 생물들이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보호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따라서 농어촌은 교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자연 생태계를 망라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²⁾

1) 김승호, “최근의 사회적 변화가 농촌 목회에 미치는 영향,” 『목회와 신학』(2005년 9월), 70.

더욱이 농어촌의 문제는 농어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운명과도 궤를 같이 한다. 농어촌의 현실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 도시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된다. 농촌에 흉년이 들면 도시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최악의 경우에는 식량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에 농약을 치면 도시 사람들은 결국 농약에 찌든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은 악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인들이 외양이 좋은 농산물을 요구하고 농민들도 품이 덜 들면서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제는 농촌 봉사 활동 수준에서 논의되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농촌과 도시가 함께 하는 협력 관계를 통한 농도 공동체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이러한 농어촌교회의 현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농어촌교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는 소속 농어촌교회를 대상으로 교회 실태, 목회자의 목회 의식 및 실태를 조사해왔다. 이번이 2001년과 2011년에 이은 세 번째 실태조사이다. 이 조사 결과가 농어촌교회의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농도 공동체 운동을 전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2. 조사 설계 및 조사 방법

조사는 전국의 감리교 소속 농어촌교회의 담임 목회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전체 농어촌교회 1,533개 교회 담임 목회자에게 연회별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URL을 발송하여 모바일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2년 11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38일간이었고, 유효 표본이 504개 표집되어 회수율은 32.9%였다.

[표] 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 전국의 감리회 소속 농어촌교회
조사 방법	● 감리회 농어촌교회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한 모바일 조사(문자를 통해 URL 발송)
표본 규모	● 총 504명(유효 표본) - 전체 농어촌교회 1533개 교회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회수율은 32.9%였음.
표본 추출	● 연회별 교회 구성비를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함
표본 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6\%p$
조사 기간	● 2022년 11월 9일 ~ 12월 16일(38일간)
조사 의뢰 기관	●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사회농어촌환경부
조사 기관	● (주)지앤컴리서치

2) 목회와 신학 편집부, “농촌 목회, 인식 전환이 우선입니다,” 『목회와 신학』(2005년 9월). 53.

--	--

설문 문항은 전체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교회학교를 포함한 교회 현황에 대한 질문, 그리고 농어촌교회 현실에 대한 질문, 농어촌교회 목회에 대한 질문, 농어촌교회와 지역사회에 대한 질문, 교단의 농어촌선교 정책에 대한 질문, 가정 경제 및 이중직에 대한 질문들이다.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설문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설문 문항

구 분	내 용
교회 현황	· 교회 창립연도 · 성인 교인 현황 · 교회학교 현황
농어촌교회 현실	· 농어촌의 문제점 · 농어촌교회의 당면 문제 ·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의 자기 인식 · 농어촌교회의 미래 전망에 대한 의견 · 농어촌교회 발전 방안
농어촌교회 목회	· 농어촌교회 목회 이유 · 농어촌교회 목회의 장점 · 농어촌교회 목회의 어려운 점 · 교인 배타성으로 인한 어려움 · 귀농어촌 교인 · 다문화 가정 교인 · 담임교회 사임에 대한 고민
농어촌교회와 지역사회	· 마을목회 · 마을목회와 정부/지자체 재정 지원 · 마을목회와 정부/지자체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
교단의 농어촌선교 정책	· 교단 농어촌선교 담당 부서 · 농촌 선교 주일에 대한 인식 · 본부의 농어촌선교 사업에 대한 인식
가정 경제 및 이중직	· 이중직에 대한 태도 · 배우자 경제 활동 여부 · 가정 경제 실태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나이는 30대가 9.9%, 40대가 32.7%, 50대가 38.3%였고, 60대가 19.0%로 50대가 가장 많았다. 소속 연회는 충청연회가 1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부연회 17.5%, 남부연회 13.7%, 충북연회 12.3% 등의 순이었다. 이전 조사에서는 연회별 편중이 심하여 대표성이 왜곡되었고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이 부분에 각별히 주의하였다. 그 결과, 각 연회별 실제 구성비와 표본 구성비가 1% 내외의 미세한 차이를 보여서 연회별 표본 분포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급은 정회원 목사 연급 11년 이상이 75.0%로 가장 많았고, 정회원 목사 연급 1-10년이 22%, 그리고 전도사가 3.0%였다.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다만 조사의 특성상 보다 적극성을 가진 목회자들이 조사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모집단의 특성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표] 응답자 특성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전 체		(504)	100.0
연령	39세 이하	(50)	9.9
	40~49세	(165)	32.7
	50~59세	(193)	38.3
	60세 이상	(96)	19.0
소속 연회	중부연회	(40)	7.9
	경기연회	(31)	6.2
	중앙연회	(56)	11.1
	동부연회	(88)	17.5
	충청연회	(92)	18.3
	남부연회	(69)	13.7
	충북연회	(62)	12.3
	삼남연회	(33)	6.5
	호남연회	(33)	6.5
연급	전도사	(15)	3.0
	정회원목사(연급1-10년)	(111)	22.0
	정회원목사(11년이상)	(378)	75.0
농촌 목회 기간	5년 이하	(123)	24.4
	6~10년	(106)	21.0
	11~20년	(162)	32.1
	21년 이상	(113)	22.4
현 교회 담임 기간	5년 이하	(178)	35.3
	6~10년	(138)	27.4
	11~20년	(133)	26.4
	21년 이상	(55)	10.9
출석 성인 교인	10명 이하	(104)	20.6
	11~30명	(203)	40.3
	31~50명	(111)	22.0
	51명 이상	(86)	17.1
교인의 주 직종	농/수/축산업	(347)	68.8
	기타	(157)	31.2

3.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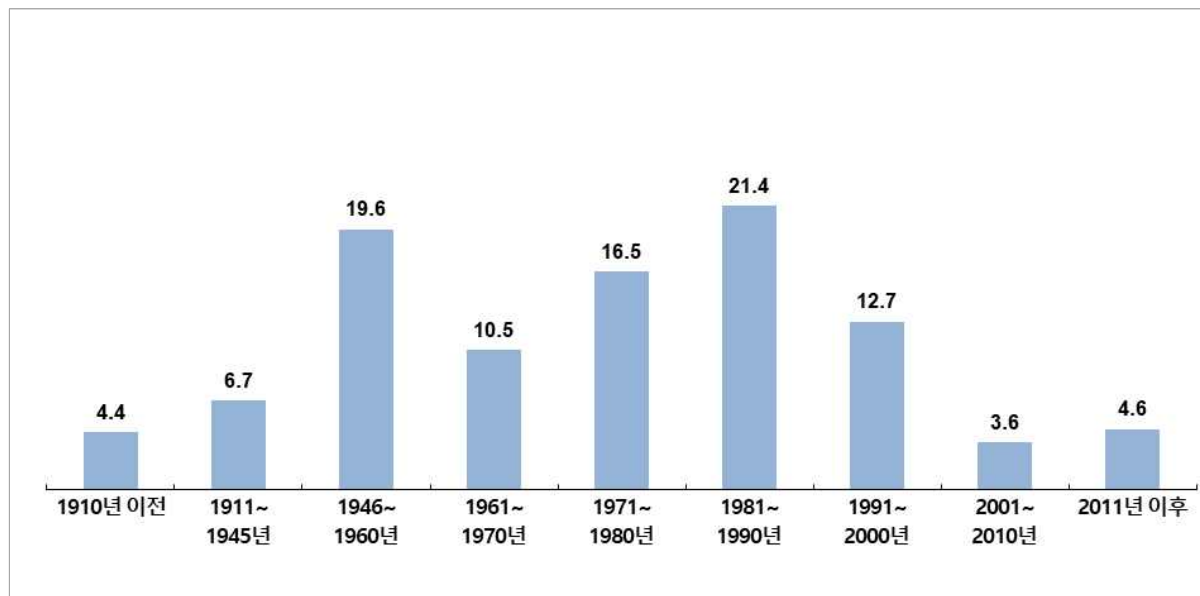
1) 교회 현황

먼저 농어촌교회들의 창립연도는 1945년 해방 이전이 11.1%이었고 해방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1971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1981~1990년에 21.4%로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이후 창립된 교회는 삼남연회가 12.1%로 다른 연회보다 더 많아서 이 시기에 교세가 약한 남부 지방에 감리교 농어촌교회들이 많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까지는 교인의 주 직종이 농/수/축산업인 지역(순 농어촌 지역)에서의 교회 설립이 교인의 주 직종이 기타 직종인 지역(일종의 도농복합지역)에서의 교회 설립보다 활발했으나 1991년 이후에는 이 현상이 역전되어서 도농복합지역이 순 농어촌 지역보다 교회 설립이 더 늘었다. 주목할 것은 2011년 이후에는 순 농어촌 지역에서 교회 설립은 거의 없었으나 도농복합지역에서는 12.7%나 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도농복합지역에서 교회 설립에 더 적극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고, 전체 국토에서 순 농어촌 지역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그림] 교회 창립연도

(Base=전체, N=5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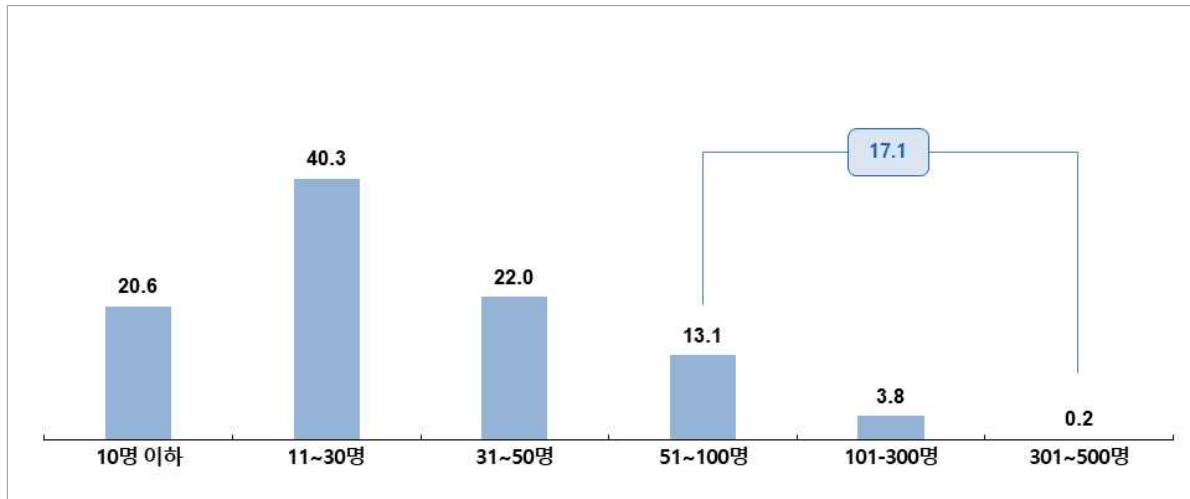


다음으로, 출석 성인 교인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인원을 포함하여 11~30명 모이는 교회가 절반에 가까운 4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0명 이하 교회(20.6%)까지 포함하면 출석 교인 30명 이하 교회가 60.9%나 되었다. 51명 이상 출석 교회는 17.1%였는데 그 가운데 101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4.0%였다. 대개 출석 교인 100명 이하를 소형교회, 50명 이하를 초소형 교회로 분류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농어촌교회의 96%인 절대 다수가 소형교회이고 82.9%가 초소형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도시 교회들과 비교하면 교인 수 면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10명 이하의 교회는 30대 이하(48.0%)와 40대(22.4%) 목사들이 담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51명 이상 교회는 60세 이상(19.8%), 50대(18.6%) 목사에게서 많았다. 곧 젊은 목사일수록 더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더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다. 10명 이하의 교회는 삼남연회(54.5%), 호남연회(36.4%)가 많았고 51명 이상의 교회는 경기연회(29.1%)와 충청노회(26.1%), 중앙연회(23.2%) 순으로 중부권에 많았다. 현재 교회를 떠날 생각을 과거에 했거나 현재도 하는 목사들이 담임하는 교회의 규모가 떠날 생각을 한 적이 없는 목사보다 조금 컸으나 큰 차이는 아니었다. 현재 교회를 떠날 생각이 교회 규모의 영향도 있으나 다른 요인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출석 성인 교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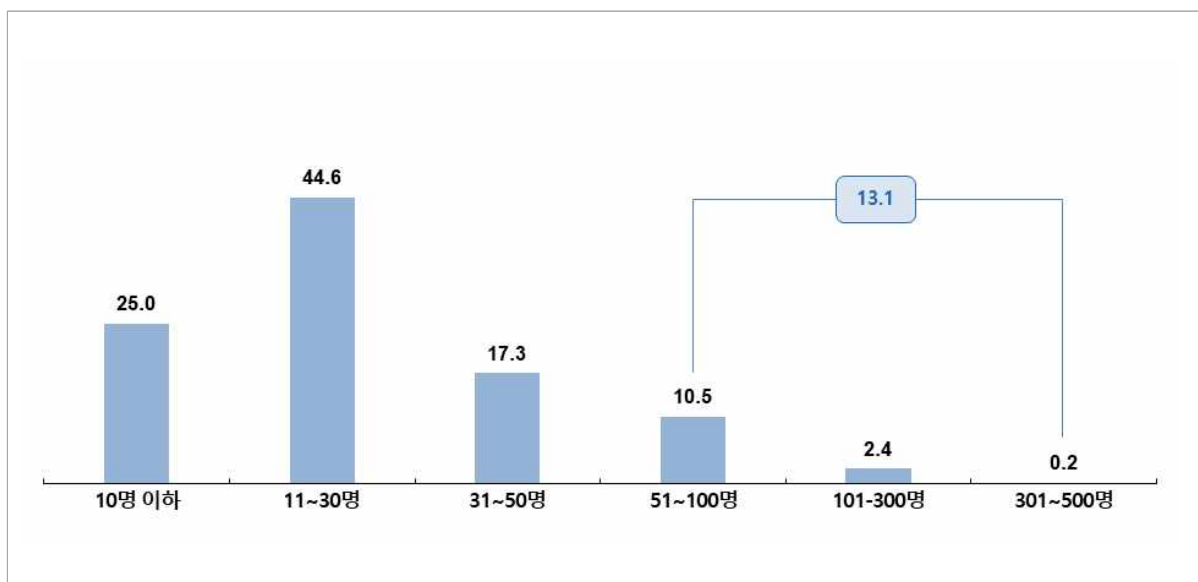
(Base=전체, N=504, %)



평균 예배 참석 인원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주일에 예배 참석한 인원을 물었다. 온라인 예배 인원 포함하여 11~30명 규모가 44.6%로 가장 많았으며 10명 이하 규모는 25.0%로 두 번째였다. 이 둘을 합한 30명 이하가 예배를 드린 교회의 비율은 69.6%나 되었으며, 50명 이상이 예배드린 교회 비율은 13.1%였다. 10명 이하가 예배드린 교회는 39세 이하 젊은 목사 담임 교회(50.0%), 삼남 연회(57.6%)에서 많았다. 50명 이상 예배드린 교회는 60세 이상의 목사 교회(16.6%), 경기연회(25.8%)와 충청연회(21.7%)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지난 주일 예배 참석 성인 교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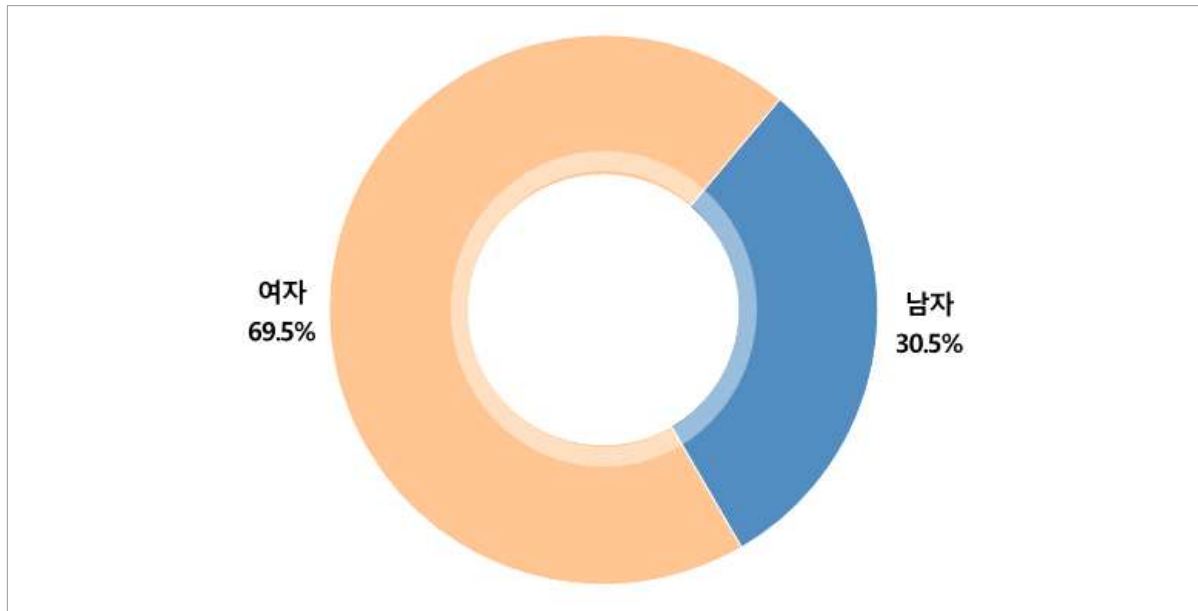
(Base=전체, N=504, %)



지난 주일 예배 참석 교인들의 성별 구성비는 여자가 69.5%, 남자가 30.5%로 여자가 남자보다 2배 이상 더 많았다. 일반적으로 교회 내 남녀 비율이 4:6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농어촌 지역에서 여성 편중 현상이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지난 주일 예배 참석 성인 교인 성별 구성비 -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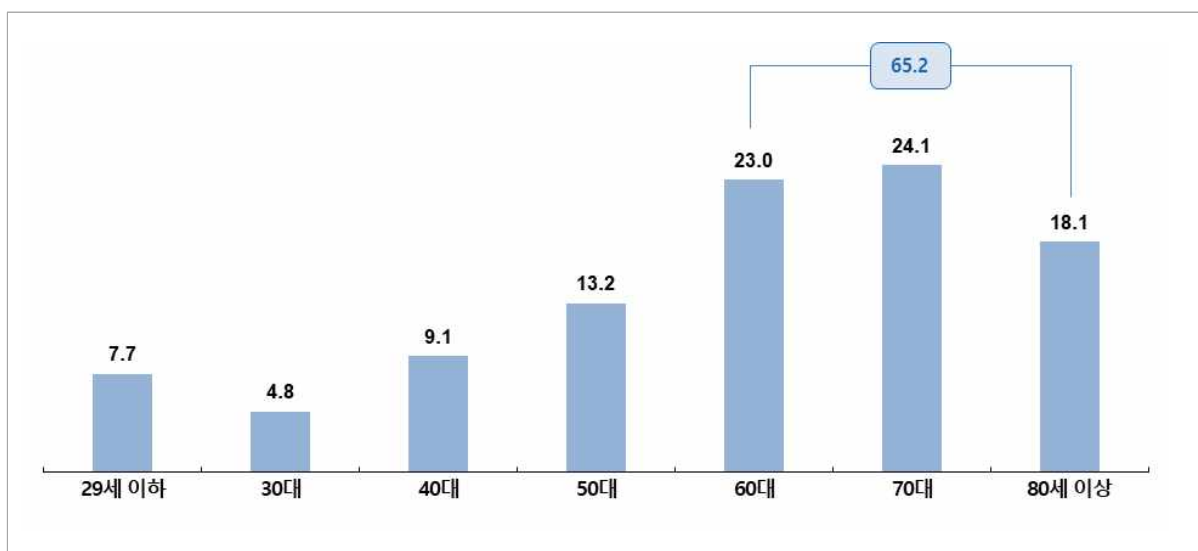
(Base=전체, N=504, %)



지난 주일 예배 참석자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60대 이상이 65.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40~50대가 22.3%, 30대 이하가 12.5%로 역삼각형 형태를 보여서 농어촌교회 고령화를 잘 보여준다. 39세 이하 젊은 목사 교회가 30대 이하 젊은 교인 비중이 22.5%로 다른 연령 목사 교회보다 약간 더 높으며, 60대 이상의 목사 교회의 7.2%보다 3배 정도 더 높았다. 교인들과 목사의 나이가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인들의 주 직종이 농/수/축산업인 교회(순 농어촌 지역 교회)는 60세 이상 비율이 71.2%였는데 기타 직종인 교회 즉 도농복합지역 교회에서 60세 이상 비율 51.7%였다.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도농복합지역보다 순 농어촌 지역의 교회들에서 고령화가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지난 주일 예배 참석 성인 교인 연령별 구성비 -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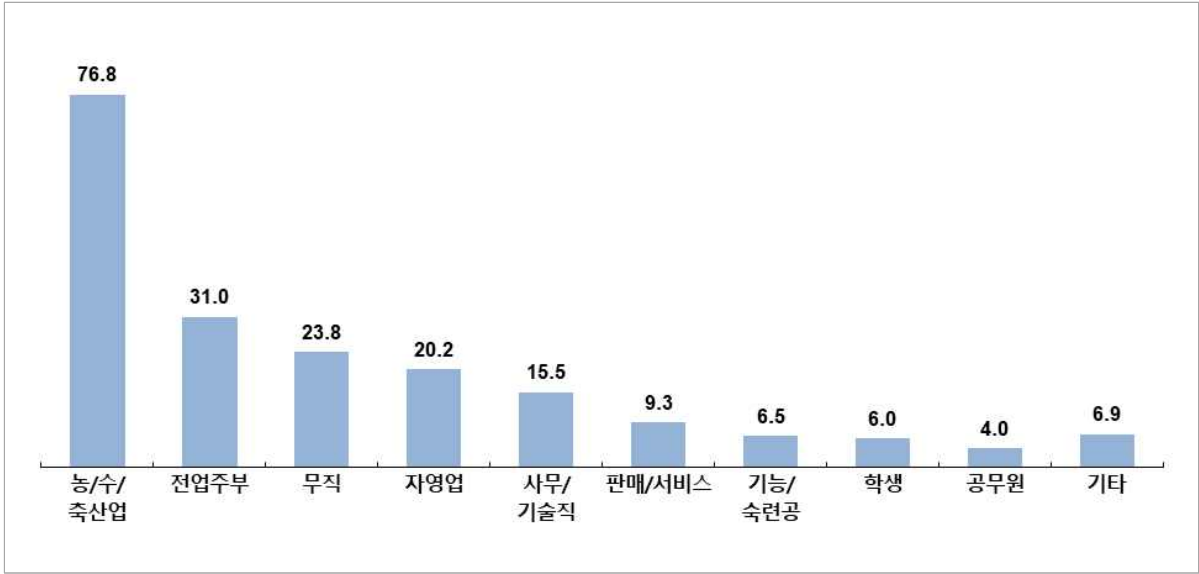
(Base=전체, N=504, %)



교인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종(2개 응답)은 ‘농/수/축산업’이라고 응답한 교회가 78.8%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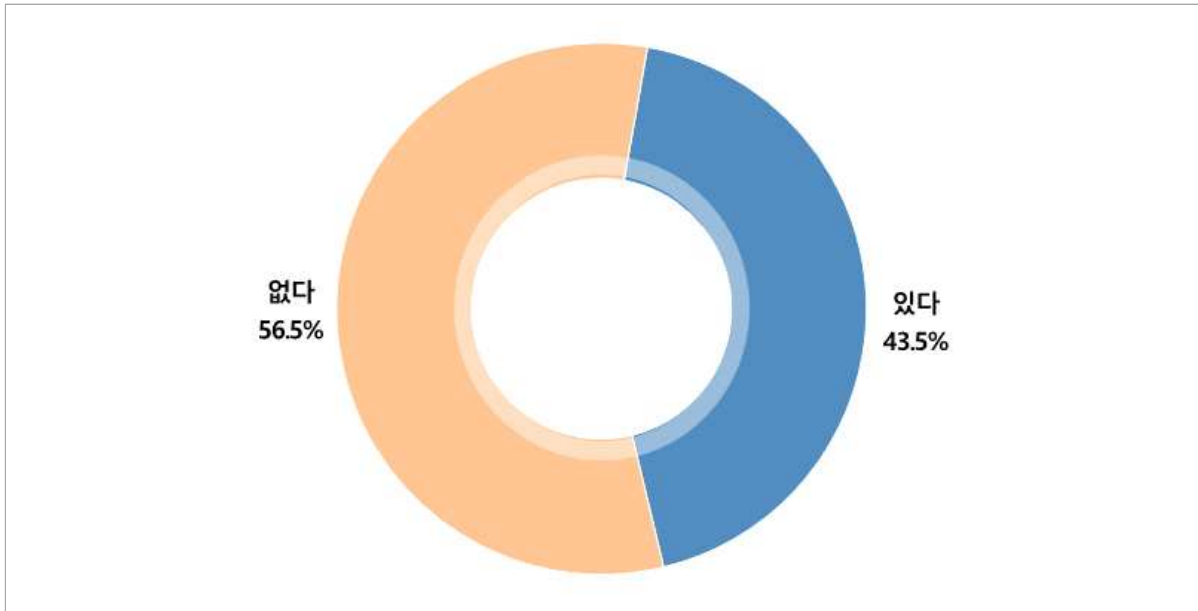
다음으로 전업주부가 31.0%, 무직이 23.8%, 자영업이 20.2% 순이었다. 농/수/축산업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교회는 60세 이상 목사 교회(86.5%)였으며, 충청연회(89.1%)와 중부연회(85.0%)였다. 39세 이하 목회자 교회가 교인의 농/수/축산업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인의 주 직종이 기타 직종인 경우, 곧 도농복합지역에서는 자영업이 3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무직 30.6%, 전업주부 29.9%, 사무/기술직 29.9% 순이었다.

[그림] 교인 주 직업 (1+2순위) (Base=전체, N=5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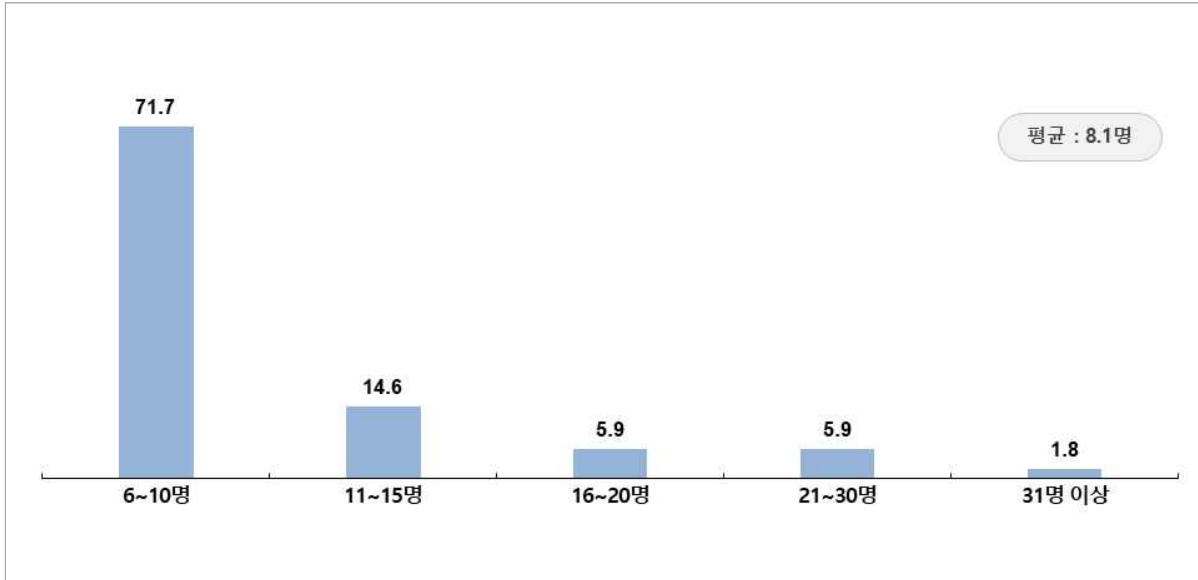
교회학교 운영 여부에 대해 43.5%는 ‘있다’라고 응답하고, 56.5%는 ‘없다’라고 응답해서 농어촌 교회 가운데 교회학교 있는 비율이 절반이 되지 않았다. 40대(60.6%)와 50대(42.0%) 목회자가 담임하는 교회가 교회학교를 운영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39세 이하 목회자 교회와 60세 이상 목회자 교회는 운영률이 낮았다. 39세 이하 목회자 교회는 개척 교회를 하는 경우가 많고 아직 교인 수가 적어서 교회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이며, 60세 이상 목회자 교회는 고령화 정도가 심해서 교회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연회(54.8%)와 중앙연회(53.6%)에서 교회학교 운영률이 가장 높았으며 교인의 주 직종이 기타인 교회, 곧 도농복합지역 교회의 교회학교 운영률이 높았다. 출석 교인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교회학교를 운영하는 경우가 5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때, 교인 수가 50명 이상이 되어야 교회학교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장로교 모 교단의 조사 결과 ‘읍/면’ 소재 교회의 교회학교 운영률이 51.2%인 것과 비교하면 감리회 농어촌교회의 교회학교 운영률은 더 낮았다.

[그림] 교회학교 운영률 (Base=전체, N=504, %)



교회학교에 출석하는 학생 수는, 6~10명이 71.7%로 가장 많았고, 평균이 8.1명으로 대부분이 10명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이하라는 응답이 없는 것을 보면 적어도 6명 이상이 되어야 교회학교가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11~15명인 경우가 14.6%였으며, 31명 이상인 경우는 1.8%였다. 평균 학생 수로 보면 호남연회가 5.1명, 동부연회가 평균 5.8명으로 가장 낮았다.

[그림] 교회학교 출석 학생 수 (Base=교회학교 있는 교회, N=2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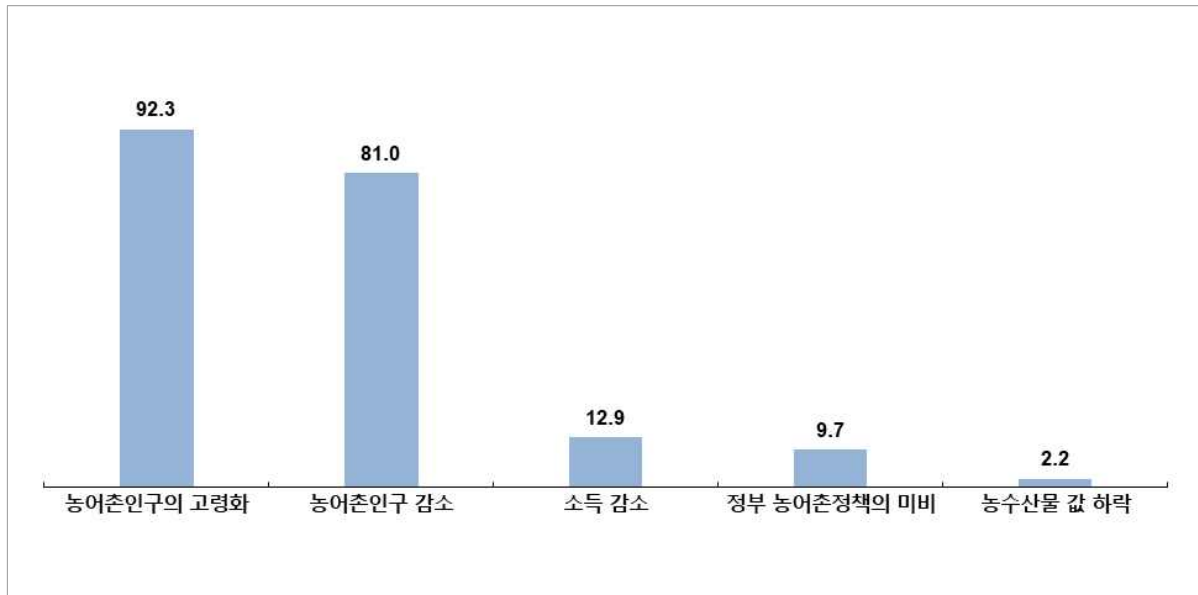


2) 농어촌교회 현실

먼저, 농어촌 현실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2개 응답)로는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92.3%)와 ‘농어촌 인구 감소’(81.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밖에 다른 문제는 10% 이하의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농어촌이 봉착한 심각한 문제 (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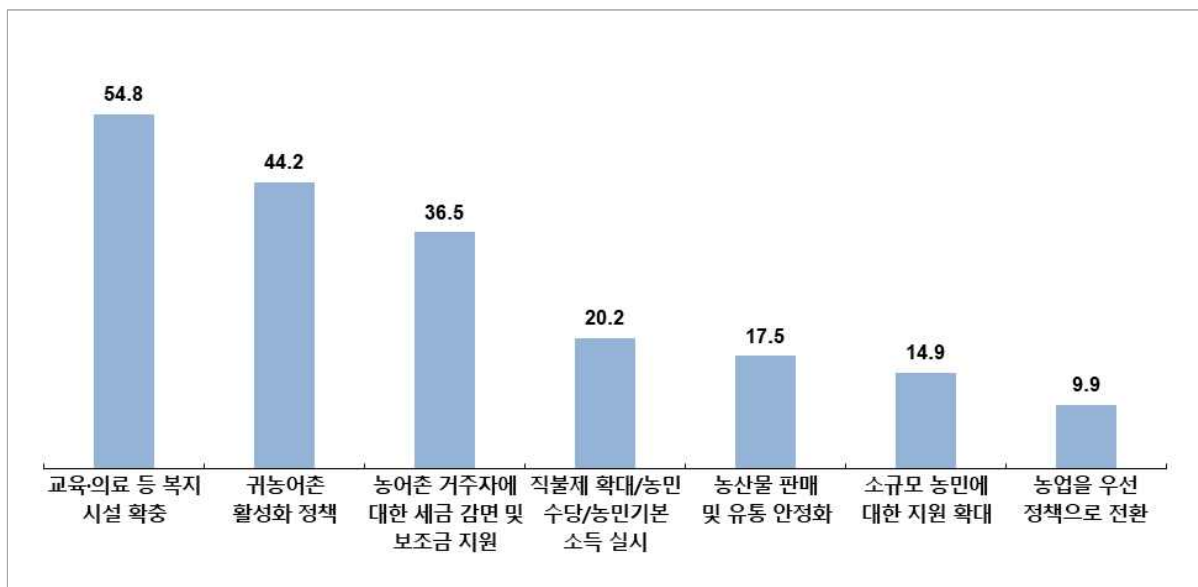
(Base=전체, N=504, %)



농어촌을 위해 정부에게 바라는 점(2개 응답)으로 ‘교육·의료 등 복지 시설 확충’(54.8%)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농어촌 인구 고령화 및 인구 감소 현실에서 우선적으로 복지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농어촌 거주자에 대한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원’(36.5%)을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귀농어촌 활성화 정책’(44.2%)을 응답했는데 최근 귀농어촌 인구 증가에 대한 관심과 인구 감소 현실에서 현실적인 대책으로 ‘귀농어촌 정책’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목회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육·의료 등 복지 시설 확충’에 대한 응답이 높아져서 39세 이하는 70.0%, 40대는 64.2%, 50대는 54.9%, 60대는 30.2%로 나타났다.

[그림] 농어촌을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점 (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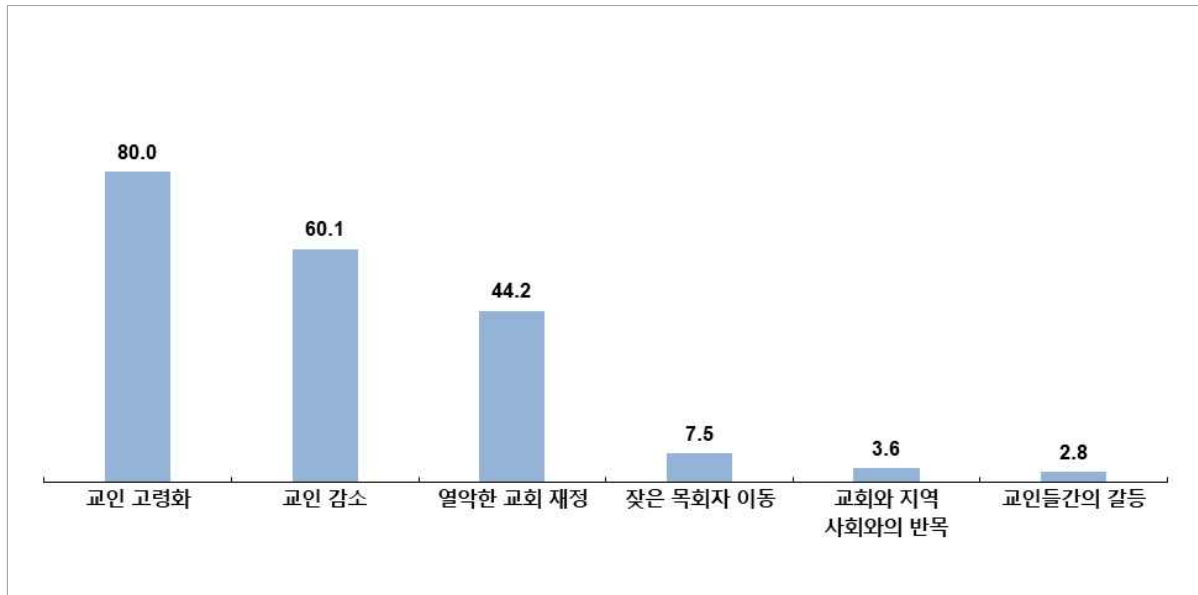
(Base=전체, N=504, %)



농어촌교회가 당면한 문제(2개 응답)로 ‘교인 고령화’(80.0%)와 ‘교인 감소’(60.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 두 문제는 앞에서 본 지역 문제와 동일해서 지역 문제가 농어촌교회와 직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인 고령화’와 ‘교인 감소’는 출석 교인 31명 이상 교회에서 당면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3위로 응답된 ‘열악한 교회 재정’(44.2%)은 출석 교인이 적을수록 응답률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10명 이하 62.5%, 11~30명 53.7%, 31~50명 33.3%) 교회 규모가 적을수록 교회 재정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더 심하게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림] 농어촌교회의 당면 문제 (1+2순위)

(Base=전체, N=5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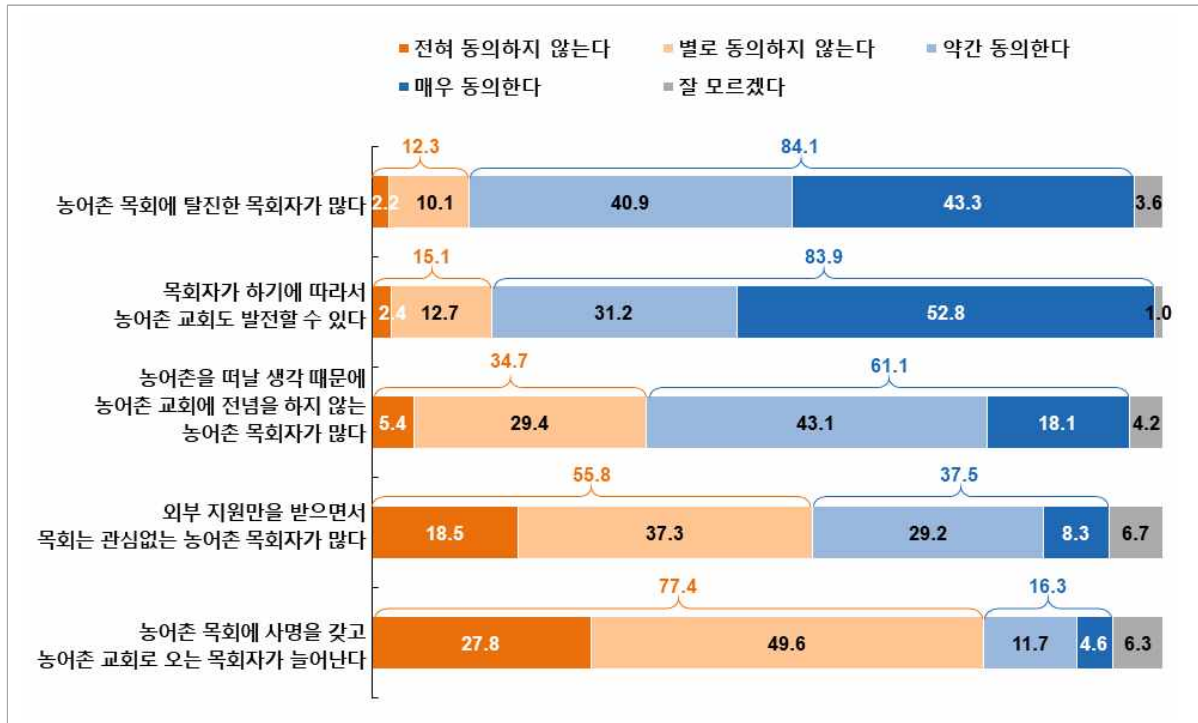


농어촌 목회자들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얼마나 동의하는지 물었다. 전체적으로 농어촌교회의 현실에 대해 어두운 평가를 하고 있으나,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농어촌 목회에 탈진한 목회자가 많다’에 대해서 대다수인 84.1%가 동의하여 농어촌교회 목회가 고난의 길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현재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은 ‘농어촌을 떠날 생각 때문에 농어촌교회에 전념을 하지 않는 목회자가 많다’(61.1%)에도 비교적 높게 동의를 하고 있으며 ‘농어촌 목회에 사명을 갖고 농어촌교회로 오는 목회자가 늘어난다’에는 겨우 16.3%만이 동의하고 있다. 농어촌 교회의 어두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에 ‘목회자가 하기에 따라서 농어촌교회도 발전할 수 있다’는 조건적인 전망에 대해서 83.9%가 동의한다는 것은 농어촌교회의 위축이라는 객관적 현실도 목회자의 주체적인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교회에 대한 기대를 접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농어촌 목회에 탈진한 목사가 많다’는 응답은 농어촌 목회 기간이 길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목회자가 하기에 따라서 농어촌교회도 발전할 수 있다’는 젊을수록(39세 이하 90.0%), 연급 11년 차 이하 정회원 목사(90.1%)와 전도사(93.3%), 그리고 농촌목회 기간 5년 이하(90.2%)에서 응답률이 더 높았다. 종합하면 농어촌교회 경험이 적은 젊은 목회자들은 상대적으로 농어촌목회 발전 가능성을 조건적으로나마 긍정적으로 보지만 농어촌교회 경험이 쌓일수록 현실의 어려움을 체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의 자기 인식

(Base=전체, N=5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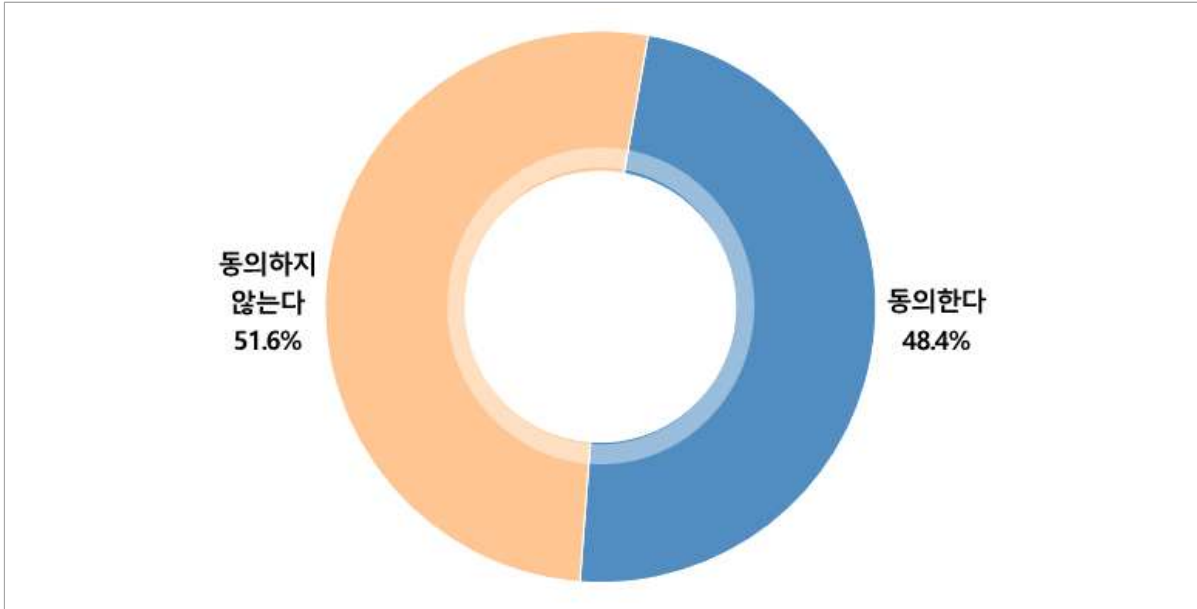


‘농어촌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주장에 48.4%가 ‘동의한다’고 해서 미래를 어둡게 보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6%로 오차 범위 안이지만 더 많았다. 이는 앞 항목에서 본 것처럼 ‘목회자가 하기에 따라서 농어촌교회도 발전할 수 있다’에 대해 대다수인 83.9%가 응답한 것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연령과 연급이 낮을수록 ‘농어촌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39세 이하에서는 62.0%가 ‘농어촌교회에 희망이 없다’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고무적이다. 반대로, 농어촌 목회 기간이 21년 이상 된 목회자의 61.9%, 60세 이상 목회자의 61.5% 즉 농어촌 목회를 오래할수록 농어촌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젊었을 때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농어촌 목회를 하지만 목회 기간이 길수록 현실의 벽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담임 교회를 떠날 생각이 있는 목회자의 경우, 62.0%가 ‘농어촌교회에 희망이 없다’에 동의를 한 반면 과거에 떠날 생각을 한 목회자는 46.1%, 떠날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목회자는 36.4%만이 동의를 했다. 즉 현재 담임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교회 규모나 다른 요인들보다 농어촌교회에 대한 희망을 잃었을 때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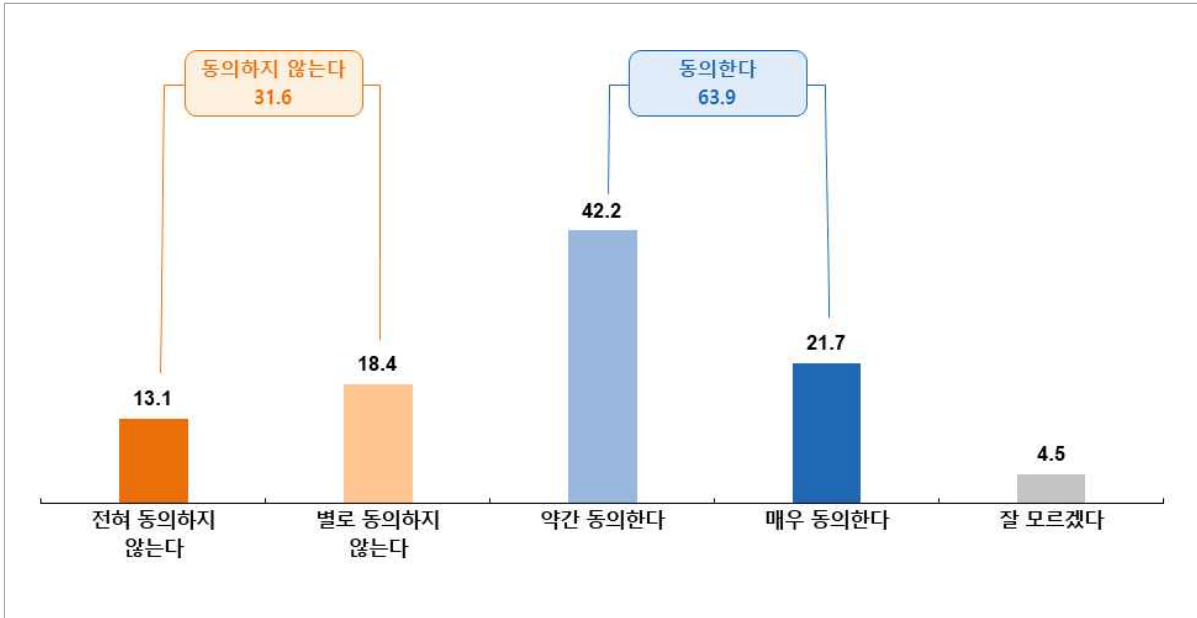
[그림] ‘농어촌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504, %)



농어촌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데 동의한 응답자들에게, 농어촌교회의 고령화와 교인 감소로 인해 존폐의 위기에 있는 농어촌교회의 대책으로 농어촌교회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63.9%가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31.6%가 동의하지 않아서 농어촌교회 통폐합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2배 더 높았지만 10명 가운데 6명만 동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는 아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69.1%)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농어촌 목회 기간이 길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서 농어촌 목회 11년 이상의 경우 67.1%가 동의했다. 연회 가운데는 남부연회(75.7%)와 충청연회(72.0%)가 가장 동의율이 높았다. 또한 지금도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는 목회자들이 통폐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가 73.0%로 높아서 이들에게는 교회 통폐합이 하나의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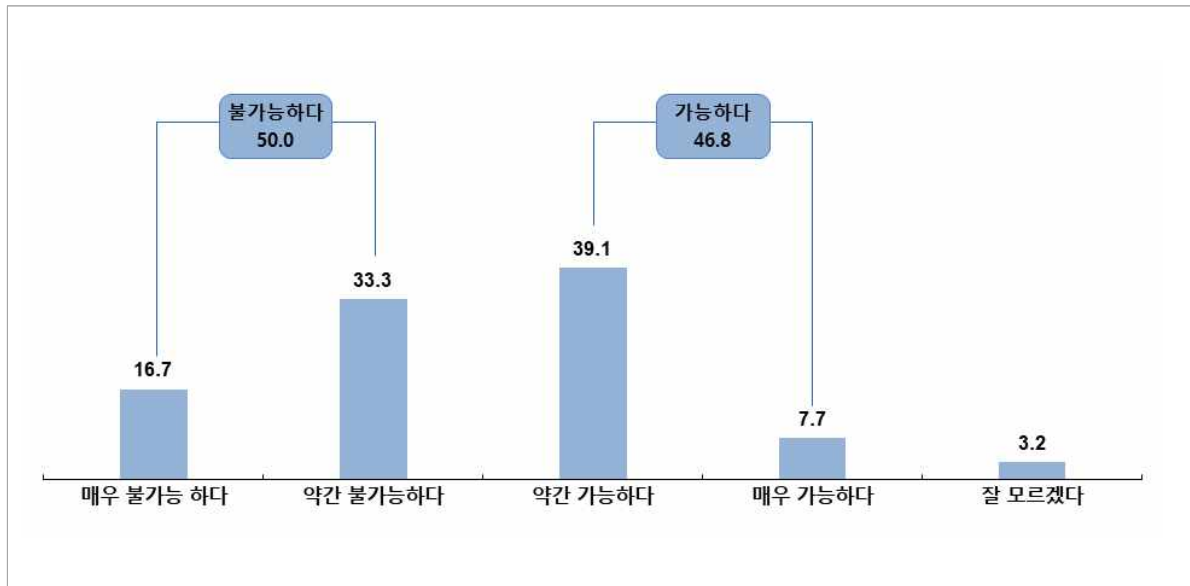
[그림] 농어촌교회 통폐합 필요성 인식 (Base='농어촌교회에 희망이 없다' 동의자, N=244, %)



농어촌교회 통폐합 필요성에 동의한 응답자들에게 통폐합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 물었는데 50.0%는 ‘불가능하다’, 46.8%는 ‘가능하다’라고 응답해서 거의 반반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불가능하다’가 절반이나 된다는 것은 농어촌교회 통폐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가능하다’는 의견은 현 교회 담임 기간이 11년 이상인 목회자와 출석 교인 10명 이하 교회 목회자가 많이 제시하였다. 농어촌교회 담임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투명, 초소형 교회의 불안감이 통폐합의 절박성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농어촌교회 통폐합의 현실적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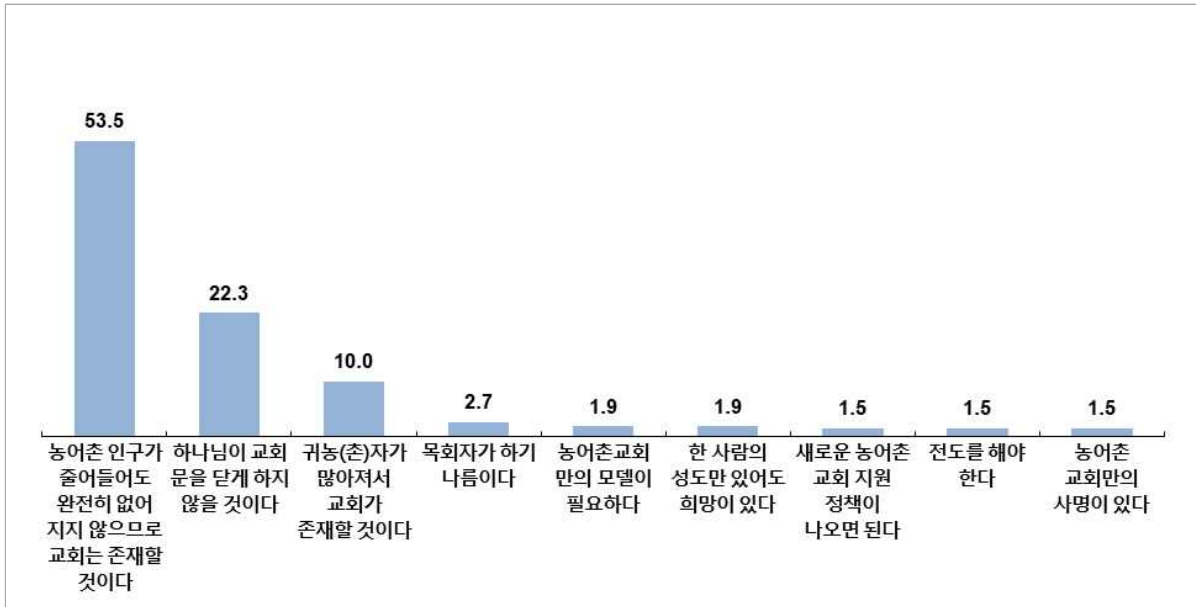
(Base='농어촌교회 통폐합 필요성' 동의자, N=156, %)



농어촌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농어촌 인구가 줄어들어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므로 교회는 존재할 것이다’(53.5%)를 가장 많이 꼽았다. 농어촌교회 목회를 목회의 현실적 가능성 차원이 아니라 선교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농어촌 인구가 줄어들어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므로 교회는 존재할 것이다’라는 이유는 50대 목사(65.6%)와 출석 교인 10명 이하 교회 목사(63.0%)들이 많이 응답했다. 또 교인의 주 직종이 기타 직종인 교회(도농복합지역 교회)에서 62.3%로 더 높게 나타났다. 도농복합지역이 순 농어촌 지역보다 인구 고령화 및 감소 현상이 상대적으로 덜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응답으로는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게 하지 않을 것이다’(22.3%), ‘귀농(촌)자가 많아져서 교회가 존재할 것이다’(10.0%) 등이 있었다.

[그림] ‘농어촌교회에 희망이 없다’에 비동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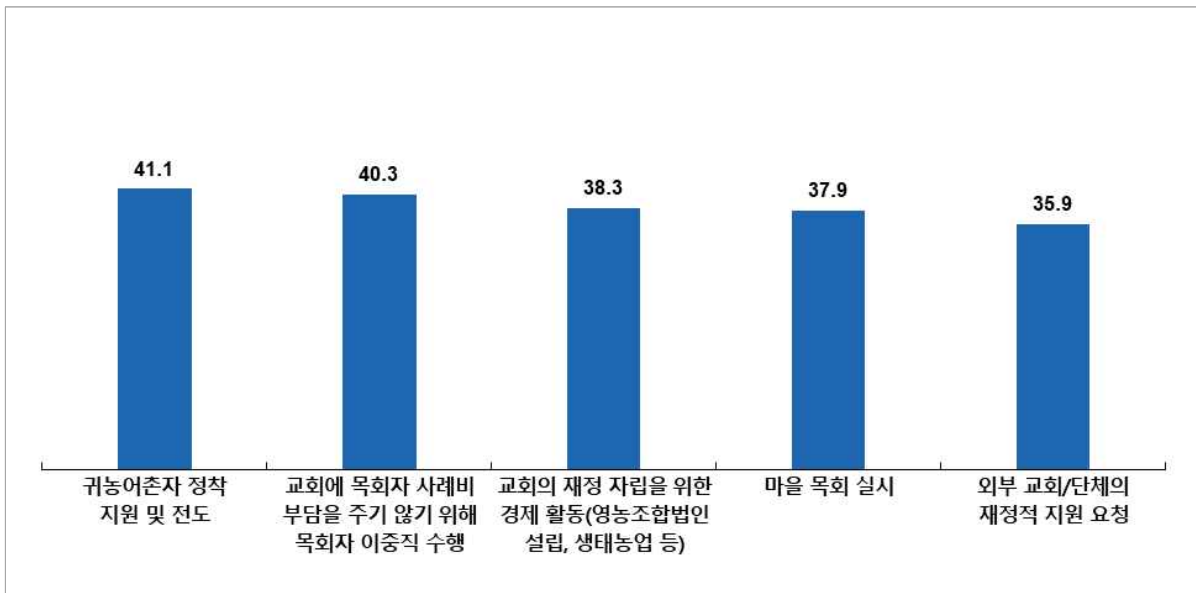
(Base='농어촌교회에 희망이 없다' 비동의자, N=260, %)



농어촌교회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자구 노력으로 필요한 것(2개 응답)으로는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응답이 나왔다. ‘귀농어촌자 정착 지원 및 전도’(41.1%), ‘교회에 목회자 사례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목회자 이중직 수행’(40.3%), ‘교회의 재정 자립을 위한 경제 활동(영농조합법인 설립, 생태농업 등)’(38.3%), ‘마을목회 실시’(37.9%), ‘외부 교회/단체의 재정적인 지원 요청’(35.9%) 등이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농어촌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안으로는 부족하고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0대 이하와 농촌 목회 10년 이하의 젊은 목회자들은 ‘외부 재정 지원’과 ‘마을목회 실시’를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50대 이상과 출석교인 30명 이상 교회 목회자들은 ‘귀농어촌자 정착 지원 및 전도’를 가장 많이 응답하는 차이를 보였다. ‘목회자 이중직 수행’은 젊은 목회자가 많이 응답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연령별로 차이가 없었으며, 농촌 목회 기간이 11년 이상된 목회자들과 농촌교회를 떠날 생각을 과거에 했거나 현재 하는 목사들이 많이 응답했다.

[그림] 농어촌교회 자구 노력(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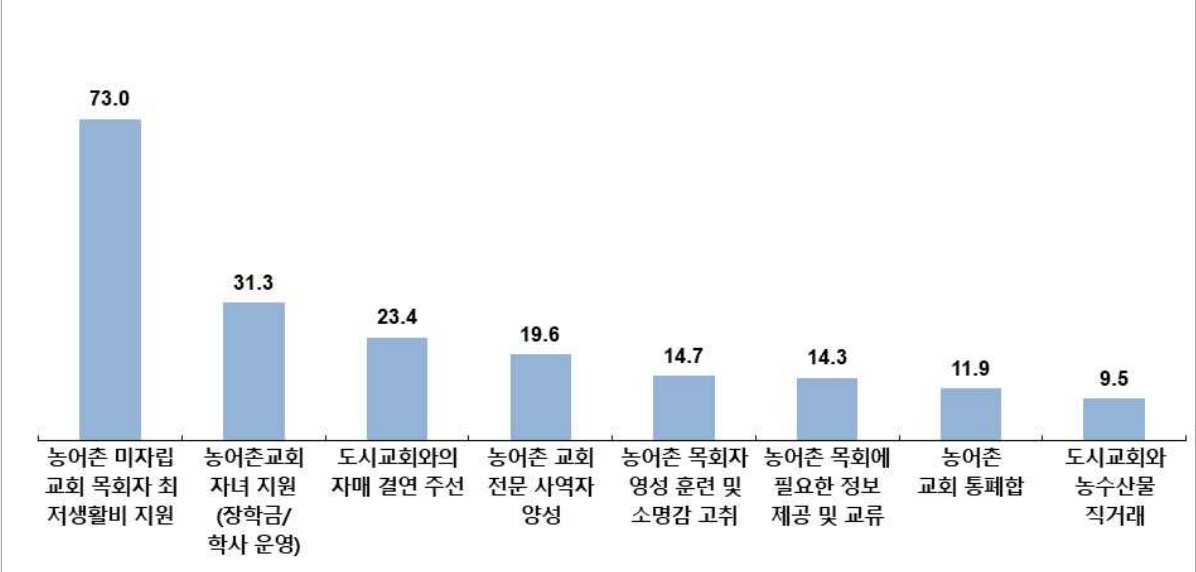
(Base=전체, N=504, %)



농어촌교회가 지방회, 연회, 본부에 가장 많이 바라는 지원 사항(2개 응답)으로는 4명 가운데 3명(73.0%)이 응답한 ‘농어촌 미자립 교회 목회자 최저생활비 지원’이 가장 많았다. ‘최저 생활비 지원’에 대한 응답률은 출석 교인 10명 이하 교회 목회자(89.4%)와 39세 이하 목회자(80.0%)가 다른 목회자보다 확연하게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두 번째 희망 사항은 ‘농어촌교회 자녀 지원’(31.3%)이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희망 사항이 모두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었다. 이 응답은 50대 목회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는데 50대는 자녀가 대학생 나이에 해당하는 나이이다. 한편 ‘농어촌교회 전문 사역자 양성’(19.6%), ‘농어촌 목회자 영성 훈련 및 소명감 고취’(14.7%)는 응답률은 높지 않았지만 농어촌교회를 특수 분야 목회로 분류해서 특별한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응답은 출석 교인 51명 이상 교회 목사들이 많이 응답했다.

[그림] 지방회, 연회, 본부에 바라는 지원 사항 (1+2순위)

(Base=전체, N=5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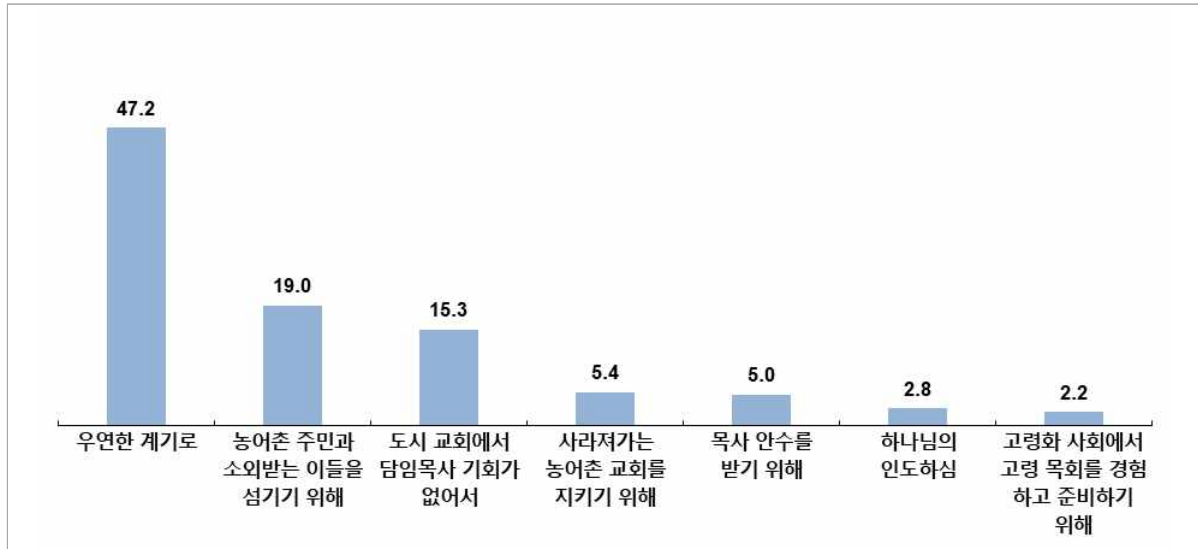


3) 농어촌교회의 목회

농어촌 목회를 하게 된 이유로는 ‘우연한 계기로’라는 응답이 47.2%로 가장 많았다. 농어촌교회에 소명을 가지고 오기보다는 특별한 목적 없이 온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되었고, ‘도시 교회에서 담임목사 기회가 없어서’(15.3%)를 포함하면 60% 이상이 농촌 목회를 비목적적으로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4분의 1 정도는 ‘농어촌 주민과 소외받는 이들을 섬기기 위해’(19.0%), ‘사라져가는 농어촌교회를 지키기 위해’(5.4%), ‘하나님의 인도하심’(2.8%) 등으로 응답하여, 사명과 소명을 위해 농어촌교회 목회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연한 계기로’는 39세 이하(64.0%)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어촌 주민과 소외받는 이들을 섬기기 위해’라는 응답은 현 교회 21년 이상 담임 목회자(34.5%)와 농촌 목회 21년 이상 목회자(31.9%)들이 많이 제기했다. 젊은 목회자들이 우연한 계기로 왔다는 응답이 많은 것은, 이전에는 소명을 가지고 농어촌에 왔지만 최근에는 목회자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농어촌으로 오는 목회자가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농어촌 목회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 농촌 목회에 오래 남아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림] 농어촌교회 목회 이유 (상위 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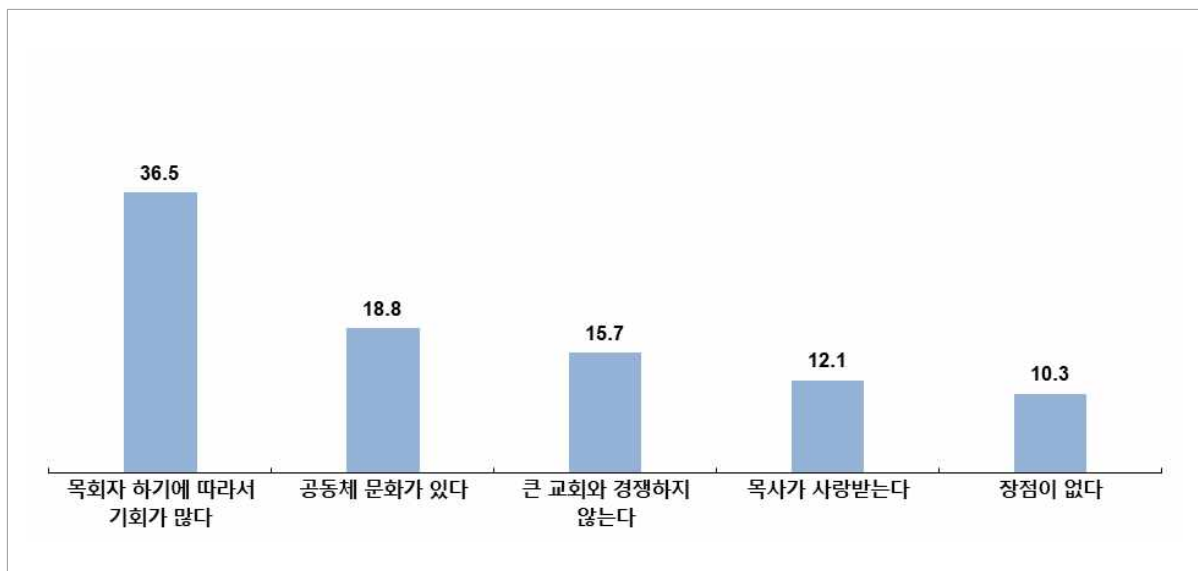
(Base=전체, N=504, %)



농어촌교회의 가장 큰 장점으로서는 '목회자 하기에 따라서 기회가 많다'를 3명 가운데 1명 이상 (36.5%)이 응답했다. 농어촌교회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직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인식이다. 그 외에 '공동체 문화가 있다'(18.8%), '큰 교회와 경쟁하지 않는다'(15.7%), '목사가 사랑받는다'(12.1%)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농어촌 목회자들 가운데에는 도시와 다른 여건이 장점으로 여겨지고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농촌 지원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목회자 하기에 따라서 기회가 많다'라는 응답은 연급 1-10년 목사(41.4%), 농촌 목회 기간 5년 이하 목회자(43.1%)와 현 교회 담임 5년 이하 목회자(42.1%), 즉 농어촌교회 경력이 많지 않은 목사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들의 의욕적 자세가 열매를 맺도록 지원해주어야 목회 탈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농어촌교회 목회의 장점 (상위 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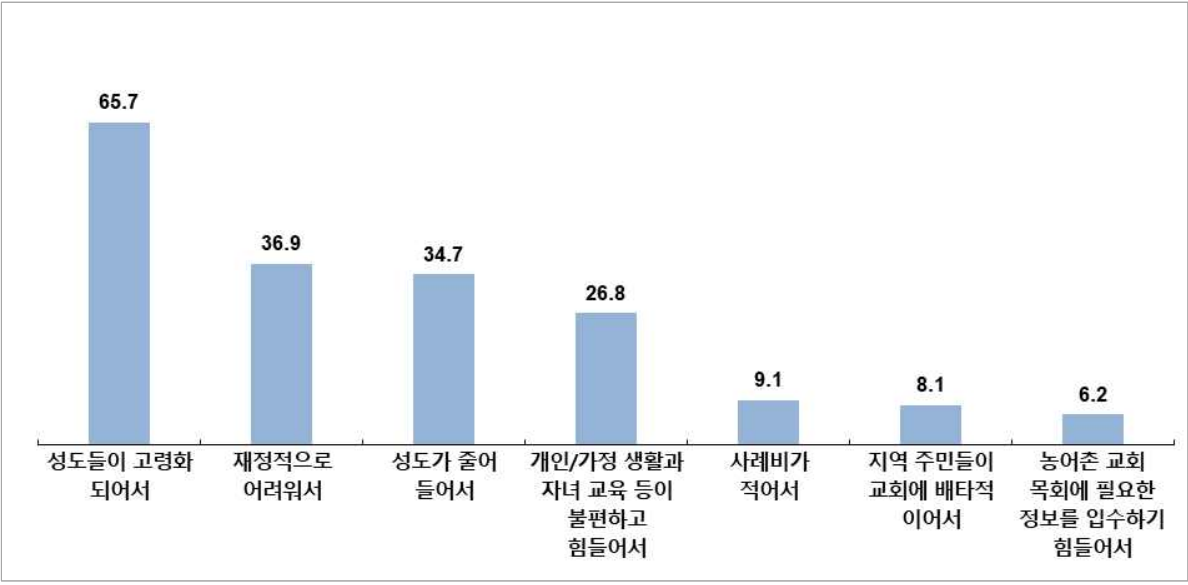
(Base=전체, N=504, %)



반면에, 농어촌교회 목회의 어려운 점(2개 응답)으로 '성도 고령화'(65.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성도가 줄어 들어서'(34.7%)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는데, 앞에서 농촌 지역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성도 감소와 성도 고령화는 농어촌교회에 가장 위협적인 요인이라는 응답이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서'(36.9%)는 고령화와 성도 감소의 복합적 결과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60세 이상, 농촌목회 21년 이상 그리고 출석 교인 31명 이상 교회 목회자들은 '성도 고령화'와 '성도 수 감소'를 어려운 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목회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39세 이하, 출석 교인 10명 이하 교회 목회자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사례비가 적어서'등의 경제적 문제와 '개인/가정생활과 자녀 교육등이 불편하고 힘들어서'와 같은 생활 편의성,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교회에 배타적이어서'등이 어려운 문제라고 응답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 교육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이고 도시와 다른 환경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농어촌교회 목회의 어려운 점 (1+2순위, 상위 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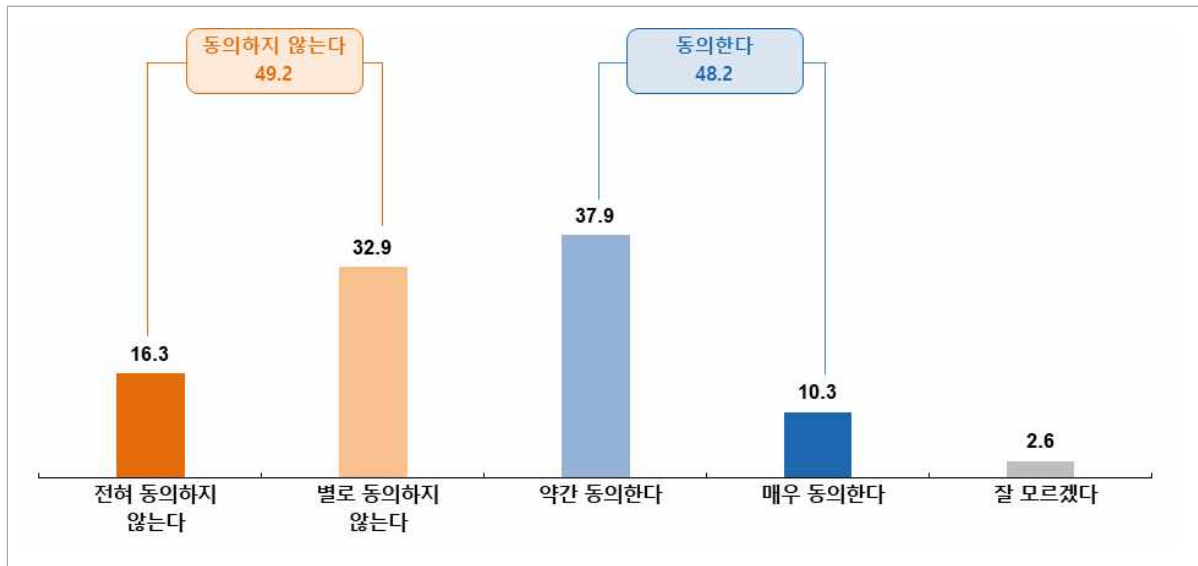
(Base=전체, N=504, %)



농어촌 지역의 배타성과 관련하여 '교인의 텃세 때문에 힘들다'는 응답자는 절반에 가까운 48.2%였다. '텃세 때문에 힘들다'는 응답은 목회자가 젊을수록(39세 이하 54.0%), 현 교회 담임 기간이 짧을수록(5년 이하 52.2%), 출석 교인이 많을수록(51명 이상 58.1%) 더 높았다. 곧 목회 경험이 적으면서 상대적으로 교인이 많은 교회에서 텃세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림] 교인 배타성으로 인한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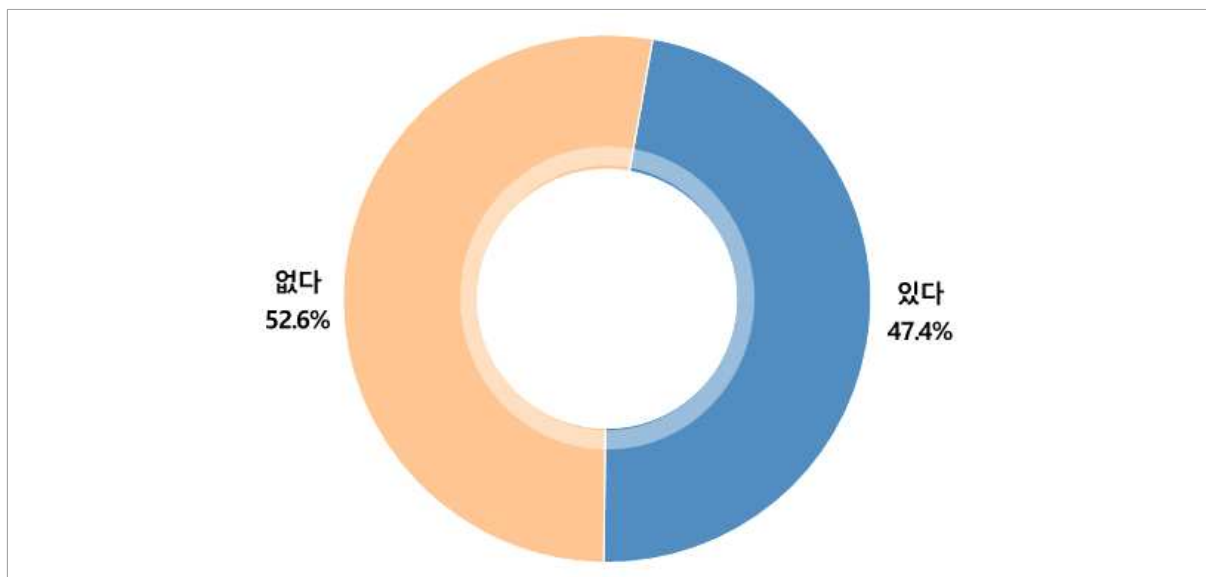
(Base=전체, N=504, %)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귀농귀촌 인구가 늘고 있고, 교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귀농어촌에 대해 물어보았다. 먼저, 교회에 귀농어촌 교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절반 정도 (47.4%)가 있다고 응답했다. 동부연회(62.5%)가 가장 많았고 경기연회(25.8%)와 삼남연회(24.2%)가 가장 적었다. 또한 출석 교인이 많은 교회일수록 귀농어촌 교인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는데, 10명 이하 교회는 25.0%인데 반해, 51명 이상 출석 교회는 59.3%로 귀농어촌 교인이 2배 이상 더 많았다. 교인이 적은 경우에는 기존 교인들을 중심으로 교인이 모이고 있고, 교인이 많은 경우에는 귀농어촌 교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귀농어촌인들이 교회를 찾아갈 때 비교적 큰 규모의 교회를 찾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순 농어촌 지역(교인의 주 직종이 농/수/축산업인 경우)에 51.3%로서 기타 지역의 38.9%보다 많았다. 귀농어촌이 도농복합지역보다 순 농어촌 지역으로 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귀농어촌 교인 출석 여부

(Base=전체, N=5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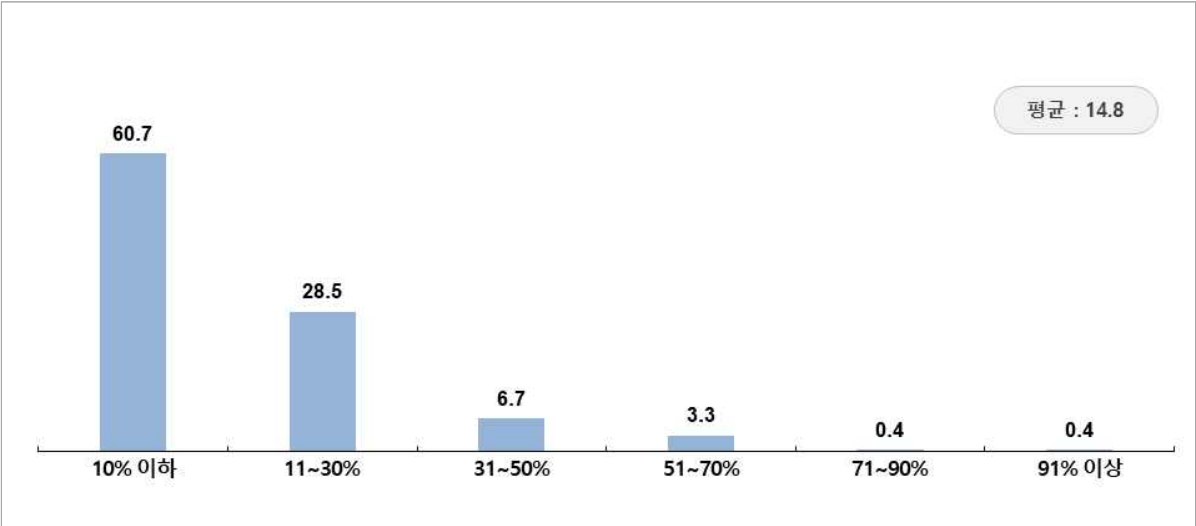


귀농어촌 교인이 전체 교인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 '10%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60.7%

로 가장 많았다. 귀농어촌 교인 비율이 11~30%인 경우가 28.5%, 31~50%인 경우가 6.7%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귀농어촌 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적은 인원이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어촌 교인 비율의 평균은 14.8%였다. 출석 교인 수가 적은 교회에서 귀농어촌 교인의 비율이 높았다. 출석 교인 수 10명 이하 교회에서도 26개 교회가 귀농어촌 교인이 있었는데, 그 비율이 21.1%로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교회가 작기 때문에 귀농어촌 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지만, 그만큼 작은 교회일수록 귀농어촌 교인이 중요한 존재라고 볼 수 있다.

[그림] 귀농어촌 교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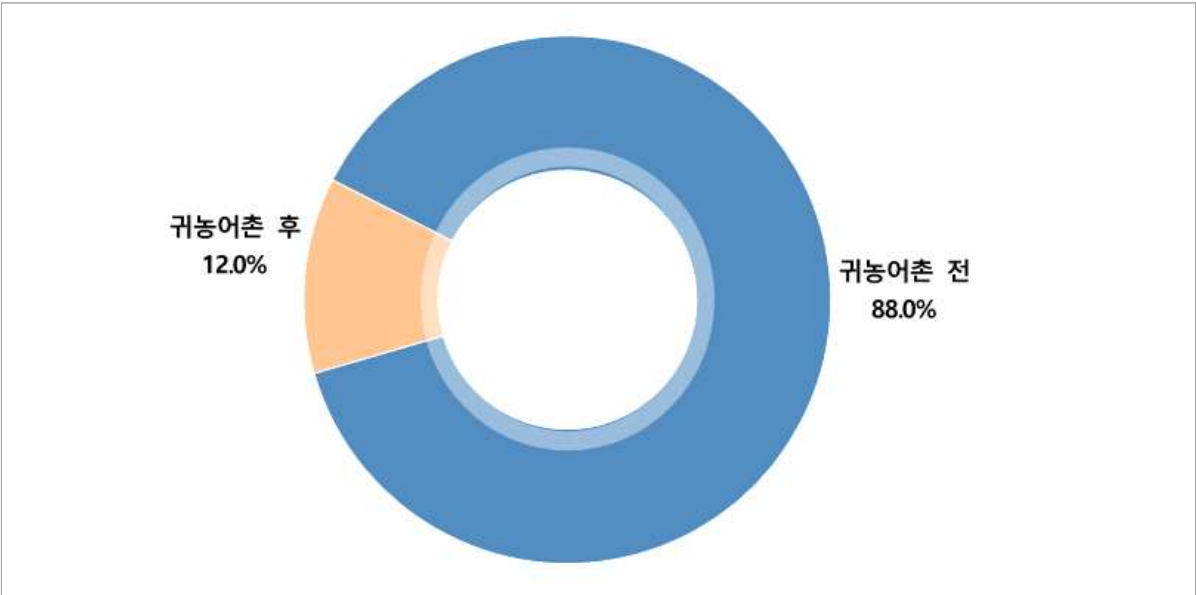
(Base=귀농어촌 교인 있는 교회, N=239, %)



귀농어촌 교인들이 신앙을 갖게 된 시기는, '귀농어촌 전'에 신앙을 가졌다는 비율이 88.0%로 '귀농어촌 후'보다 7배나 많았다. 귀농어촌 교인들의 대다수가 귀농하기 전에 이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귀농어촌을 하면서 그 지역의 교회를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10명 중 한 명은 귀농어촌 후에 신앙을 갖게 된 것이므로 전도의 가능성을 결코 작게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림] 귀농어촌 교인이 신앙을 갖게 된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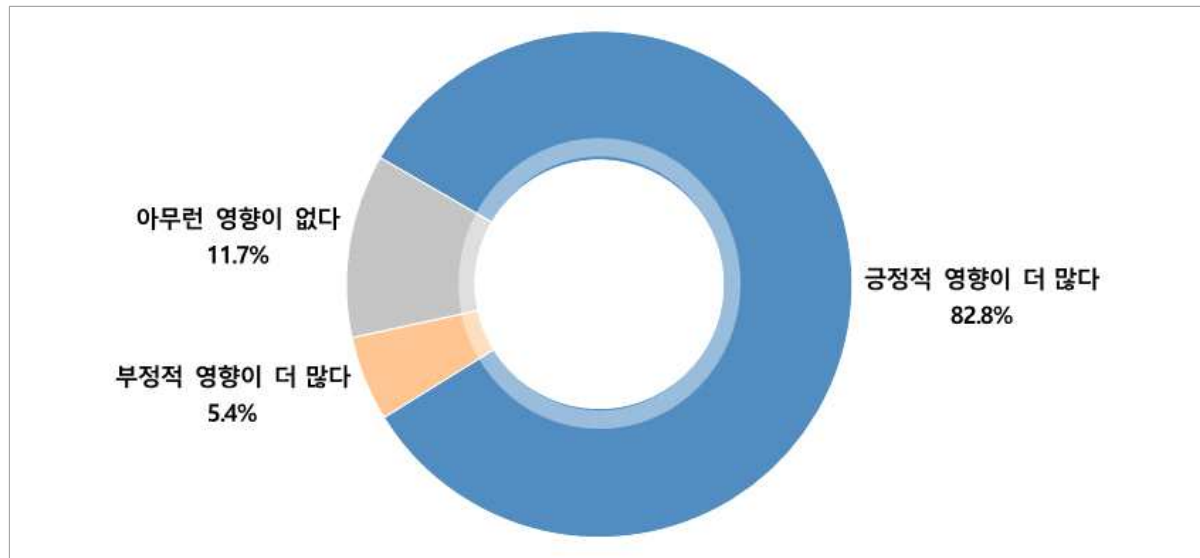
(Base=귀농어촌 교인 있는 교회, N=239, %)



귀농어촌한 교인들이 교회와 목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먼저 '긍정적 영향'이 82.8%로 '부정적 영향'(5.4%)을 압도했다. 따라서 귀농어촌 교인이 농어촌교회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영향이 큰 응답자는 젊고(39세 이하 95.8%), 현 교회 담임 기간이 짧고(5년 이하 90.7%), 교인 수가 적은 교회(10명 이하 88.5%)에서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젊고 새로 농어촌 지역의 작은 교회에 부임한 목회자들에게 귀농어촌 교인들이 큰 힘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귀농어촌 교인이 목회에 미치는 영향

(Base=귀농어촌 교인 있는 교회, N=23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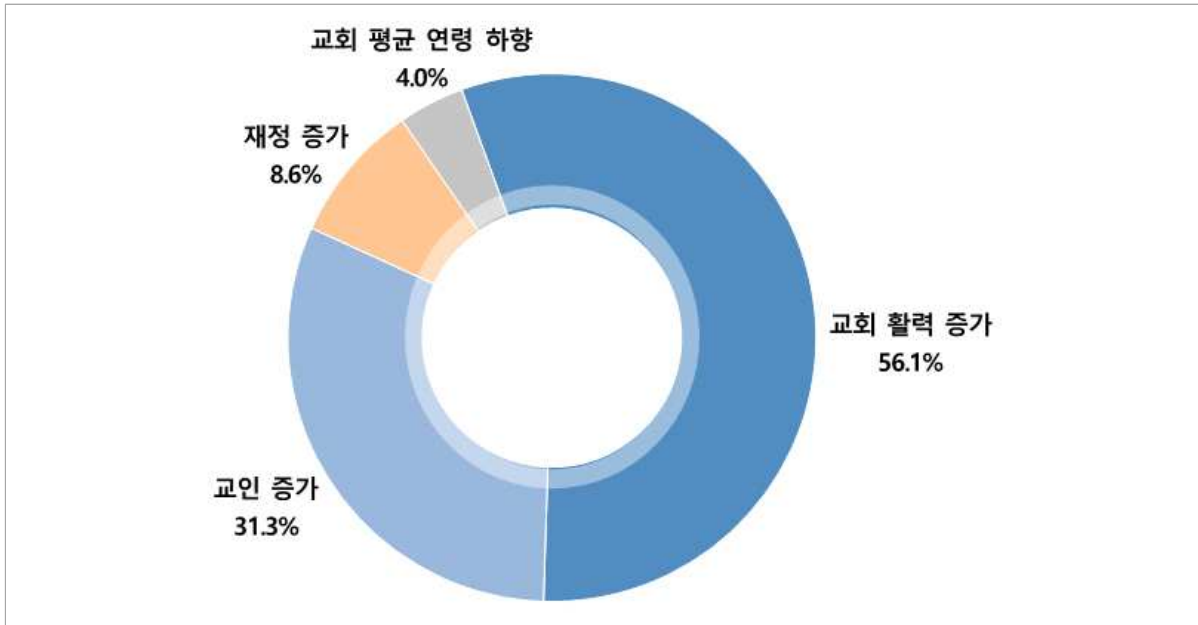


귀농어촌 교인들이 미치는 가장 큰 긍정적 영향으로는 '교인 증가'(31.3%)도 있었지만 단순히 숫자 증가보다는 '교회 활력 증가'(56.1%)가 단연 최고의 영향으로 꼽혔다. 교인 수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귀농어촌 교인의 유입은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는 인식이다. 그 외에도 '재정 증가'(8.6%), '교회 평균 연령 하향'(4.0%) 등의 긍정적인 영향도 일부 나타났다. '교회 활력 증가'는 목회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60세 이상 62.2%), 출석교인 31명~50명 교회(68.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39세 이하의 젊고(17.4%) 출석 교인 10명 이하의 교회(21.7%)는 '재정 증가'가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이라고 꼽았다. 교인들이 비교적 많은 경우에는 관습적인 신앙생활이나 교회활동에 젖어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새로 유입된 귀농어촌 교인들이 활력을 준다는 것이고, 교회가 작을 경우에는 당장의 어려운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다. 작은 교회의 재정적 형편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귀농어촌 교인이 주는 부정적 영향으로는 '기존 교인과 화합이 안됨'(30.8%), '쉽게 교회를 떠남'(23.1%), '교회 소속감이 낮음'(15.4%), '교회에 대한 비판적 발언'(15.4%)의 순으로 응답했으나 사례 수가 13명으로 매우 적어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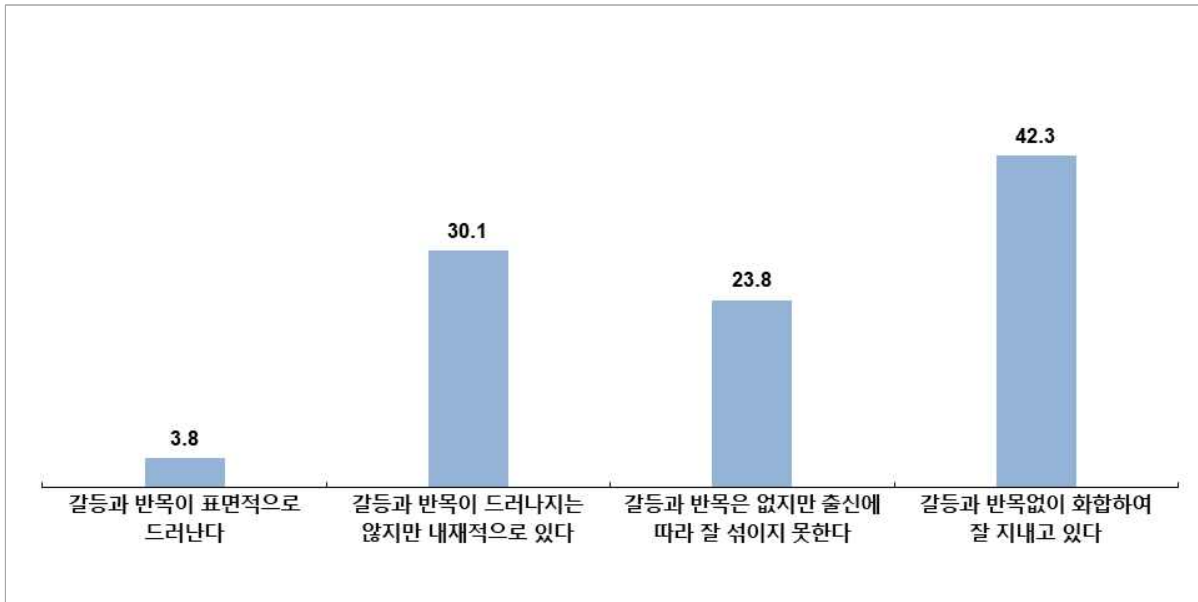
[그림] 귀농어촌 교인의 긍정적 영향 내용

(Base=귀농어촌 교인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교회, N=198, %)



귀농어촌 교인과 기존 주민과의 관계에 대하여, ‘갈등과 반목 없이 화합하여 잘 지내고 있다’는 응답이 42.3%로 가장 많았으나 절반이 되지 않았고, 나머지 57.7%의 목회자는 원주민 교인과 귀농어촌 교인 간에 화학적 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화학적 결합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응답자 가운데 ‘갈등과 반목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재적으로 있다’(30.1%), ‘갈등과 반목은 없지만 출신에 따라 잘 섞이지 못한다’(23.8%)가 절반이 넘는 53.9%였다. ‘갈등과 반목이 표면적으로 드러난다’는 비율은 3.8%였지만,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일정 정도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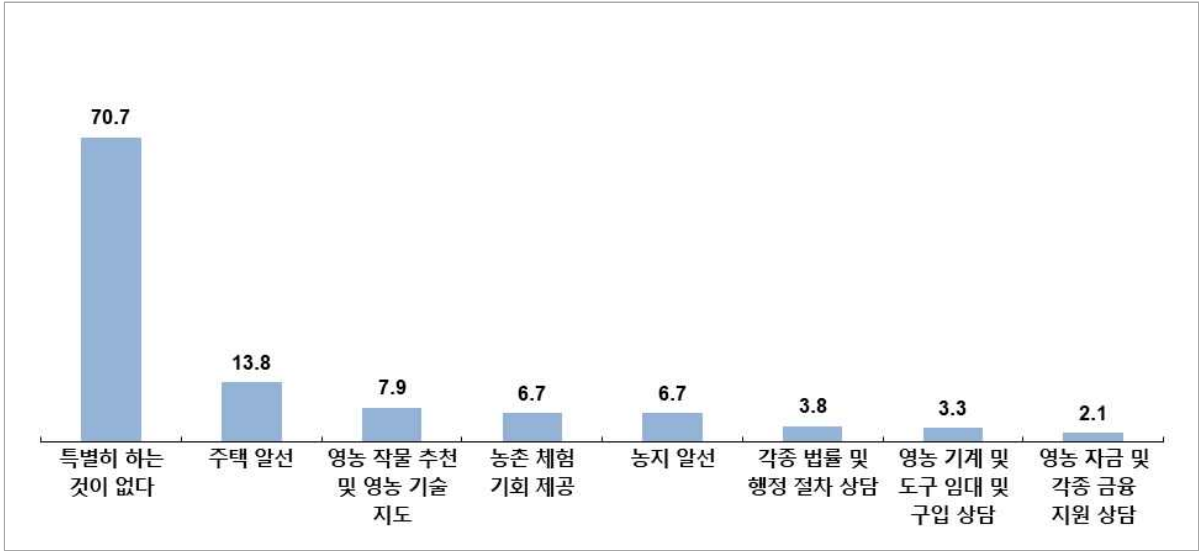
[그림] 귀농어촌 교인과 원래 교인과의 관계 (Base=귀농어촌 교인이 있는 교회, N=239, %)



귀농어촌 교인들에 대한 교회의 지원(복수 응답)에 대해, ‘특별히 하는 것이 없다’는 응답이 70.7%로 특별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었다. 이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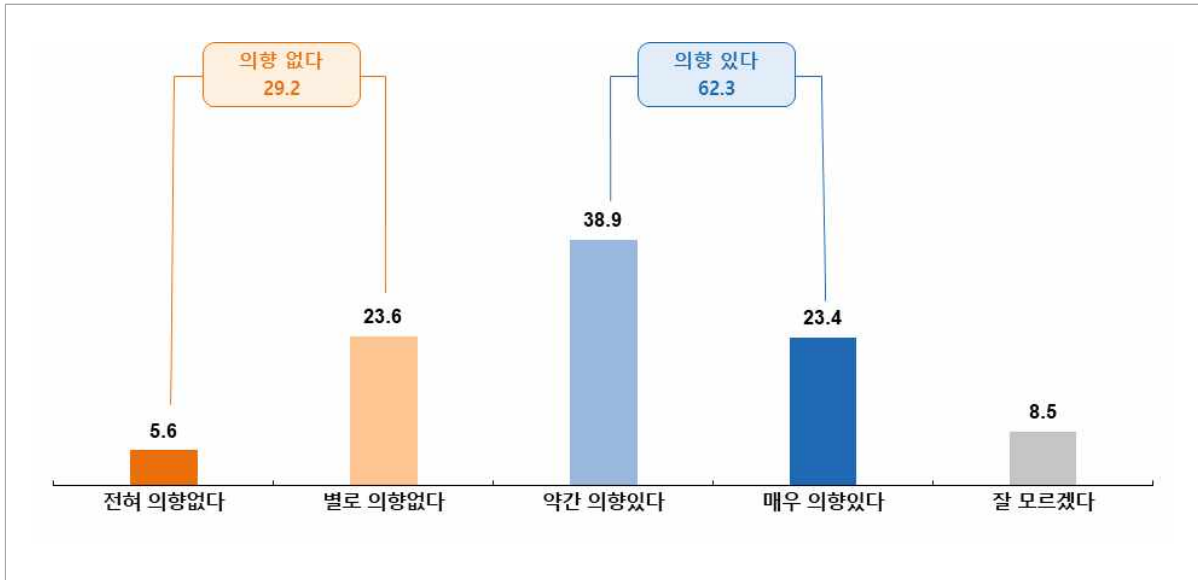
타났으며, 농촌 목회 기간이 짧을수록, 출석 교인이 적을수록 응답율이 낮았다. 목회 경험이 부족해서 귀농어촌 교인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알지 못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귀농어촌 교인이 있는 교회의 29.3%(전체 농어촌교회의 13.9%)가 '주택 알선'(13.9%), '영농작물 추천 및 영농 기술 지도'(7.9%), '농촌 체험 기회 제공'(6.7%), '농지 알선'(6.7%), '각종 법률 및 행정 절차 상담'(3.8%), '영농 기계 및 도구 임대 및 구입 상담'(3.3%), '영농 자금 및 각종 금융 지원 상담'(2.1%)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었다. 특히 60대 목사들은 '영농작물 추천 및 영농 기술 지도'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젊은 목사들보다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귀농어촌 교인 관련 목회에서 목회의 경험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귀농어촌 교인에 대한 교회의 지원 사항 (복수응답) (Base=귀농어촌 교인이 있는 교회, N=239, %)



귀농어촌 교인을 위한 상담/정착 지원 활동(상담/정착지원 조직 구성 포함) 의향에 대해 농어촌 교회 담임목사의 3명 중 2명에 가까운 62.3%가 '의향 있다'고 응답했다. 귀농어촌 교인이 있는 경우에 지원 의향이 66.1%여서 귀농어촌 교인이 있는 경우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높은 지원 의향이 있음에도 현재 지원 활동을 하는 비율은 귀농어촌 교인이 있는 교회의 29.3% 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귀농어촌 교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방법 등에 대한 인식이 아직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귀농어촌 교인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어떻게 이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교인 간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농어촌교회 목회자를 위한 교육과 안내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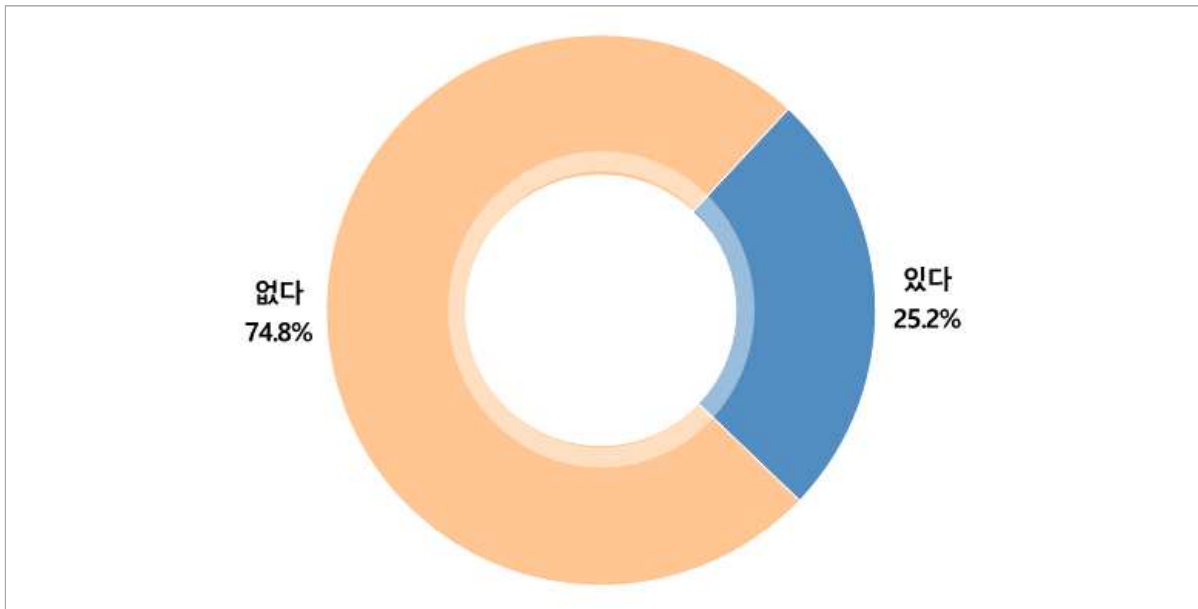
[그림] 귀농어촌 교인에 대해 교회가 상담/정착 지원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504, %)



다음으로,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농어촌 지역에도 적지 않은 다문화 또는 이주민 가정이 유입되고 있어서 이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먼저, 다문화/이주민 가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25.2%가 '있다'고 응답하여 농어촌 지역 교회 가운데 적지 않은 4분의 1 정도에 다문화/이주민 가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회(41.9%)가 다문화/이주민 가정 비율이 제일 높아서 서울에서 먼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석 교인이 많을수록(51명 이상 교회 44.2%) 다문화/이주민 가정 교인이 출석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림] 다문화 가정 교인 출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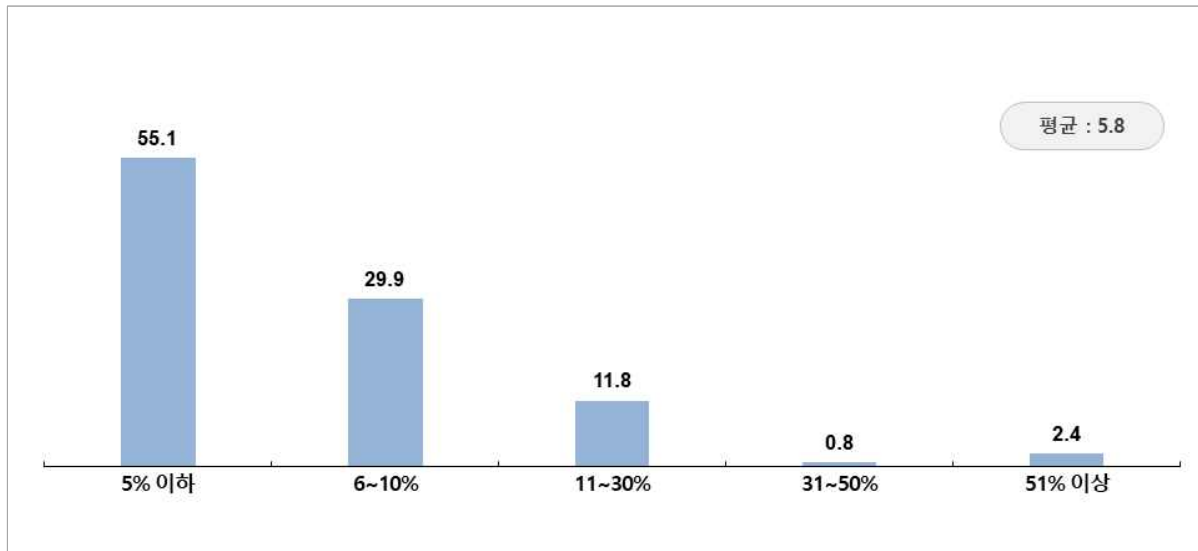
(Base=전체, N=504, %)



교회 내 다문화 가정/이주민 교인이 있는 경우에, 그 비율은 '5% 이하'가 55.1%로 가장 많았다. 평균이 5.8%로 다문화/이주민 가정이 있더라도 그 비율은 매우 적었고, 앞에서 살펴본 귀농어촌 비율보다 적었다. 그런데 51% 이상 곧 다문화/이주민 교인이 기존 교인들보다 더 많아서 사실상 다문화 목회를 하는 경우가 2.4%였다.

[그림] 다문화 가정 교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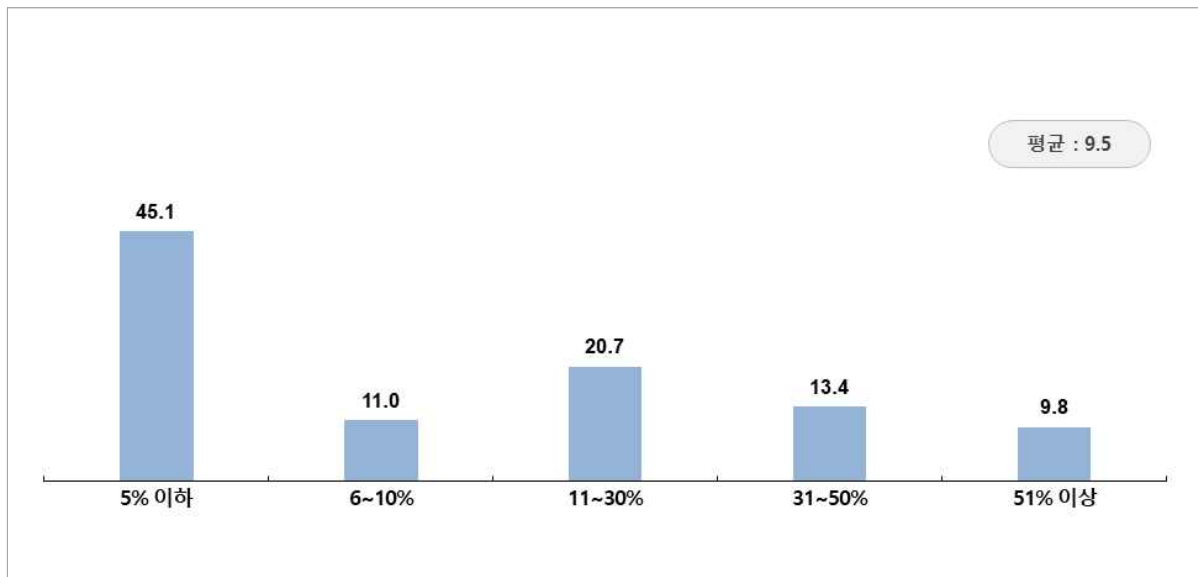
(Base=다문화 가정 교인 있는 교회, N=127, %)



고등학교 이하 학생이 있는 교회에 다문화 가정/이주민 자녀의 비율을 물었는데, 역시 '5% 이하'라는 의견이 45.1%로 가장 많았다. 그런데 평균 9.5%로 전체 다문화/이주민 가정 평균보다 높아서 다문화/이주민 청소년이 적지 않게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51% 이상'으로 다문화 청소년 목회를 하는 경우가 9.8%나 되었다. 농어촌교회에서 다문화 목회가 중요함을 알 수 있는 조사 결과이다.

[그림] 다문화 가정 자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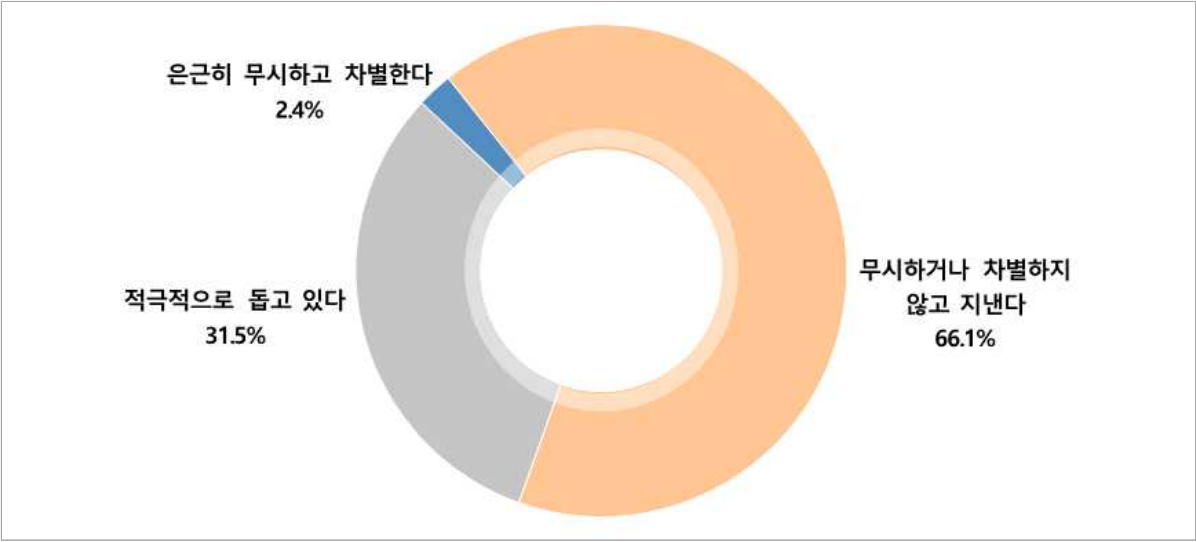
(Base=고등학교 이하 학생이 출석하는 다문화 가정 있는 교회, N=82, %)



다문화 가정/이주민에 대한 교인들의 태도에 대해, 3분의 2인 66.1%가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지낸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고 31.5%가 응답해서 거의 모든 농어촌교회 (97.6%)는 교인들이 다문화 가정/이주민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근히 무시하고 차별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4% 밖에 되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응답률은 교회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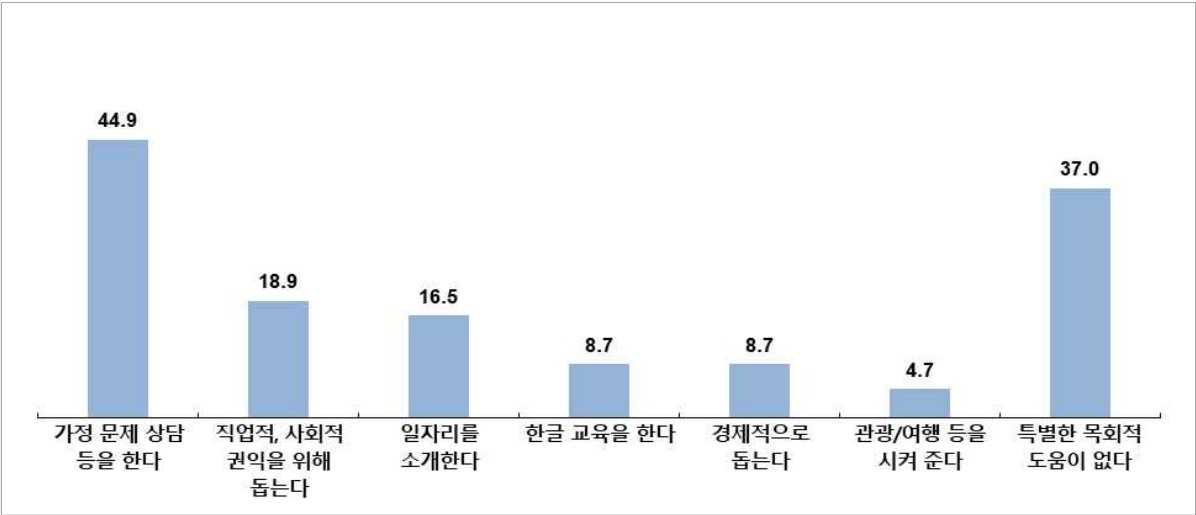
가 클수록(51명 이상 출석 교회 42.1%)와 교인의 주 직종이 기타 직종인 교회(도농복합지역 교회)에서 46.5%로 더 높았다. 이들 교회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림] 다문화 가정 교인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 (Base=다문화 가정 교인 있는 교회, N=127, %)



다문화 가정/이주민을 위한 지원 활동이 교회에 있는지에 대해, '가정 문제 상담 등을 한다'는 의견이 44.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직업적, 사회적 권익을 위해 돕는다'(18.9%), '일자리를 소개한다'(16.5%), '한글 교육을 한다'(8.7%), '경제적으로 돕는다'(8.7%), '관광/여행 등을 시켜 준다'(4.7%)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가정 문제 상담은 전문적인 사역이 아닌 경우도 있고 적극적인 사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특별한 목회적 도움이 없다'는 응답도 37.0%나 되어서 다문화/이주민 교인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역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석 교인이 많을수록 '도움이 없다'라는 응답이 높았는데, 교인이 많을수록 교인 한명 한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다문화/이주민 가정에 큰 관심을 쏟지 못하고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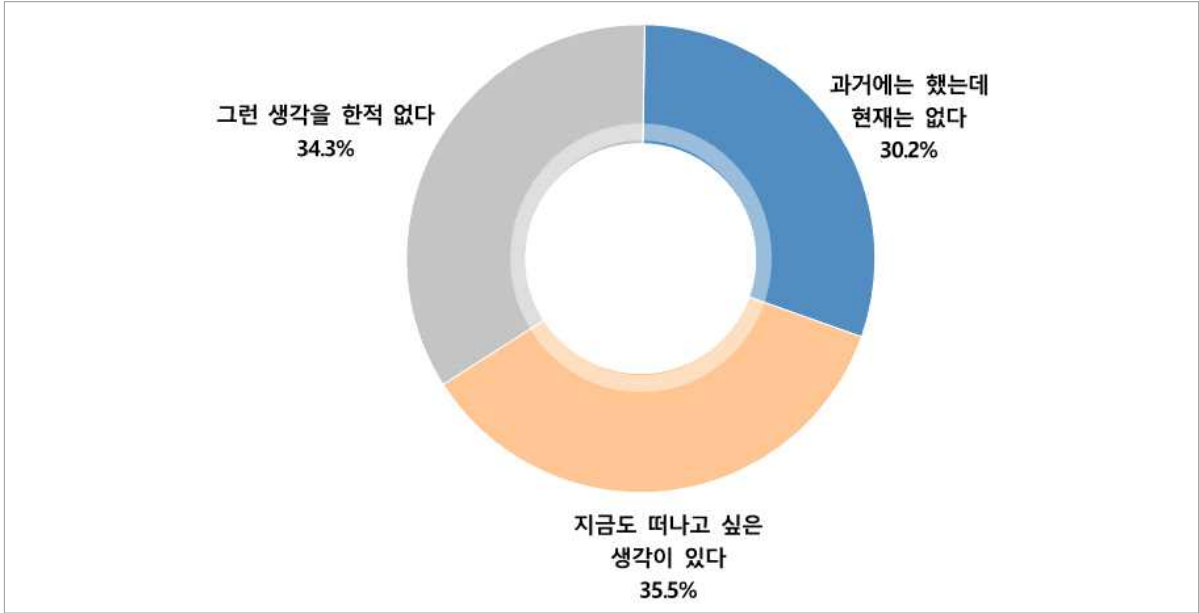
[그림] 다문화 가정 교인에 대한 교회의 지원 사항 (복수응답) (Base=다문화 가정 교인 있는 교회, N=127, %)



농어촌교회 목회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담임하는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 물었는데 3명 가운데 1명 남짓(35.5%)은 '지금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 '과거에는 떠날 생각을 했는데 현재는 없다' 30.2%, '그런 생각을 한적 없다' 34.3%로 응답했다. 전체의 3분의 2 정도가 떠날 생각을 했거나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농어촌 교회의 목회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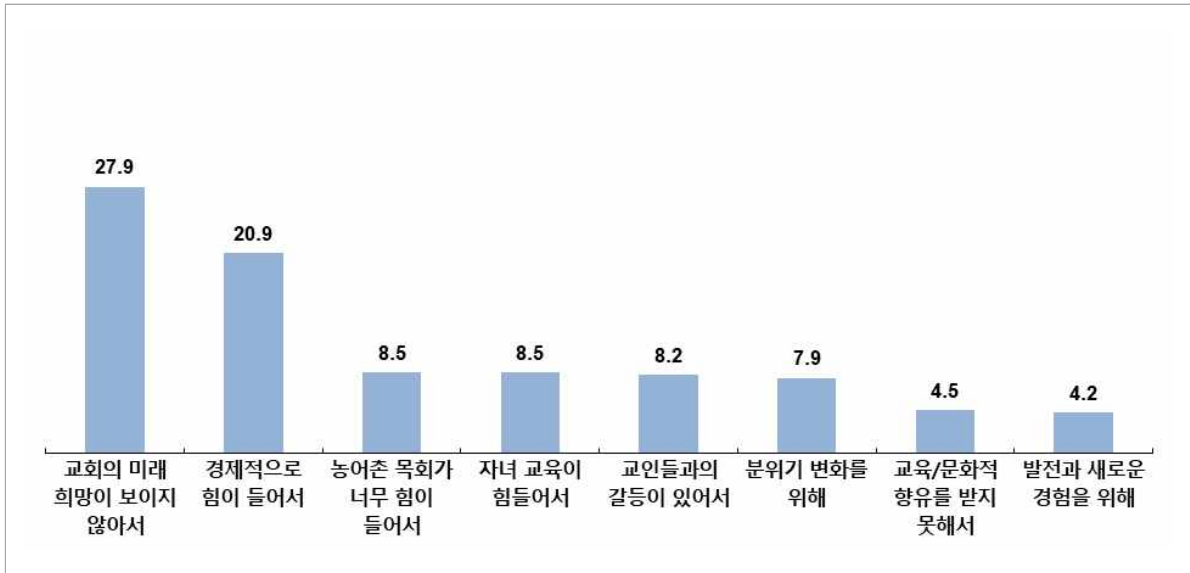
교회를 떠날 의향은 40대에서 가장 높았고, 50대 접어들면서 줄어들었다. 또한 농어촌 목회 기간, 담임 기간 11~20년까지는 '떠나고 싶다'는 응답율이 높아지다가 21년이 넘어서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출석 교인 51명 이상의 교회에서는 교회 사임 의향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적어도 교인 수 51명 이상이 되어야 목회자가 안정감을 얻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목회 10년까지는 사명감으로 사역을 하지만 11년부터는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을 하다가 20년이 넘거나 나이 50이 넘으면 사명감 회복하거나 농어촌교회에 적응 또는 체념하면서 교회 사임 욕구가 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림] 담임 교회 떠날 생각 여부 (Base=전체, N=504, %)



교회를 떠날 생각을 현재 하거나 혹은 과거에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교회의 미래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27.9%)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으며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라는 응답이 20.9%였다. 출석 교인 10명 이하 교회 목회자가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42.3%)를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11명 이상 교회 목회자는 '교회의 미래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출석 교인 10명 이하 교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목회하기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11명 이상이 되면 교인 수의 절대적 부족보다는 교인 증가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농어촌 목회가 너무 힘이 들어서'(8.5%), '자녀 교육이 힘들어서'(8.5%), '교인들과의 갈등이 있어서'(8.2%), '분위기 변화를 위해'(7.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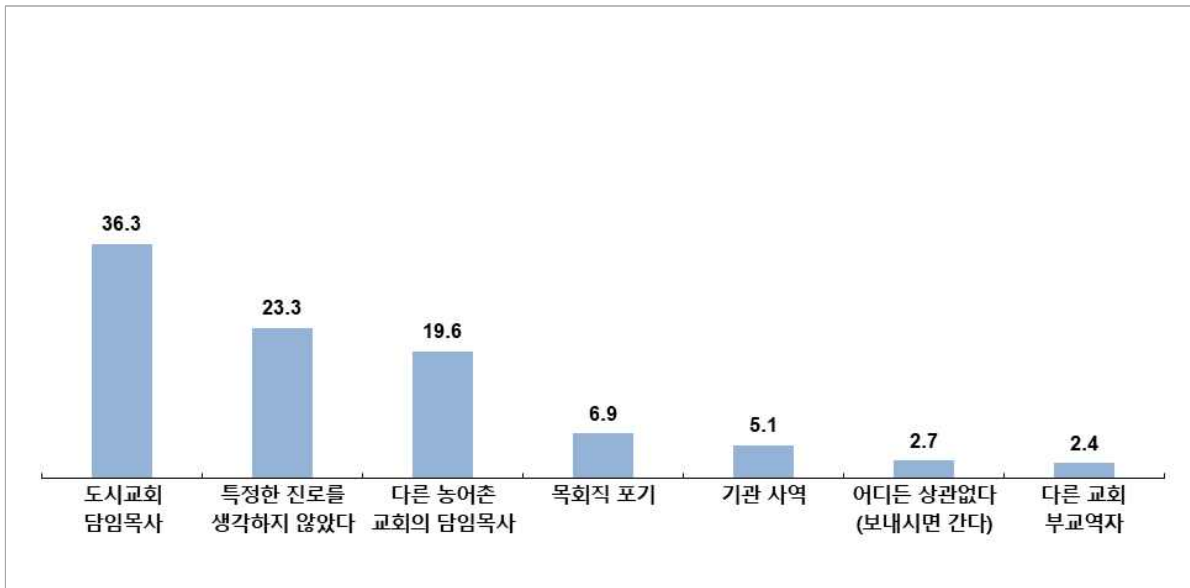
[그림] 담임교회 사임 생각 이유 (상위 8개) (Base=담임목사 사임 생각을 한 목사, N=330, %)



현재 교회에서 떠날 경우 이후 진로에 대해 '도시 교회 담임목사'(36.3%)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다음으로 '특정한 진로를 생각하지 않았다'가 23.3%였으며, '다른 농어촌교회의 담임목사'를 희망한 비율은 19.6% 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교회 사임 의향은 현재 담임 교회의 문제라기보다는 농어촌교회 자체에 대한 탈출 욕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 교회 담임목사'는 농촌 목회 6~10년(45.1%), 출석 교인 51명 이상 교회(60.4%)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농어촌 목회 6년 이상이면 농어촌교회 목회에 어려움에 직면하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고, 출석 교인이 많아도 농어촌교회에 대한 불만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목회 현장에서는 농어촌교회를 하다가 지쳐서 목회직 자체를 내려놓고 싶다고 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이번 조사에서는 6.9%로 높지 않게 나왔다. 그러나 100명 가운데 7명 꼴로 교회 이임이 아니라 아예 목회직을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농어촌 목회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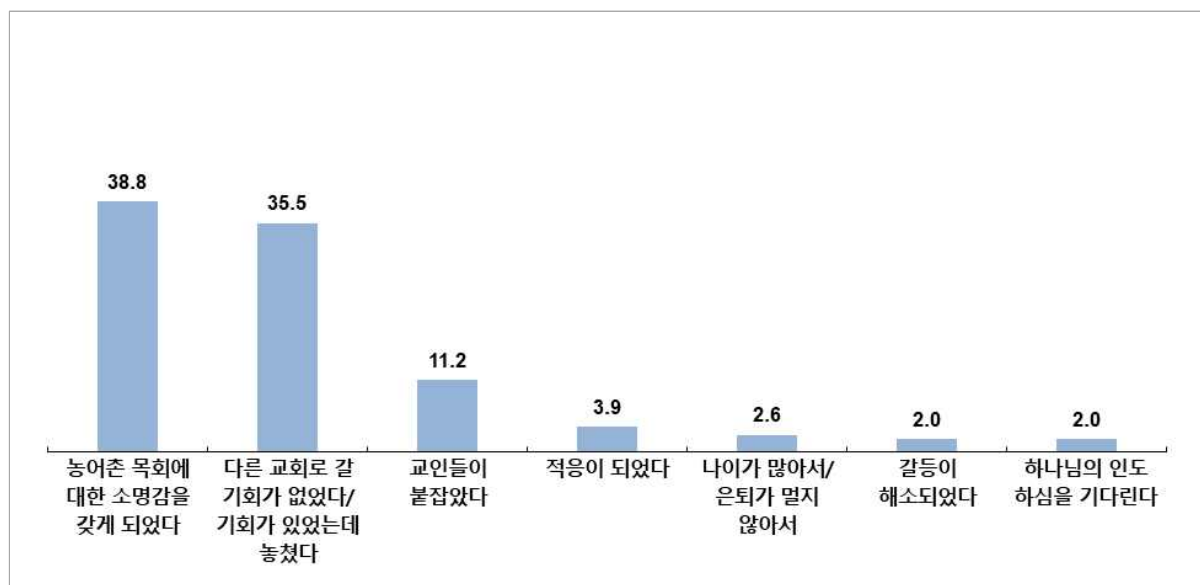
[그림] 담임교회 사임을 할 경우 생각했던 진로 (상위 7개) (Base=담임목사 사임 생각을 한 목사, N=331, %)



과거에 지금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떠날 생각을 한 응답자에게 교회를 떠날 생각이 있었지만 떠나지 않은 이유를 물었는데, '농어촌 목회에 대한 소명감을 갖게 되었다.'(38.8%)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른 교회로 갈 기회가 없었다/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도 비슷한 비율(35.5%)이었다. 그리고 '교인들이 붙잡았다'(11.2%)도 10명 가운데 1명 정도 응답하였다. 따라서 절반 정도는 단순히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소명이나 교인들과의 관계에 의해 떠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농어촌 목회에 대한 소명감을 갖게 되었다'는 응답은 40대(52.4%)와 농어촌 목회 기간 '6~10년'(54.1%) 응답자에서 가장 높았다. 출석 교인 '10명 이하'(58.2%)에서도 높은 응답을 보였다. 젊고 작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들이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농어촌 목회를 임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다른 교회로 갈 기회가 없었다/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는 60세 이상(42.5%), 농촌 목회 21년 이상(49.0%) 목회자에게서 높았다.

[그림] 담임교회 사임 생각했다가 중단한 이유 (Base=담임목사 사임 생각했다가 지금은 안 하는 목사, N=152, %)



4) 농어촌교회와 지역사회

먼저 마을 목회와 관련하여, 교회가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물었는데, 현재 '하고 있다'는 비율은 17.9%였고 '앞으로 활동할 계획이다'는 25.6%이어서 앞으로 마을 목회를 하는 교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절반이 넘는 교회(56.5%)는 '계획 없다'고 응답했다. 작년에 필자가 전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마을 목회와 관련된 조사를 하였을 때 절반 이상의 교회가 마을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 것에 비해서 적은 비율이다. 그러나 질문 방식이 서로 다른데, 그때는 먼저 마을 목회와 관련된 여러 활동들을 제시하고 교회가 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³⁾ 그런데 이번에는 먼저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목회자 입장에서 마을 목회라고 할만큼 대단한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이 없다거나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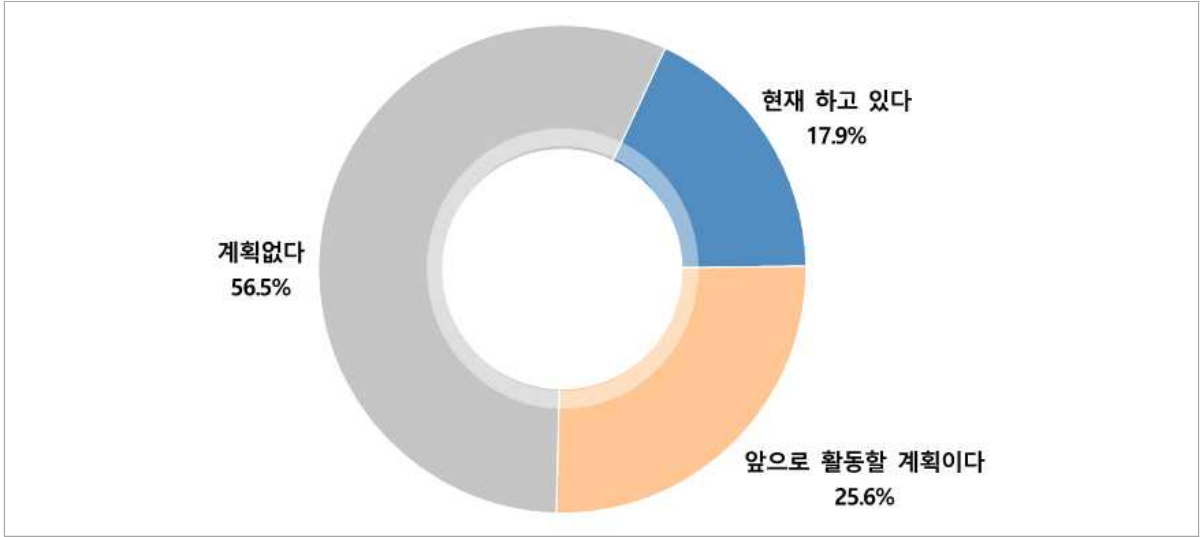
'현재 하고 있다'는 응답은 출석 교인 수가 많을수록 높아져서 교회 규모와 직접적 관련이 있거나 출석 교인 10명 이하 교회도 10.6%나 마을 목회를 하고 있어서 교회 규모가 작아도 마을 목회

3) 이에 대하여는 정재영, "마을 목회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 21세기교회연구소 엮음, 「마을 목회에 대한 목회자 인식조사 발표회 자료집」(2022년 5월 20일)를 볼 것.

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활동할 계획이다'는 39세 이하 젊은 목회자(36.0%)와 농촌 목회 10년 이하의 목회자들이 더 많이 응답했다. 최근 교계에서 마을 목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안내가 주어질 경우 더 많은 목회자들이 마을 목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마을 목회 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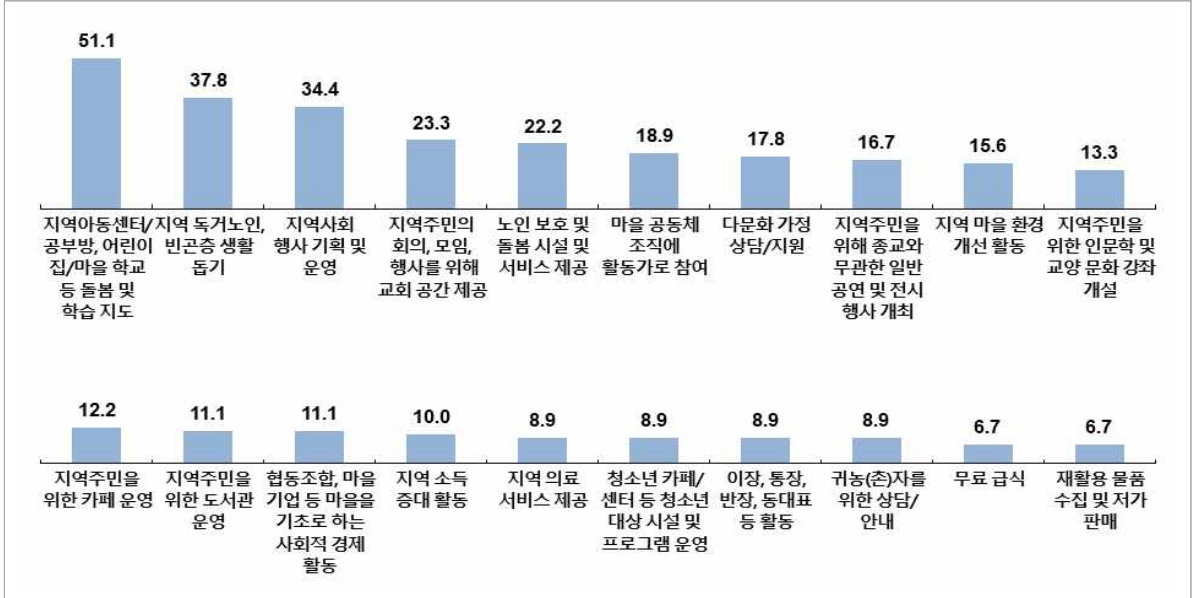
(Base=전체, N=504, %)



농어촌교회가 하는 마을 목회 활동(복수 응답)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지역 아동센터/공부방, 어린이집/마을 학교 등 돌봄 및 학습지도'(51.1%)가 가장 보편적인 마을 목회 활동이었다. 두 번째로 많이 하는 활동은 '지역 독거노인, 빈곤층 생활 돕기'(37.8%)였다. 농어촌교회들이 지역 복지 차원의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지역사회 행사 기획 및 운영'(34.4%), '지역주민의 회의, 모임, 행사를 위해 교회 공간 제공'(23.3%)을 많이 하고 있어서 구제 봉사 활동만 아니라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마을목회 하는 내용 (복수응답)

(Base=마을목회 하는 교회, N=9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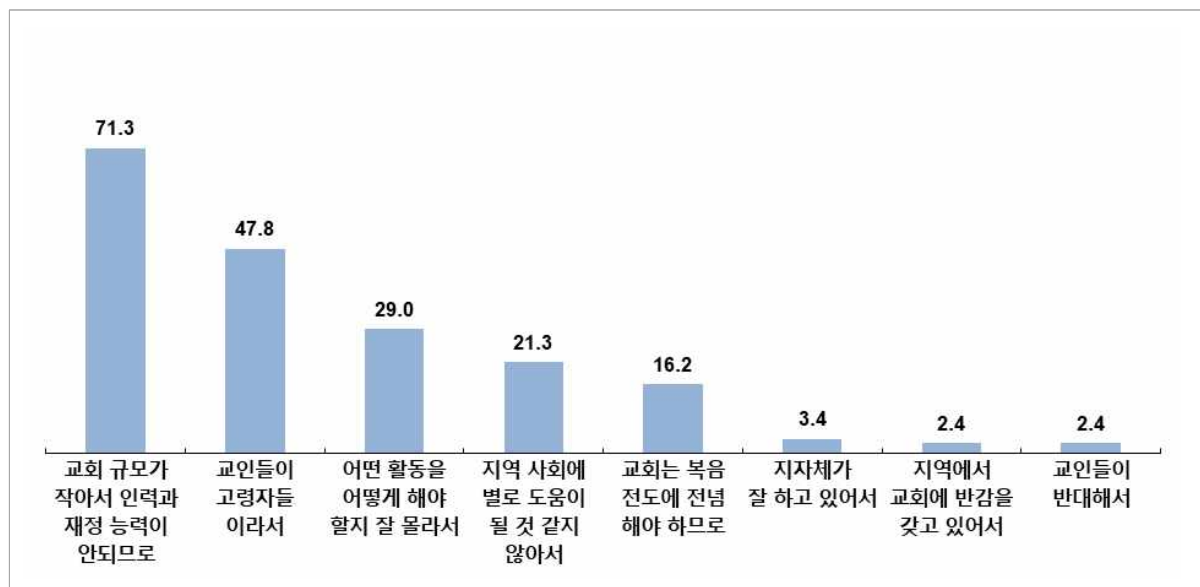


마을 목회를 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2개 응답)은 10명 중 7명 이상이 응답한 '교회 규모가 작아서 인력과 재정 능력이 안되므로'(71.3%)였다. 그 다음으로 '교인들이 고령자들이라서'(47.8%)라는 응답도 절반에 육박하였다. 마을 목회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 다음으로는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29.0%), '지역사회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21.3%), '교회는 복음 전도에 전념하므로'(16.2%) 순으로 응답했다. 마을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 인력과 재정이 풍족하지 않아도 마을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목회자들은 일단 여건이 되어야 마을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석 교인 10명 이하의 교회는 인력과 재정 문제(80.6%)를, 60세 이상(65.4%)과 목회 경험이 많은 목회자는 교회가 고령자가 많다(현 교회 담임 기간 21년 이상 61.9%)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응답했다. 반면에 39세 이하 젊은 목회자(46.7%)와 51명 이상의 교회 목회자(41.7%)는 마을 목회 전략과 방법론을 몰라서 마을 목회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따라서 마을 목회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 및 방법론에 대한 교육과 안내가 필요하다.

[그림] 마을목회 하지 않는 이유 (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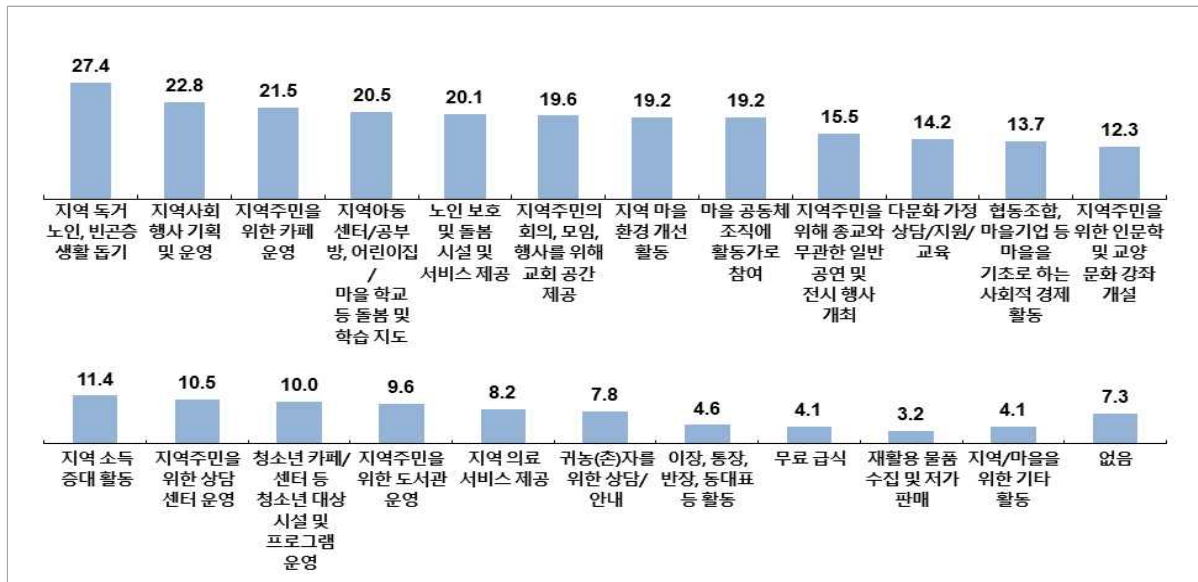
(Base=마을목회 하는 교회, N=414, %)



마을목회를 현재 하거나 향후 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에게, 현재 하고 있는 활동 중 계속 진행하거나 새로 계획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현재 활동에서 2위였던 '지역 독거 노인, 빈곤층 생활 돕기'(27.4%)를 1위로 응답했고 3위였던 '지역사회 행사 기획 및 운영'이 2위(22.8%)로 올라섰고 11위였던 '지역주민을 위한 카페 운영'이 3위(21.5%)로 올라섰다. 노인 관련 활동에 대한 관심은 현실적으로 아동 청소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지역 행사 참여와 카페 운영은 단순 구제 활동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된다. 마을 목회 내용에 대한 관심의 변화로 참고할 만한 조사 결과이다.

[그림] 향후 계획하고 있는 마을목회

(Base=현재 혹은 향후 마을목회 계획 교회, N=2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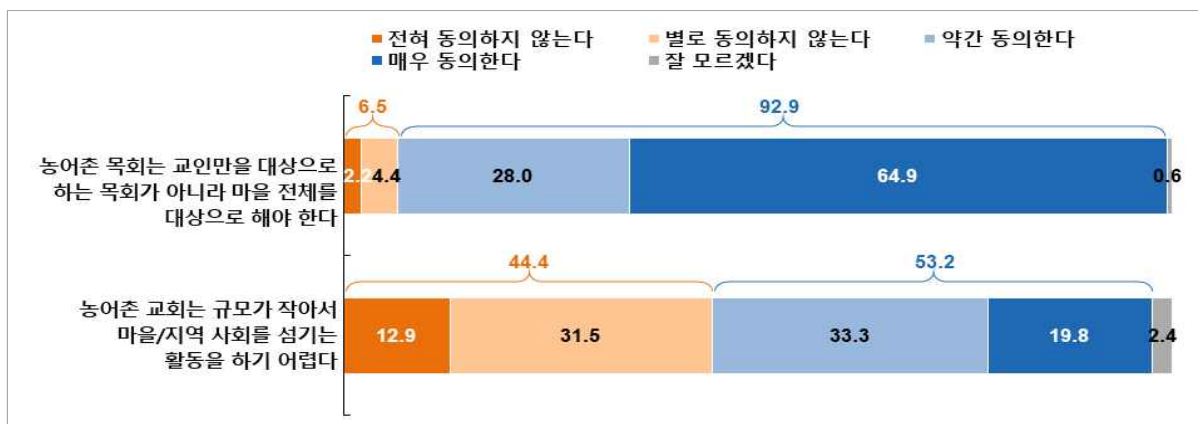


마을 목회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동의 여부를 물었는데, 먼저 농어촌 목회는 '교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가 아니라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라는 인식에 92.9% 동의했다. 곧 농어촌 목회는 마을 목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데에 거의 모두가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교회는 규모가 작아서 마을/지역사회를 섬기는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인식은 절반 정도인 53.2%가 동의했다. 반대로 해석하면, 절반 가까이는 규모가 작아도 마을 목회나 지역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절반 이상이 지역사회 활동을 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것과 다소 모순되는 결과이다. 이것은 원론적으로는 지역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활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게 응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마을 목회 활동 여부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보였는데, 현재 마을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농어촌교회는 규모가 작아서 마을/지역사회를 섬기는 활동을 하기 어렵다'에 대해서 38.9%만 이에 동의한 반면 향후 마을 목회 계획이 있는 목회자들은 48.8%, 향후 계획이 없는 목회자들은 59.6%가 이에 동의했다. 마을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은 마을 목회에서 교회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비해 마을 목회를 하지 않는 목회자들은 이것을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결국 농어촌 목회는 마을 목회를 지향해야 하지만 규모가 작으면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대다수 규모가 작은 농어촌교회가 마을 목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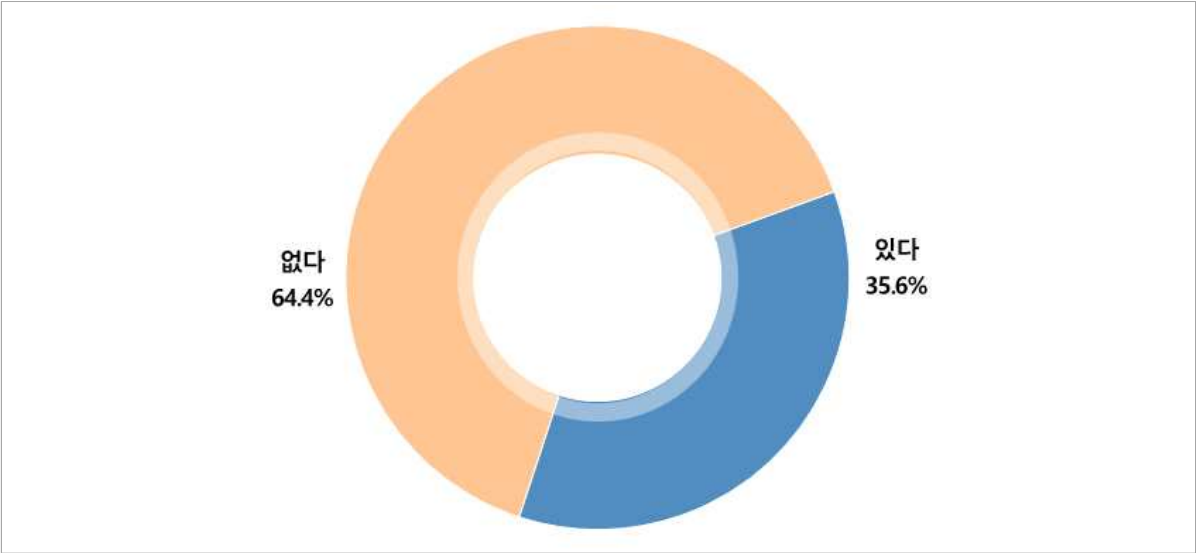
[그림] 마을 목회 조건에 대한 인식

(Base=전체, N=5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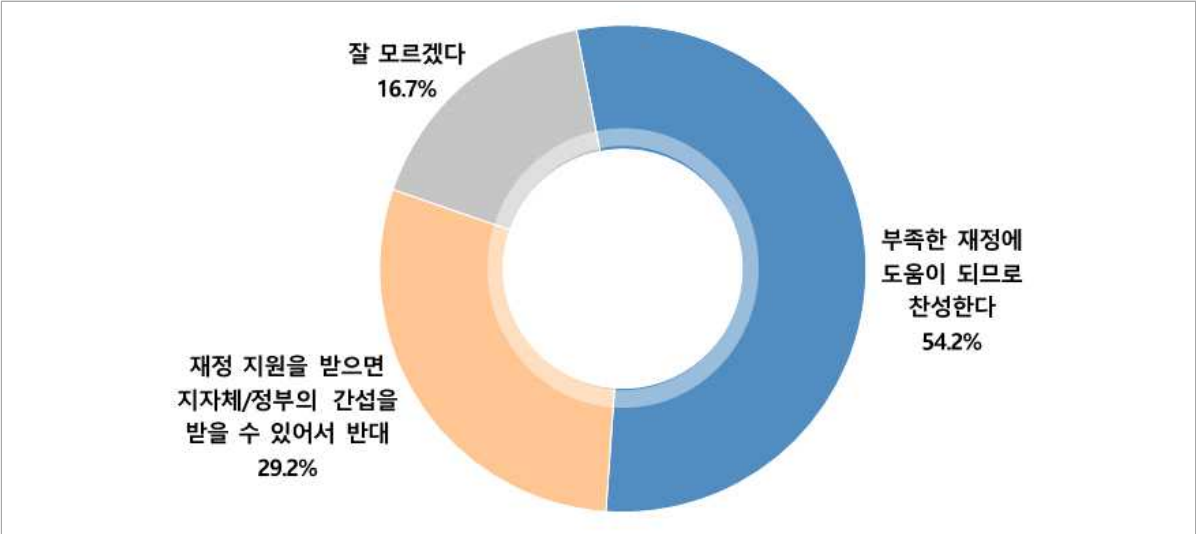
마을 목회를 하면서 정부/지자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6%로 3개 교회 가운데 1개 교회였다. 그리고 마을 목회에 정부/지자체의 재정 지원 받은 교회들 32개 중 사업 활동 주체는 '교회 단독'(34.4%)보다는 '교회와 지역사회 공동'(65.6%)이 2배 가량 더 높게 나와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마을 목회에 정부/지자체 재정 지원 받은 여부 (Base=현재 마을목회 하는 응답자, N=9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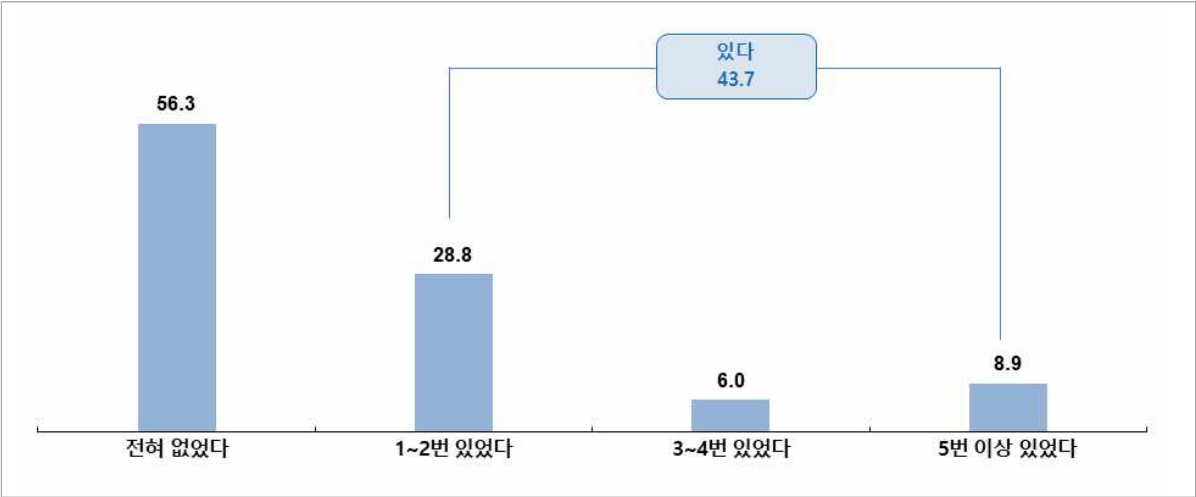
마을 목회에 정부/지자체 재정 지원 받는 것에 대해, '부족한 재정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54.2%), '재정 지원을 받으면 지자체/정부의 간섭을 받을 수 있어서 반대'(29.2%), '잘 모르겠다'(16.7%) 순으로 응답하였다. 정부/지자체 재정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훨씬 많지만 압도적이지는 않아서 재정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비중 있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목회를 현재 하는 응답자의 찬성 비율이 63.3%였고, 향후 마을 목회 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66.7%, 마을목회 계획이 없는 응답자는 45.6%로 현재 마을 목회를 하거나 향후 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정부/지자체 재정 지원에 대해 조금 더 수용적 태도를 보였다.

[그림] 마을 목회에 정부/지자체 재정 지원 받는 것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5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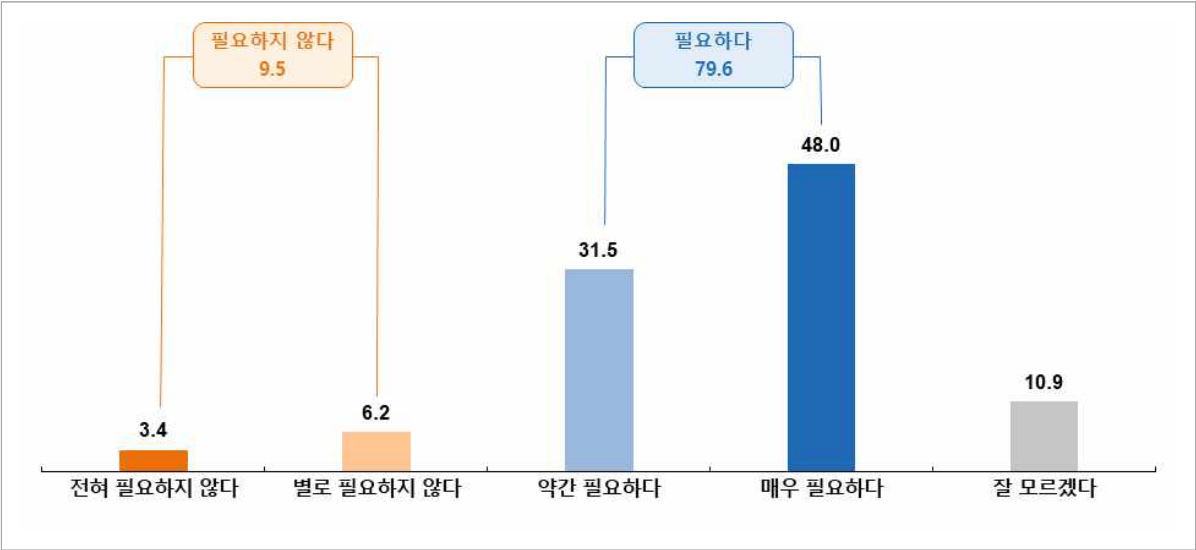
교회가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행사나 활동에 참여한 경험에 대하여, '전혀 없었다'가 56.3%였으며 '있었다'는 43.7%였다.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농어촌 교회들이 지자체나 시민단체와 협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횃수를 보면 '1~2번'이 28.8%, '3~4번'이 6.0%, '5번 이상'이 8.9%였다. 지자체/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행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은 농촌 목회 21년 이상(59.3%), 현 교회 담임 21년 이상(58.2%) 목회자였다. 목회 경력이 길면 참여 기회가 많고 마을에 대한 관심도 커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출석 교인이 많을수록 참여 경험이 높았다(55.8%). 마을 목회를 현재 하고 있는 경우에 참여 경험이 가장 높았는데(63.3%) 지역사회 행사 및 활동 참여를 마을목회의 일환이기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림] 정부/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행사/활동 참여 여부 (Base=전체, N=504, %)



지자체 또는 사회단체와 협력하려는 교회를 위하여 농촌선교위원회, 지방회, 연회, 본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대부분(79.6%)으로 10명 중 8명이었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39세 이하 목회자에게서 90.0%로 다른 연령대보다 최소 10%p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정부/지자체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대해 교단의 지원 필요성 (Base=전체, N=5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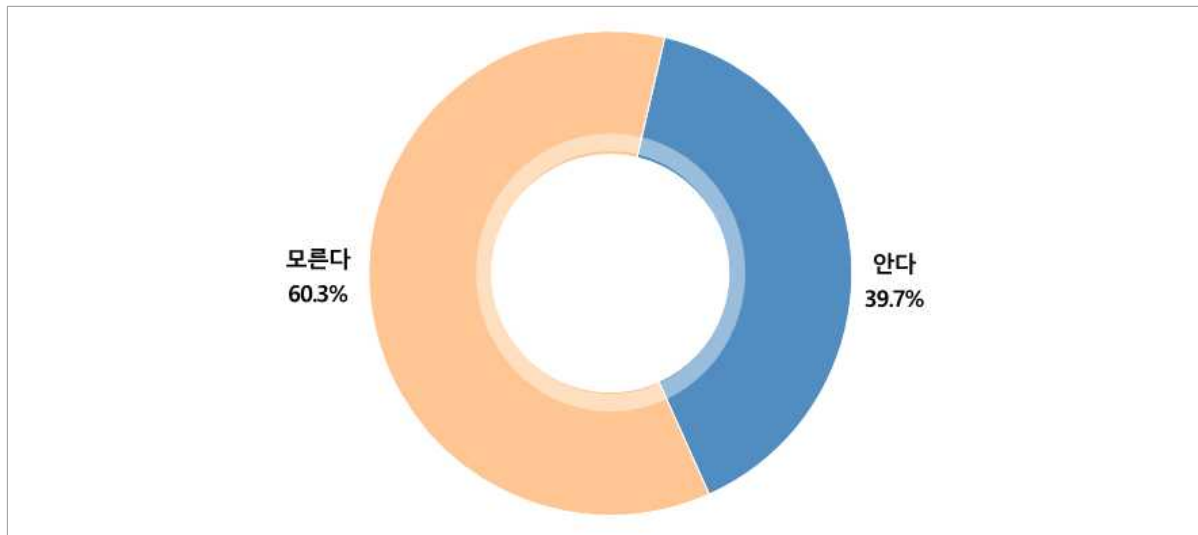


5. 교단의 농어촌선교 정책

교단의 농어촌선교 정책과 관련하여, 먼저 교단 본부 선교국 산하 사회농어촌환경부가 농어촌 선교 정책을 담당하는 것을 '안다'는 응답자는 39.7%였고 '모른다'는 응답자가 60.3%를 차지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인지율이 낮은 경향을 보여서 39세 이하 28.0%, 40대 29.1%의 인지율을 보였다. 또한 목회 기간이 짧은 목회자의 인지율이 낮았다. 따라서 사회농어촌환경부 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본부의 농어촌 선교 담당 부서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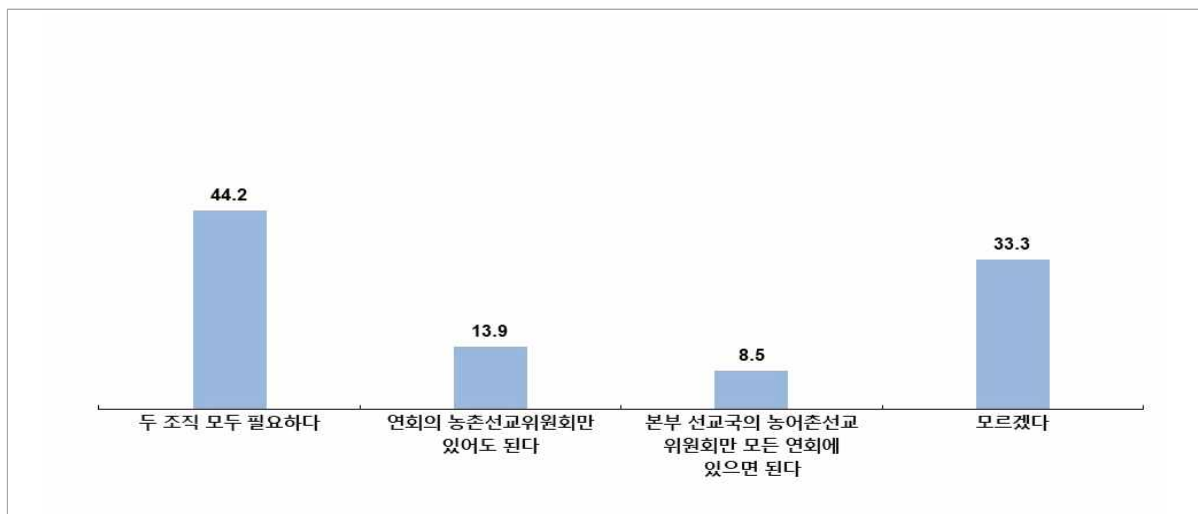
(Base=전체, N=5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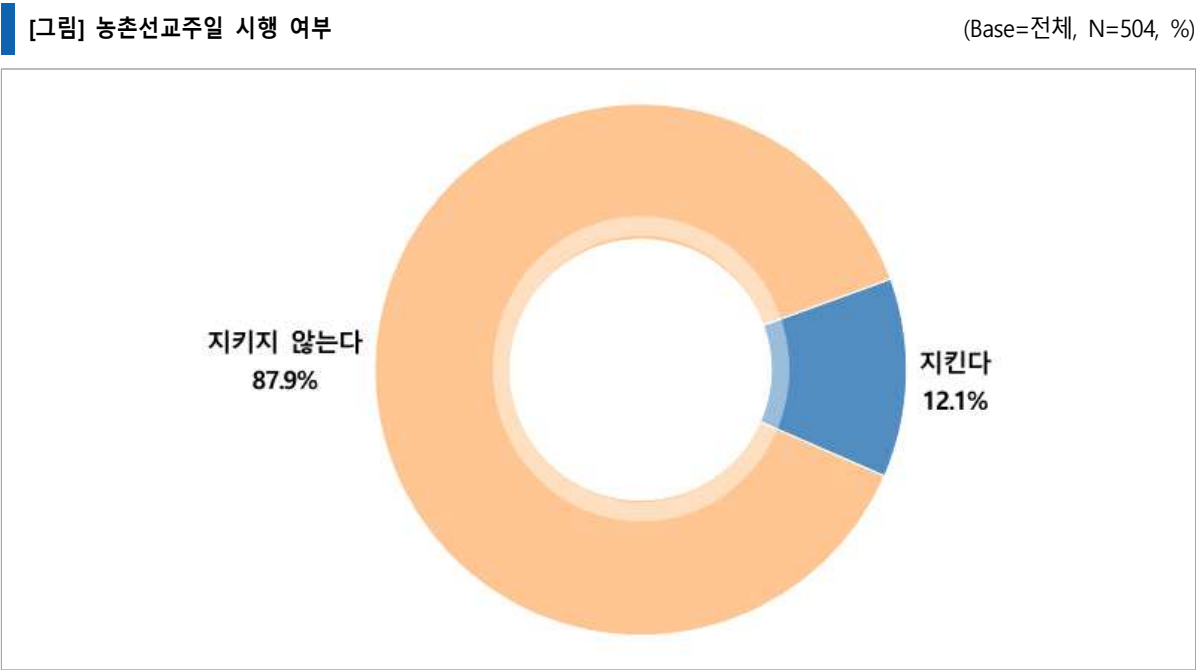
연회와 본부에 각각 설치 되어있는 '농촌선교위원회'에 대해 '두 조직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44.2%로 '연회의 농촌선교위원회만 있어도 된다'(13.9%)는 응답과 '본부 선교국의 농어촌선교위원회만 모든 연회에 있으면 된다'(8.5%)는 응답보다 최소 3배 이상 높았다. '모르겠다'는 응답이 33.3%로 판단을 유보한 경우가 3명 가운데 1명 정도 되었다. 연령과 연급이 낮을수록 '모르겠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림] 본부/연회 각각의 농어촌 선교 담당 부서 존재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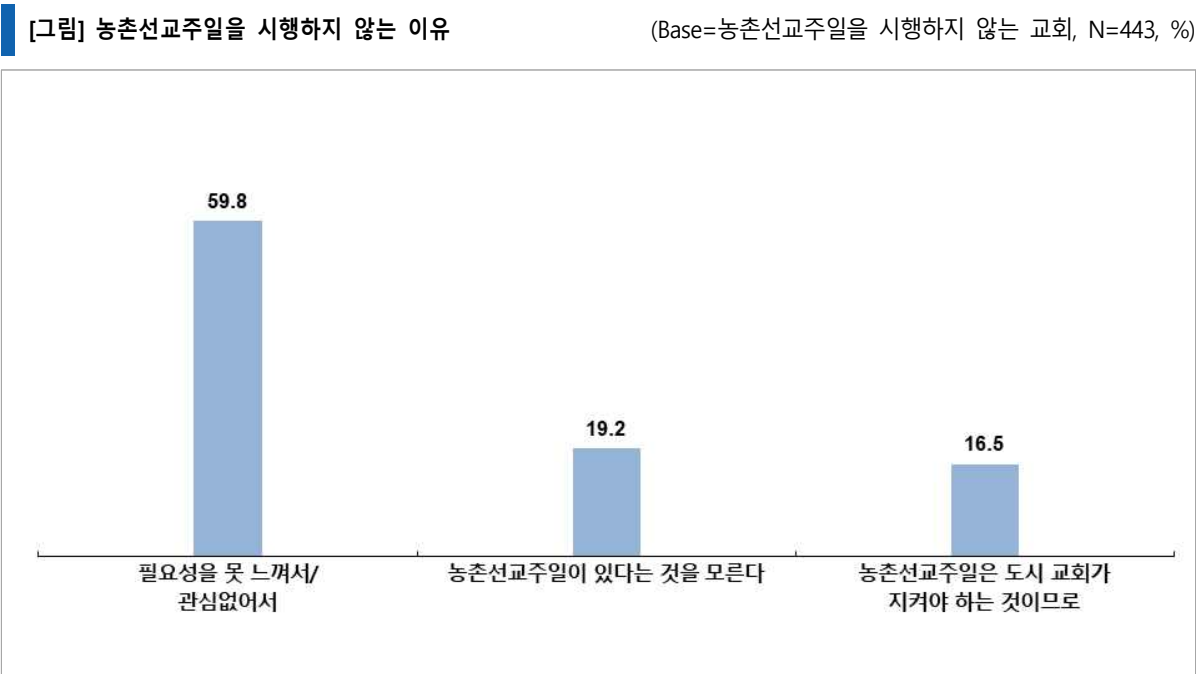
(Base=전체, N=504, %)



‘농촌선교주일(추석 후 주일)’을 ‘지킨다’고 응답한 교회는 12.1%였고, 87.9%는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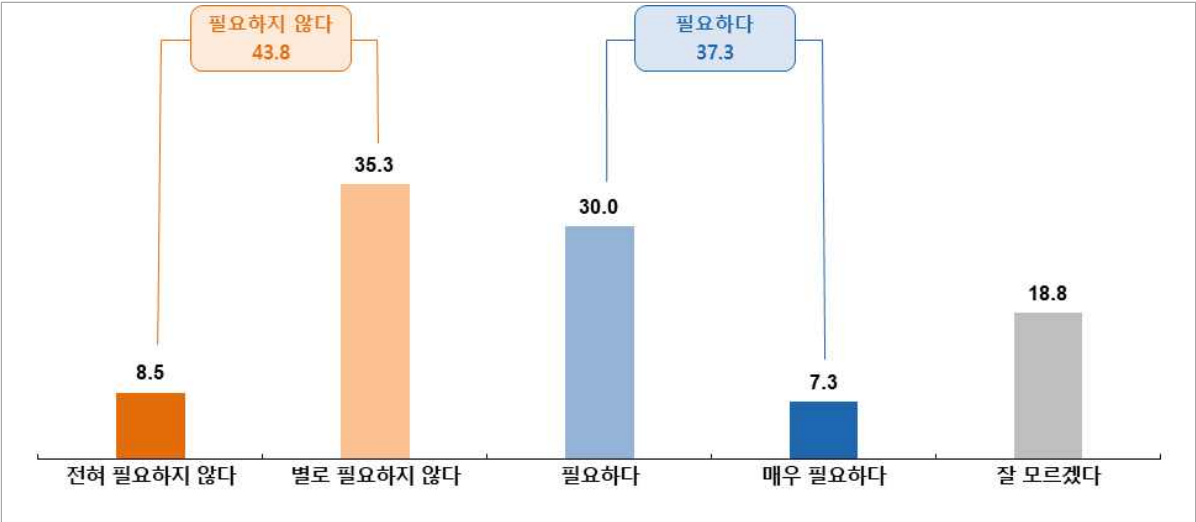


농촌선교 주일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필요성을 못 느껴서/관심 없어서’를 선택한 응답자는 59.8%로 10명 중 6명이었다. ‘농촌선교 주일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19.2%), ‘농촌선교 주일은 도시 교회가 지켜야 하는 것이므로’(16.5%) 순으로 응답하였다. ‘필요성을 못 느껴서/관심없어서’는 농촌 목회를 오래 한 목회자가, ‘농촌선교 주일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농촌 목회 기간이 짧은 목회자가 응답을 많이 했다. 농촌선교 주일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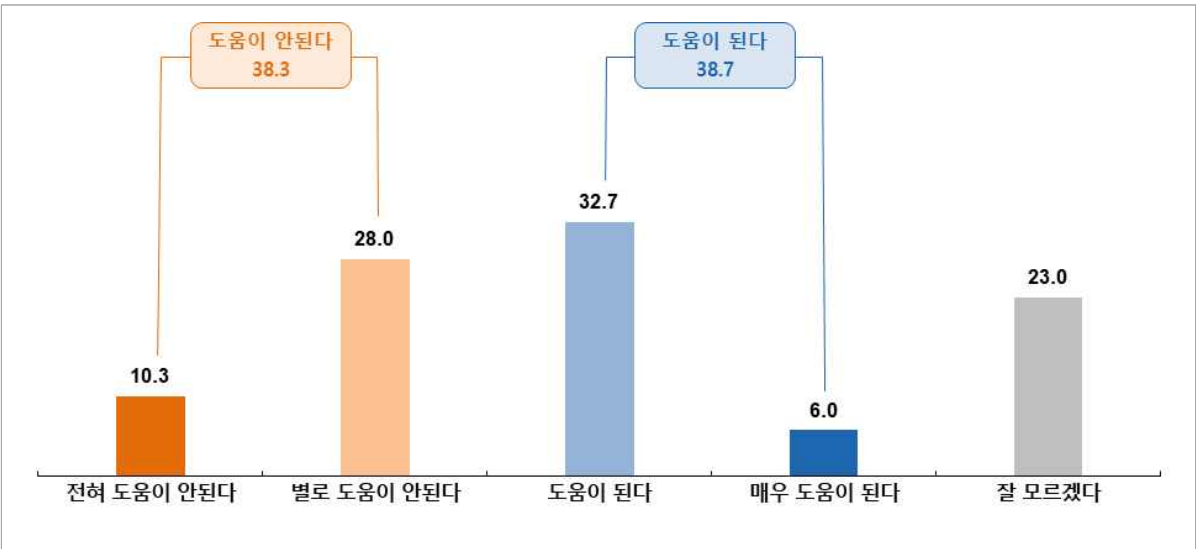
농어촌선교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루 100원 모으기 1만 성도 운동”이 목회자와 교회에 필요한지에 대하여 37.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잘 모르겠다’는 판단 유보의 비율은 18.8%였다. 교인의 주 직종이 농/수/축산업인 경우(순 농어촌 지역 교회)의 ‘필요성’ 인식(39.2%)이 도농복합 지역의 인식(33.1%)보다 조금 더 높았다.

[그림] ‘하루 100원 모으기 1만 성도 운동’ 필요성 인식 (Base=전체, N=5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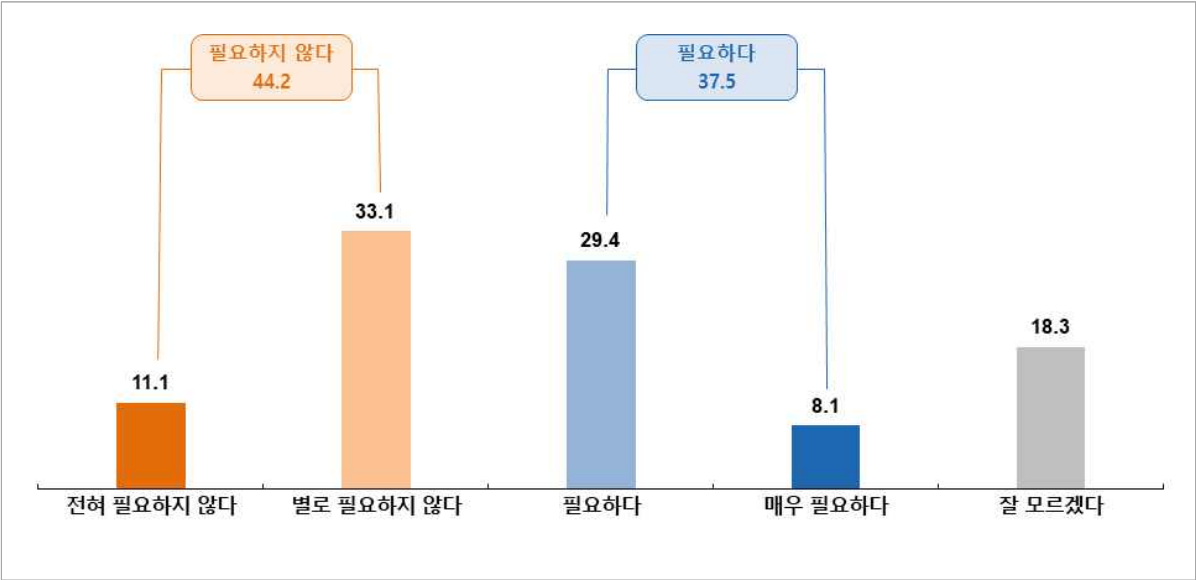
농촌선교훈련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영성 수련 프로그램이 목회자나 교회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38.7%)과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38.8%)이 비슷하게 나왔다. ‘잘 모르겠다’는 판단 유보층의 비율은 23.0%로 4명 가운데 1명 정도로 적지 않았다. 39세 이하(44.0%), 정회원 목사 연급 10년 이하(45.0%) 젊은 목회자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이들에게 영성수련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영성 수련 프로그램에 대한 수용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그림] ‘영성 수련 프로그램’ 도움 여부 (Base=전체, N=504, %)



‘서로살림농도생협’에 대하여 친환경 농업을 하는 친환경 농가들의 생산비를 보장하고, 도시교회에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여 도시와 농촌이 서로를 살리는 생명공동체를 지향하는 생협이라고 설명한 후에, ‘서로살림농도생협’의 필요성에 대해 물었는데 37.5%가 동의했다. ‘잘 모르겠다’는 판단 유보층은 18.3%였다, ‘필요하다’는 의견은 39세 이하 젊은 목회자들에게서 절반이 넘는 54.0%가 나와서 이에 대한 교육과 안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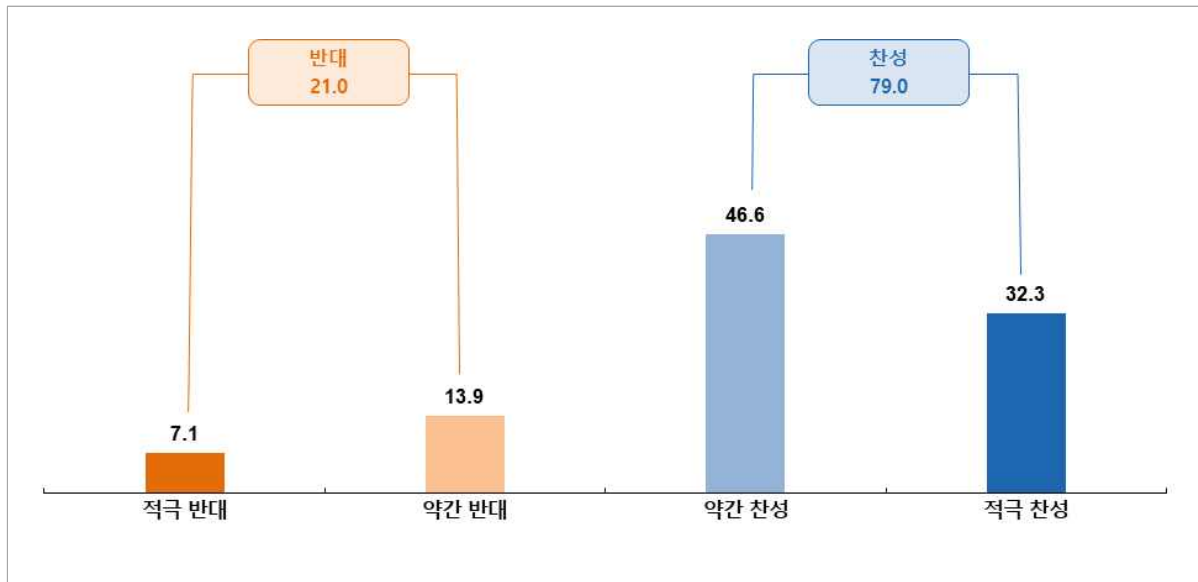
[그림] ‘서로살림농도생협’ 필요성 인식 (Base=전체, N=504, %)



6. 가정 경제 및 이중직

목회자의 경제 현실과 관련해서 먼저, 이중직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찬성이 79.0%로 5명 중 4명에 이를 정도로 목회자 이중직이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출석 교회 교인 수 10명 이하 교회 목회자의 찬성률이 87.5%로 특히 높았다. 49세 이하 젊은 목회자의 찬성률(39세 이하 84.0%, 40대 82.4%)이 50세 이상의 장년 목회자(50대 76.7%, 60세 이상 75.0%)보다 높았다. 현 담임교회를 ‘지금도 떠나고 싶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85.5%가 목회자 이중직을 찬성했다. 이들에게 목회자 이중직이 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목회를 지속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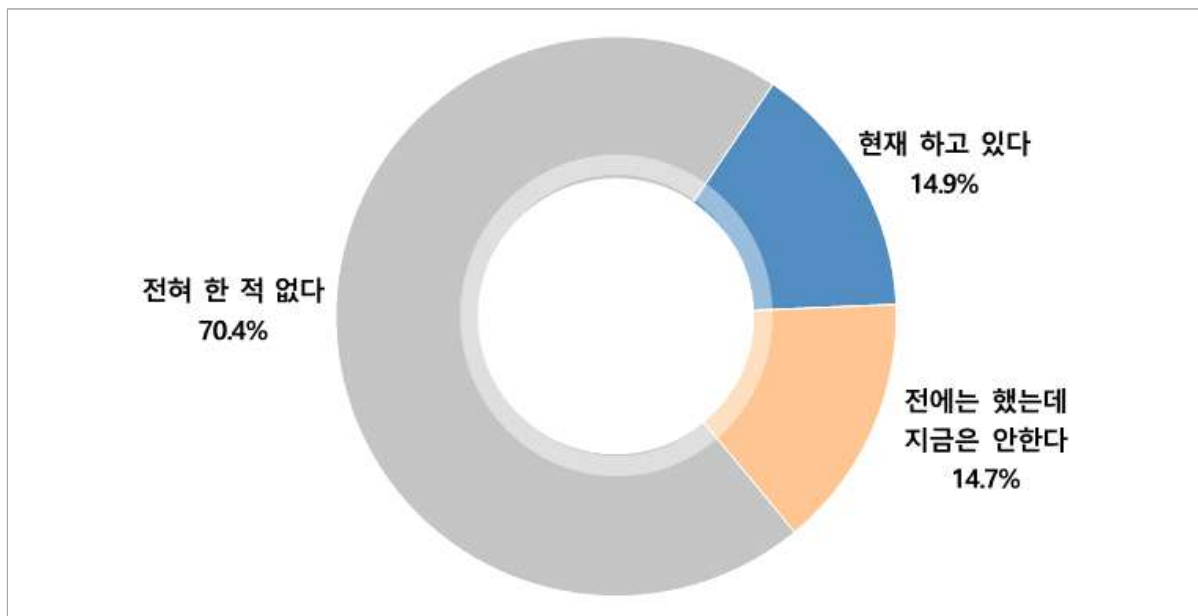
[그림] 이중직에 대한 찬반 의견 (Base=전체, N=504, %)



현재 이중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하고 있다’가 14.9%로 나타났다.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14.7%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교인의 주 직종이 농/수/축산업인 경우 곧 순 농어촌 지역 교회(11.8%)보다는 도농복합지역(21.7%)의 이중직 목회를 하는 비율이 2배 정도 높았다. 현재 이중직을 하고 있는 목회자는 출석 교인 10명 이하(28.8%)가 출석 교인 11명 이상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현재 마을 목회를 하는 응답자가 이중직을 하고 있는 비율도 31.1%로 마을 목회를 하지 않는 응답자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마을 목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중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림] 이중직 수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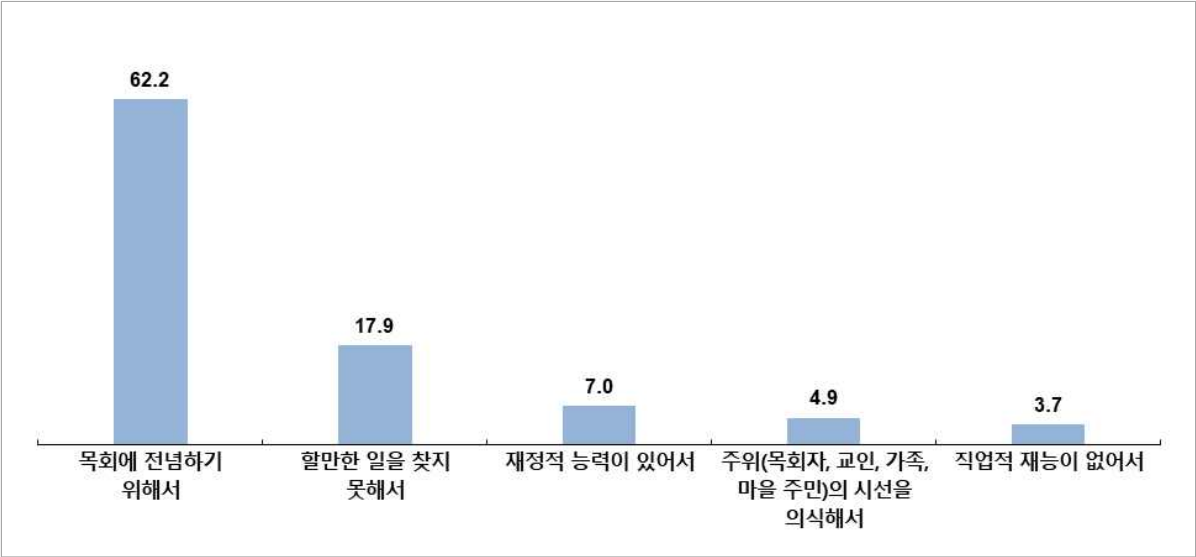
(Base=전체, N=504, %)



이중직을 하지 않는 응답자들에게 이유를 물었는데, ‘목회에 전념하기 위해서’가 62.2%로 가장 많은 응답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할만한 일을 찾지 못해서’(17.9%), ‘재정적 능력이 있어서’(7.0%), ‘주위(목회자, 교인, 가족, 마을 주민)의 시선을 의식해서’(4.9%), ‘직업적 재능이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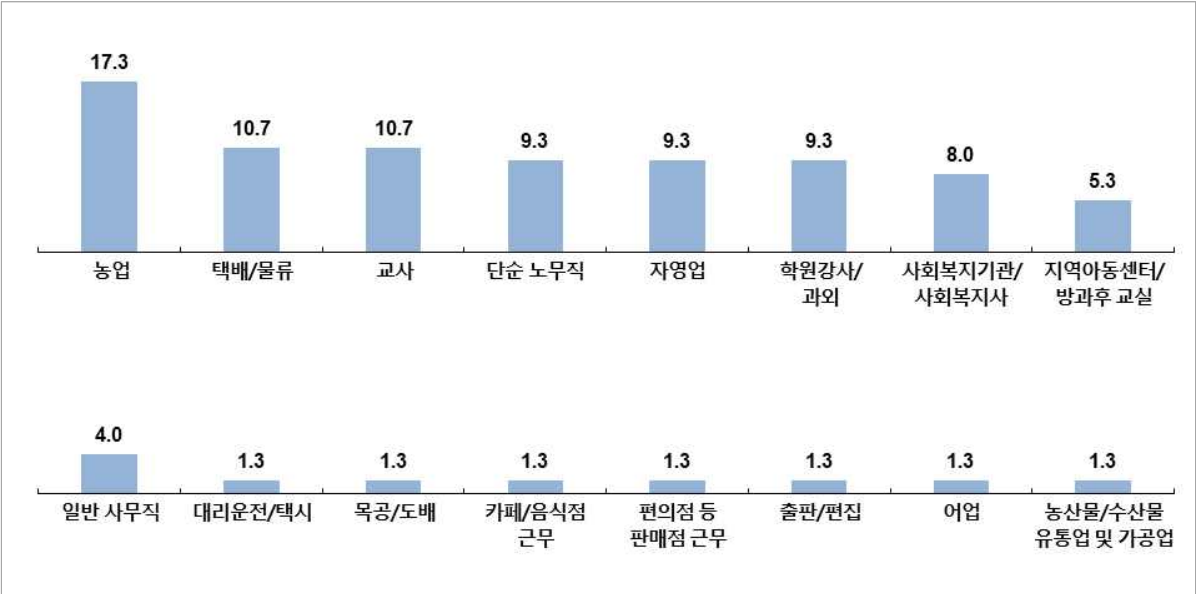
서’(3.7%) 순으로 응답하였다. ‘목회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출석 교인 31명 이상 교회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31~50명 68.6%, 51명 이상 67.9%)

[그림] 이중직을 하지 않는 이유 (Base=이중직 하지 않는 목사, N=429, %)



현재 이중직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들에게 주된 직종을 물었다. ‘농업’(17.3%), ‘택배/물류’(10.7%), ‘교사’(10.7%)가 10%대였고, 그 외 ‘단순 노무직’(9.3%), ‘자영업’(9.3%), ‘대리운전/택시’(1.3%), ‘어업’(1.3%)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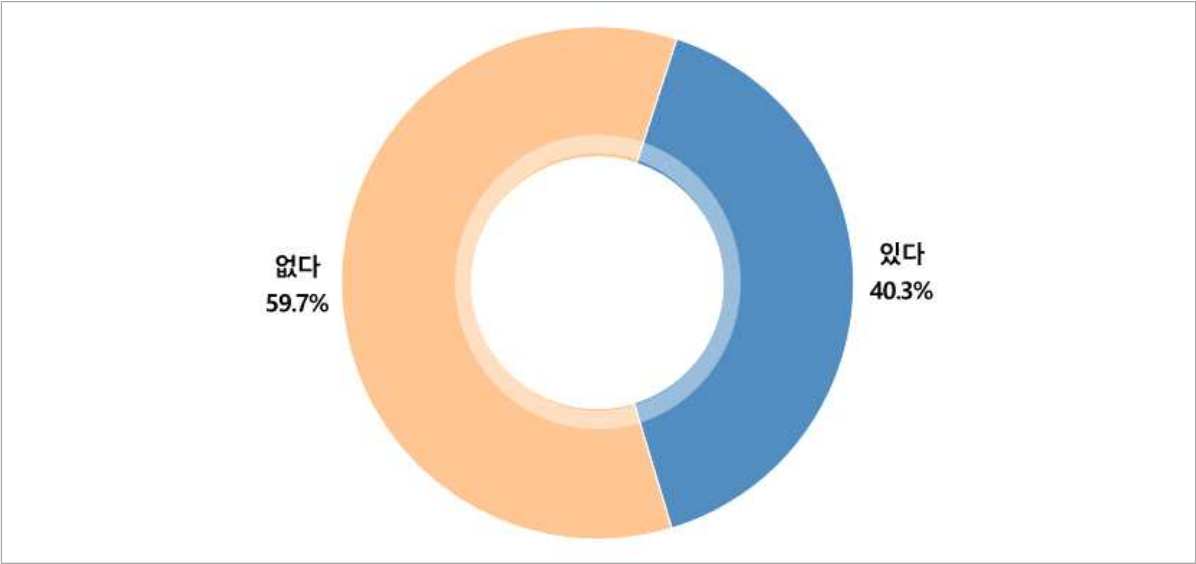
[그림] 이중직 수행 직종 (Base=이중직 목사, N=75, %)



이중직을 하고 있는 응답자 가운데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들에게 농업을 할 생각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농업을 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자는 40.3%로 10명 중 4명 정도로 적지 않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농업 종사에 긍정적인 경향이 있었다. 농촌 목회 기간과 현 교회 담임 기간에 따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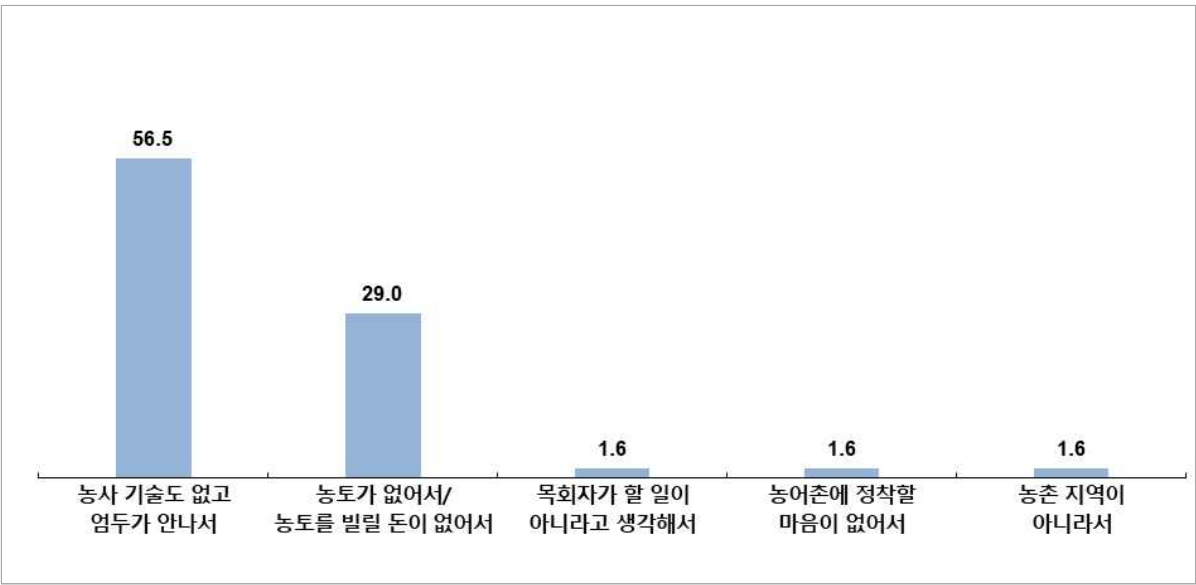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다.

[그림] 농업을 할 생각 여부 (Base=이중직 목사 가운데 농업 종사하지 않는 목사, N=62, %)



이중직으로 농업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응답자에게 이유를 물었는데, ‘농사 기술도 없고 염두가 안나서’가 56.5%로 가장 큰 이유였다. 그 다음으로 ‘농토가 없어서/농토를 빌릴 돈이 없어서’(29.0%)가 두 번째 이유로 응답되었는데 그 외의 이유는 미미했다. 현장에서는 목회자들이 농어촌에 정착할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이 응답은 1.6%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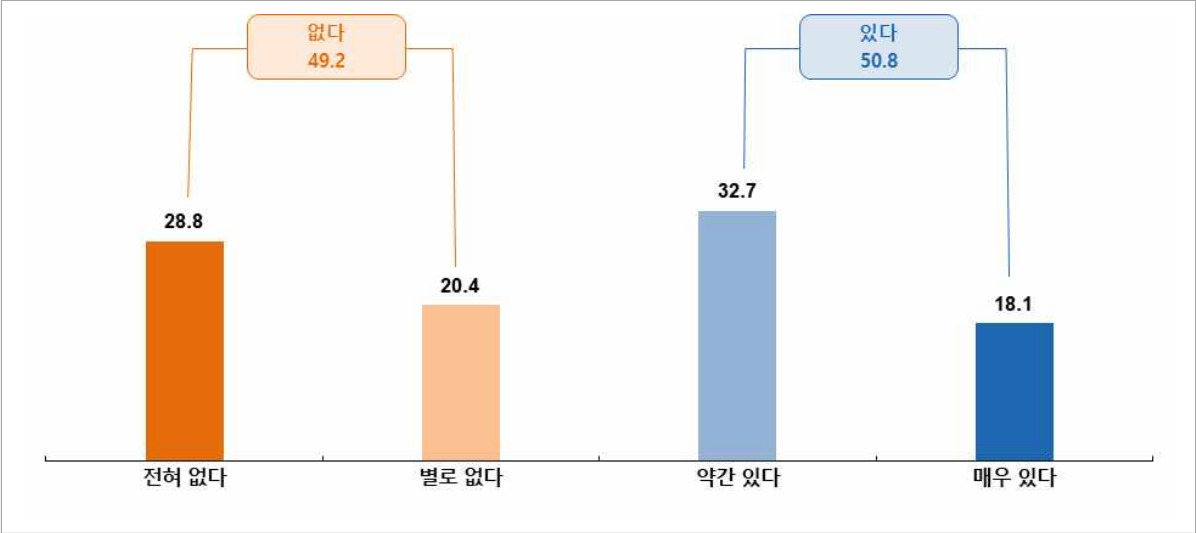
[그림] 농업을 하지 않은 이유 (Base=이중직 목사 가운데 농업 종사하지 않는 목사, N=62, %)



앞으로 이중직을 하거나, 계속할 의향을 물었는데, ‘있다’(50.8%)와 ‘없다’(49.2%)가 거의 대등하게 나왔다. 현재 이중직을 하고 있는 비율이 14.9%인 것과 비교하면 앞으로 이중직을 할 의향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이중직을 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거의 모두(94.7%)가 계속하기를 원했다. 과거 이중직했다가 현재 하지 않는 응답자들은 70.3%, 이중직을 전혀 하지 않은 응답자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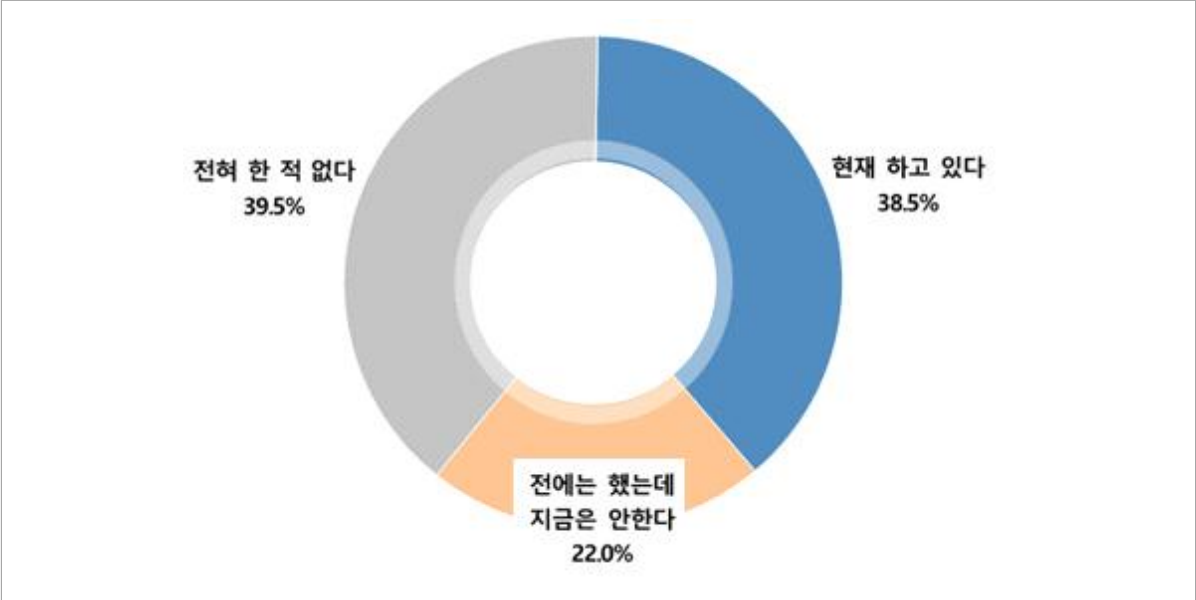
37.5%가 이중직을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출석 성인 교인의 수가 적을수록 이중직을 할 의향이 높았으며 현재도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는 목회자가 이중직 의향이 높았다.

[그림] 향후 이중직 수행 의향 (Base=전체, N=504, %)



배우자의 경제 활동에 대해, ‘현재 하고 있다’는 응답이 38.5%, 곧 10명 가운데 4명 꼴이었으며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한다’는 22.0%, ‘전혀 한 적 없다’는 39.5%였다. 목회자가 이중직을 하는 비율이 14.9%인 것과 비교하면 배우자가 경제 활동을 하는 비율이 2.5배 정도 더 많았다. 배우자가 경제 활동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는 응답자는 40대와 50대 목회자였다. 목회자가 이중직을 하는 비율을 보면 39세 이하, 40대, 50대가 비슷했는데, 배우자 경제 활동은 40대와 50대가 우세한 것은 목회자가 먼저 경제 활동을 하다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배우자까지 경제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목회자가 이중직을 현재 하는 경우에 배우자가 경제 활동을 하는 비율이 62.7%로 가장 높았다.

[그림] 배우자의 경제 활동 여부 (Base=전체, N=5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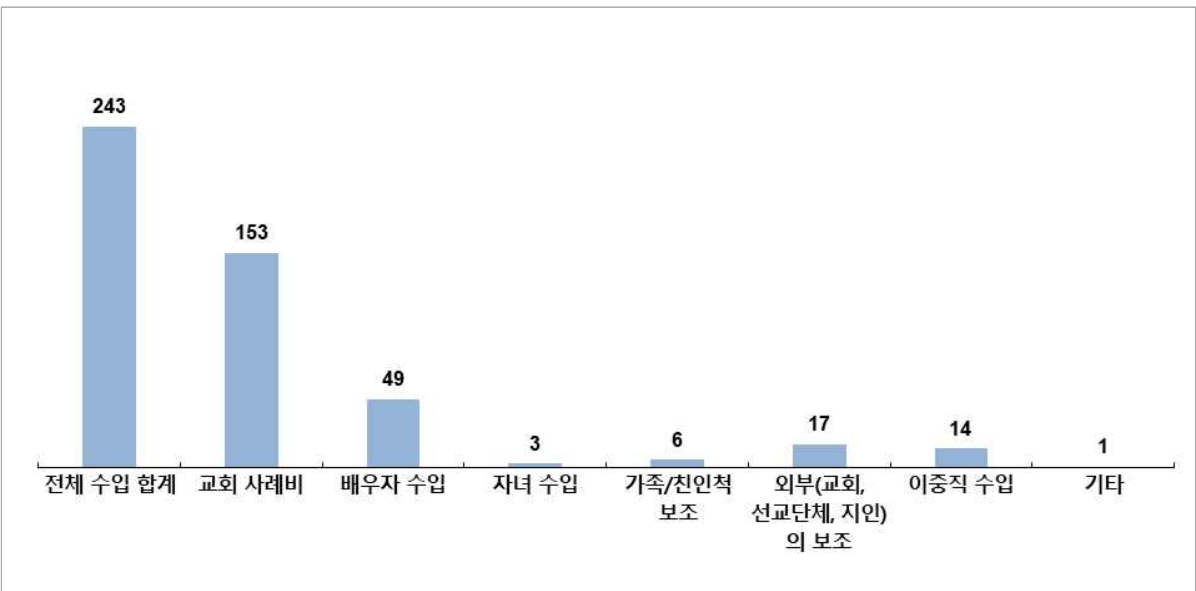
가정의 생활비 출처와 월평균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다. ‘교회사례비’가 가장 비중이 컸는데, 평균 153만 원이었고, ‘배우자 수입’이 평균 49만 원으로 2순위였다. 외부(교회, 선교단체, 지인)의 보조가 17만 원, 이중직 수입이 14만 원, 가족/친인척 보조가 6만 원, 자녀 수입이 3만 원이었다. 여기서 각 수입액은 해당 수입이 없는 응답자를 포함하여 전체 504명을 대상으로 산출한 평균 금액이다. 곧 이중직 수입이 전체 평균은 14만 원이었는데 이는 이중직을 하지 않는 응답자까지 포함한 경우이고 이중직을 하는 경우만 계산하면 평균 금액은 92만 원이었다.

조사를 진행한 2022년의 최저 시급에 따른 월급여액 191만 원과 비교하면 ‘교회 사례비’는 ‘153만 원’으로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교회 규모에 따른 월 수입 차이가 컸는데 출석 교인 10명 이하 교회의 경우 월 수입이 174만 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11~30명은 240만 원, 31~50명은 270만 원, 51명 이상은 301만 원이었다. 나이에 따라서 보면, 39세 이하 목회자의 월 수입이 197만 원으로 낮았는데, 젊은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규모가 작고 목회 초기에 사례비를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교인의 주직종이 농/수/축산업인 경우(순 농어촌지역)는 244만 원, 도농복합지역은 243만 원으로 차이가 없었다.

교회를 떠날 생각 유무에 따라서 보았을 때, 월 가구 수입의 차이는 미미했다. 따라서 현 교회를 떠나고 싶은 것은 절대적인 경제 수준이 아니라 현 교회에서 목회의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주요인이라는 앞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이중직을 하는 경우는 월 수입이 288만 원으로 이중직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최소 30만 원 더 많았다. 또한 배우자가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는 월 수입이 305만 원으로 배우자의 경제 활동이 없는 경우보다 100만 원 이상 높았다.

[그림] 월 가구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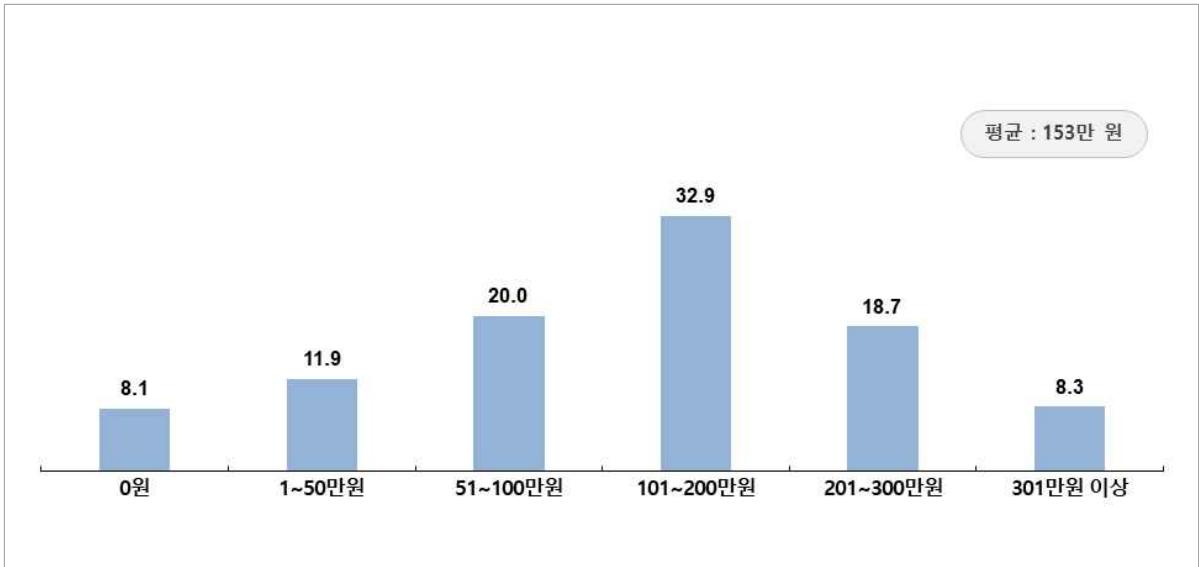
(Base=전체, N=504, 만원)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회 사례비는 101~200만 원을 받는 경우가 32.9%로 가장 많았다.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8.1%였고, 301만 원 이상 받는 경우는 8.3%였다. 평균은 153만 원이었다. 출석 교인 10명 이하 교회 목회자가 48만 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11~30명 교회는 129만 원, 31~50명 교회는 213만 원, 51명 이상 교회는 257만 원을 사례비로 받고 있었다. 교인 수가 최소한 30명은 넘어야 최저 시급 수준의 사례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9세 이하 목회자는 평균 92만 원이었다. 교인의 주 직종이 농/수/축산업인 경우 즉 순 농어촌 지역 교회(157만 원)이 도농복합지역 교회(143만 원)보다 14만 원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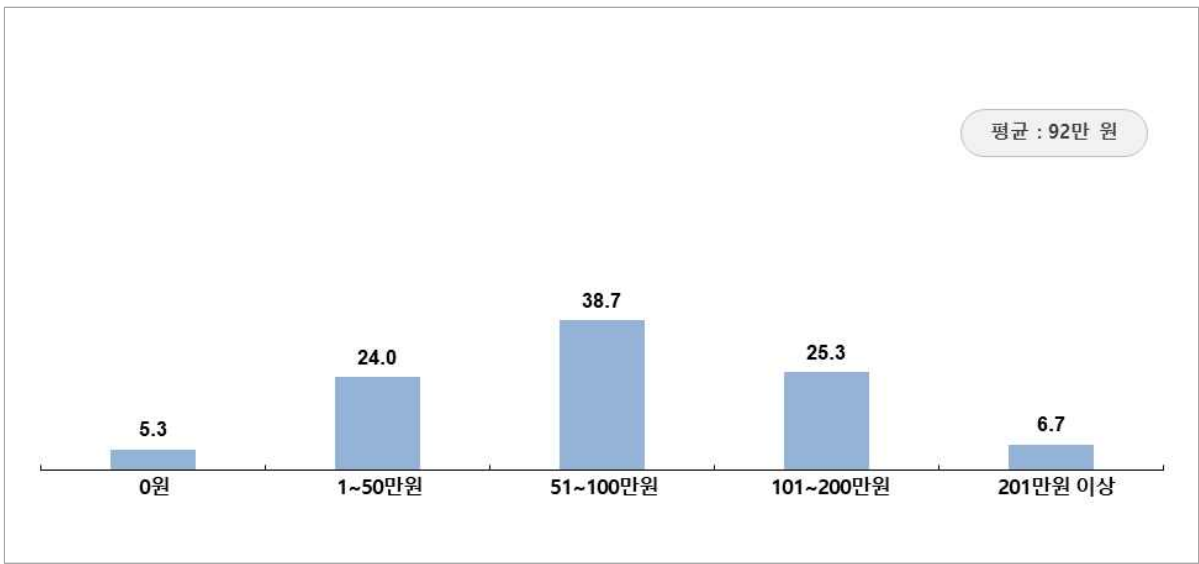
현재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한 경우는 150만 원, 떠날 생각을 한 적이 없는 경우가 151만 원으로 차이가 없었다. 이 역시 교회 사례비와 교회를 떠날 생각과 관련성이 없다는 뜻이다. 이중직 목회자는 교회 사례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29.3%나 되었고 평균 사례비는 82만 원이었다. 과거에 이중직을 하다가 현재는 안 하는 목회자가 사례비를 못 받는 비율이 2.7% 밖에 되지 않았으며 월 평균 수입은 125만 원이었다. 사례비를 받지 못하거나 평균 100만 원이 되지 않을 때 이중직을 하고 100만 원이 넘어가면 이중직을 그만두는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작은 교회 목회자에게 이중직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월 가구 수입_교회 사례비(도서비, 자녀교육비, 목회활동비 등 포함) (Base=전체, N=5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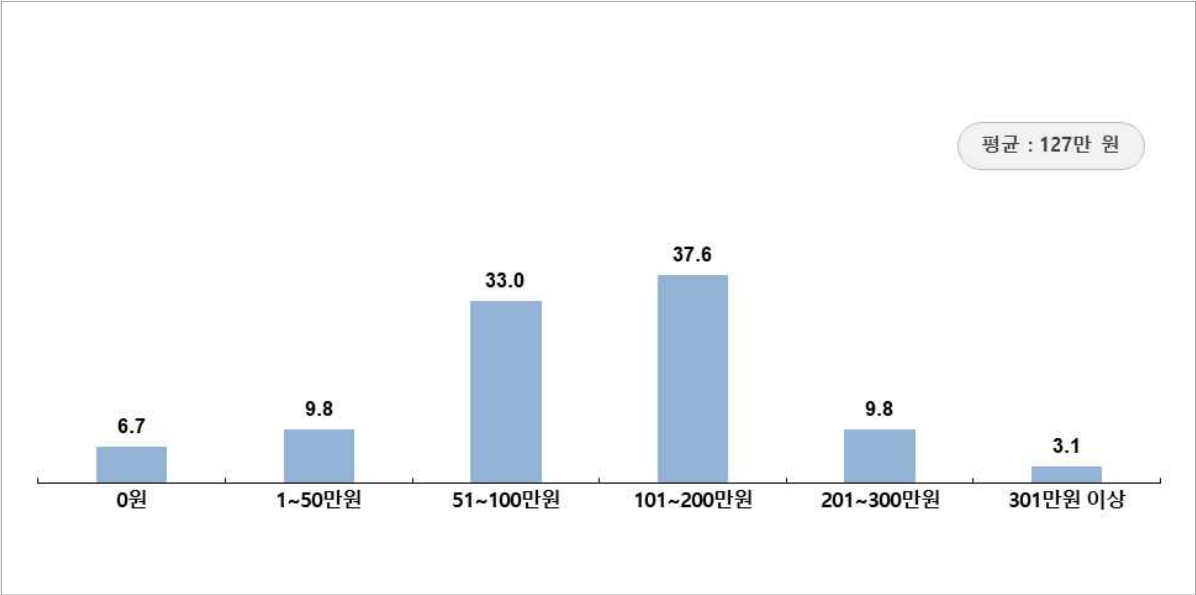
이중직을 하는 목회자로 국한해서 보면 이중직을 통한 월 수입이 51~100만 원이 38.7%로 가장 많았다. 201만 원 이상 소득자는 6.7%였으며 수입이 없는 경우도 5.3%였다. 평균은 92만 원이었다.

[그림] 월 가구 수입_이중직 수입 (Base=현재 이중직 수행자, N=7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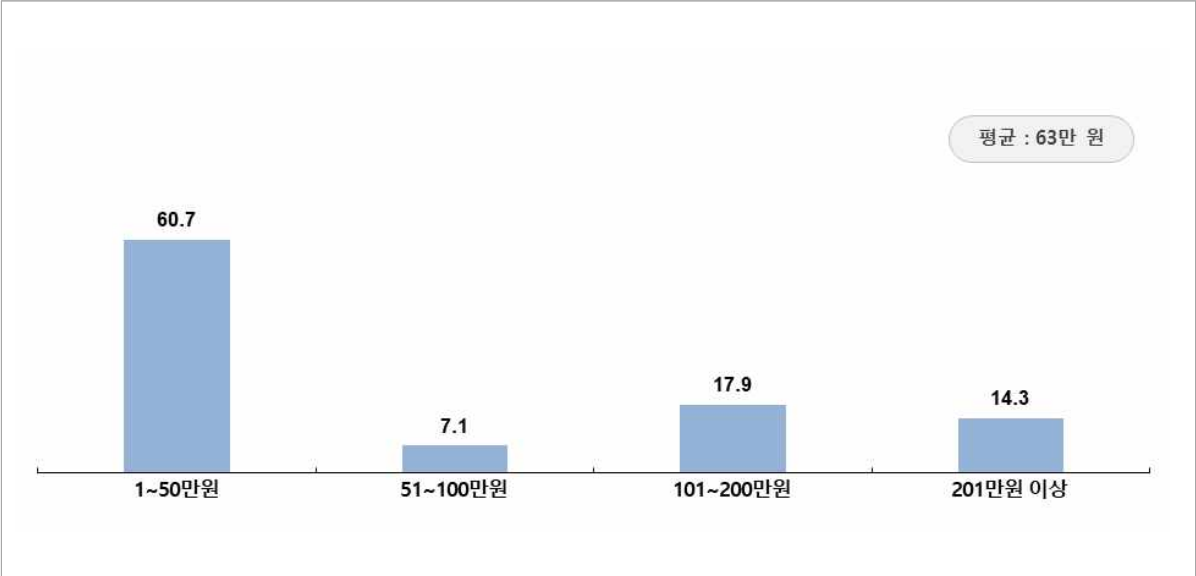
배우자가 경제 활동을 하는 목회자 가정으로 국한하면 배우자 월 수입은 101~200만 원이 37.6%로 제일 많았고, 51~100만 원도 33.0%로 많았다. 201만 원 이상은 9.8%였다. 경제 활동을 하는 배우자의 월 평균 수입은 127만 원으로 이중직 수입보다 35만 원 많았다.

[그림] 월 가구 수입_배우자 수입 (Base=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응답자, N=194, %)



가구 수입 가운데 차지하는 자녀 수입(자녀 수입이 가정생활비에 충당되는 경우)은 평균 63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가정생활비에 보태지고 있었다. 1~50만원이 60.7%로 가장 큰 비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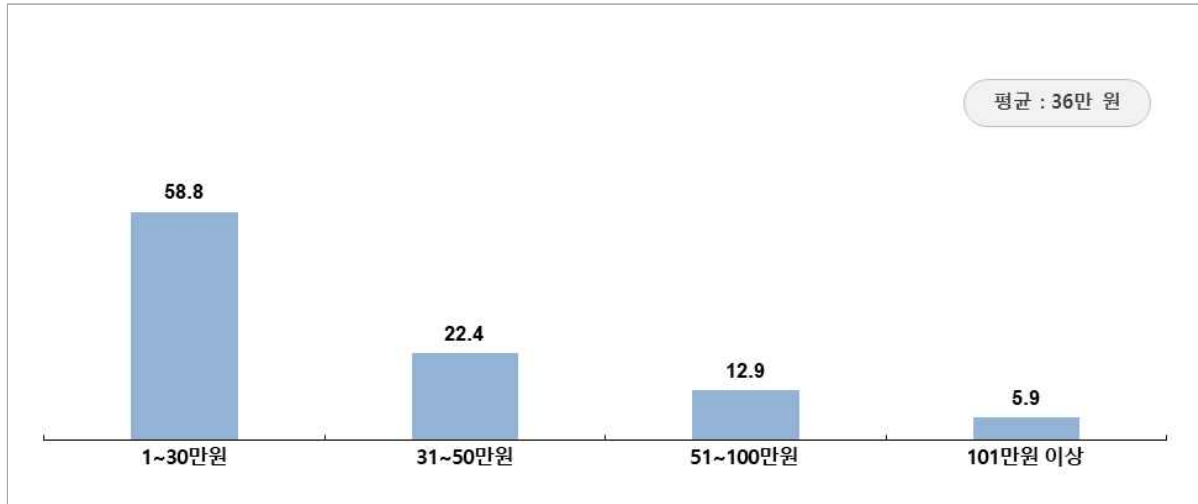
[그림] 월 가구 수입_자녀 수입 (Base=가정 생활비에서 자녀 수입이 있는 응답자, N=28, %)



가족/친인척 보조가 있는 경우 금액은 1~30만 원이 58.8%로 많은 금액을 보조받지는 않았다. 101만 원 이상은 5.9%였고, 평균 36만 원이었다.

[그림] 월 가구 수입_가족/친인척 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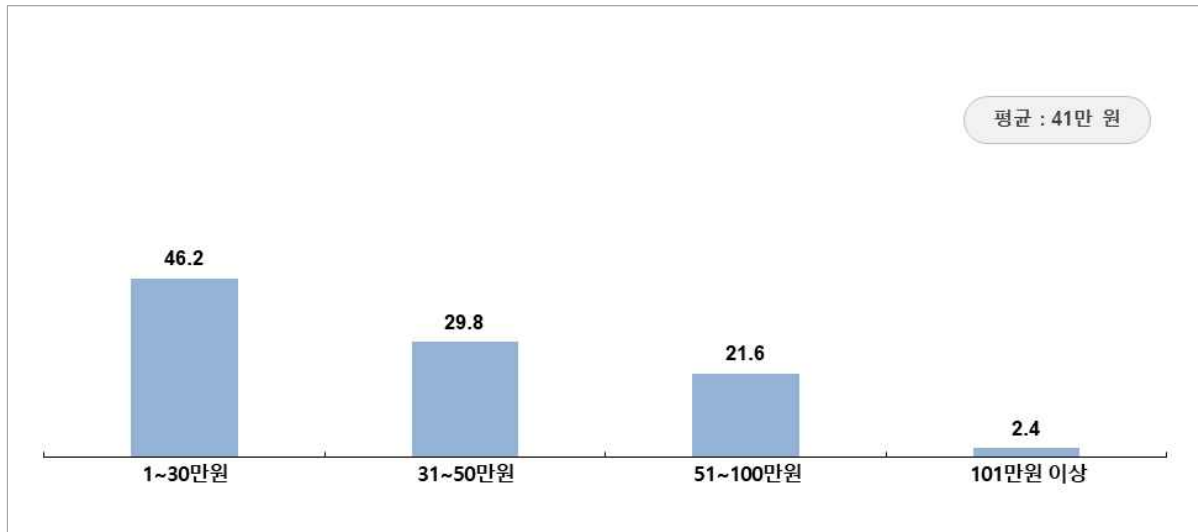
(Base=가족/친인척 보조받는 응답자, N=85, %)



외부 보조를 받는 교회는 41.3%였는데, 외부 보조 금액은 1~30만원이 46.2%로 역시 많은 금액을 보조 받는 않았다. 101만 원 이상은 2.4%였고, 평균은 41만 원이었다.

[그림] 월 가구 수입_외부(교회, 선교단체, 지인)의 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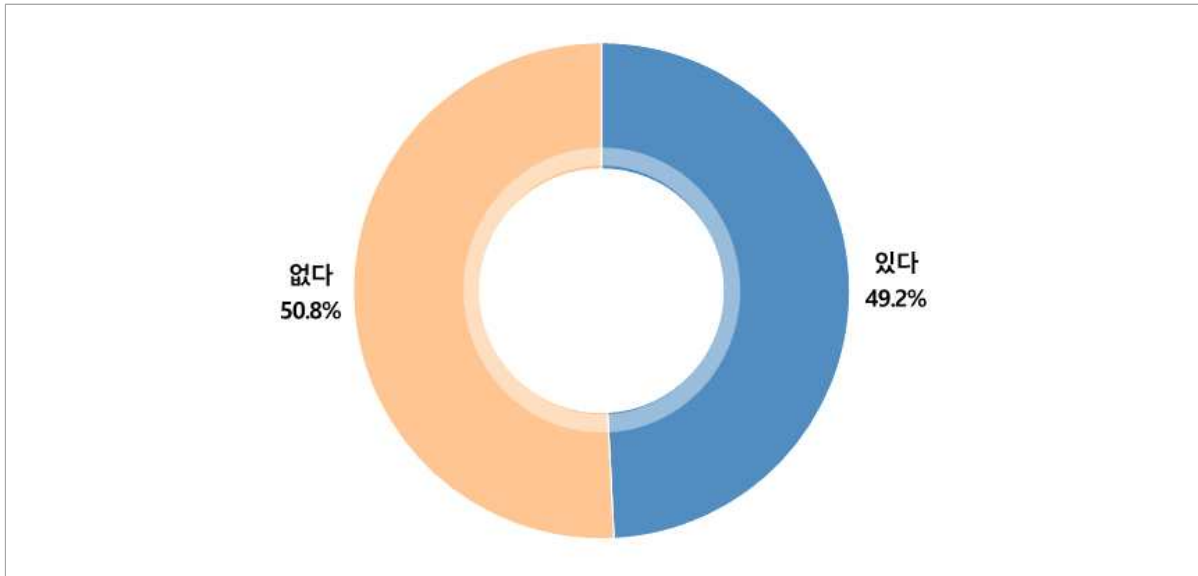
(Base=외부 보조받는 응답자, N=208, %)



개인 부채가 있는 응답자는 49.2%로 조사되어 농어촌교회 목회자 절반은 개인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의 부채 비율이 제일 높았는데, 이 시기가 자녀 대학 등록금 및 결혼 등이 있으므로 부채가 제일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담임 교회를 현재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목회자의 경우에는 58.1%가 부채가 있었으며, 사례비가 제일 적은 출석 교인 10명 이하 교회 목회자의 개인 부채 비율이 55.8%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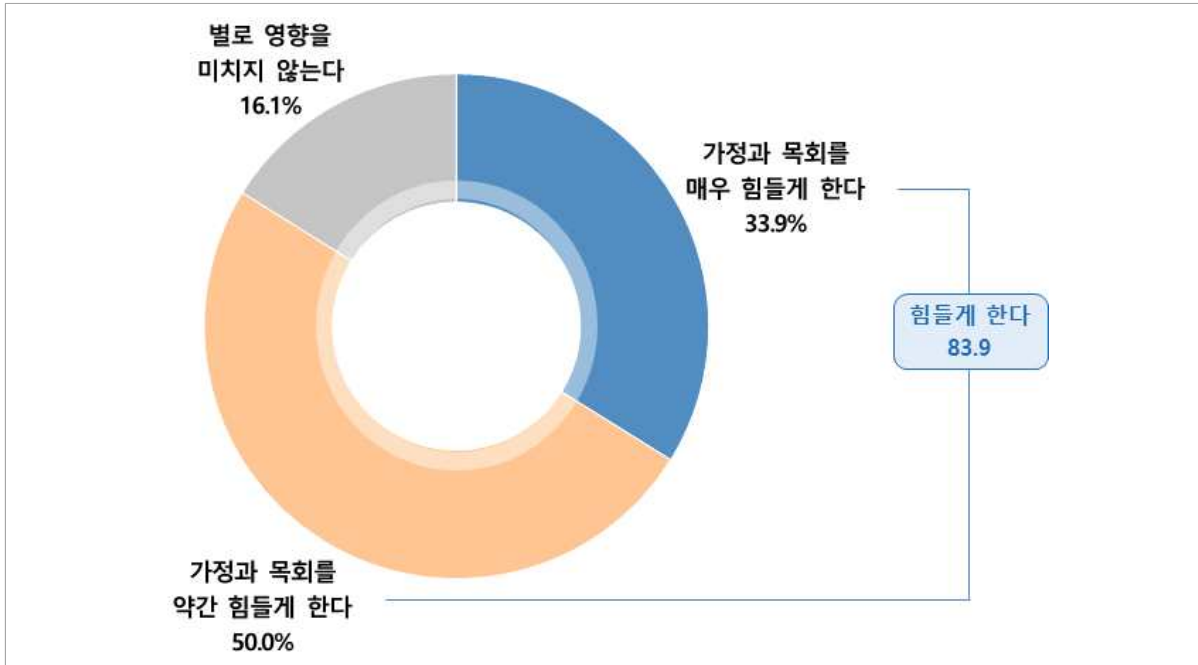
[그림] 개인 부채 여부

(Base=전체, N=504, %)



개인 부채가 있다고 한 응답자의 대부분이 ‘가정과 목회를 힘들게 한다’(83.9%)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가정과 목회를 매우 힘들게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33.9%나 되었다. 현재 담임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목회자 가운데 ‘매우 힘들게 한다’는 비율이 41.3%인데 과거에 떠날 생각을 한 목회자는 31.4%, 담임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한 적 없는 목회자는 25.7%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교회를 떠나게 하는 데에 수입보다는 채무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채가 미치는 영향 (Base=개인 부채가 있는 응답자, N=24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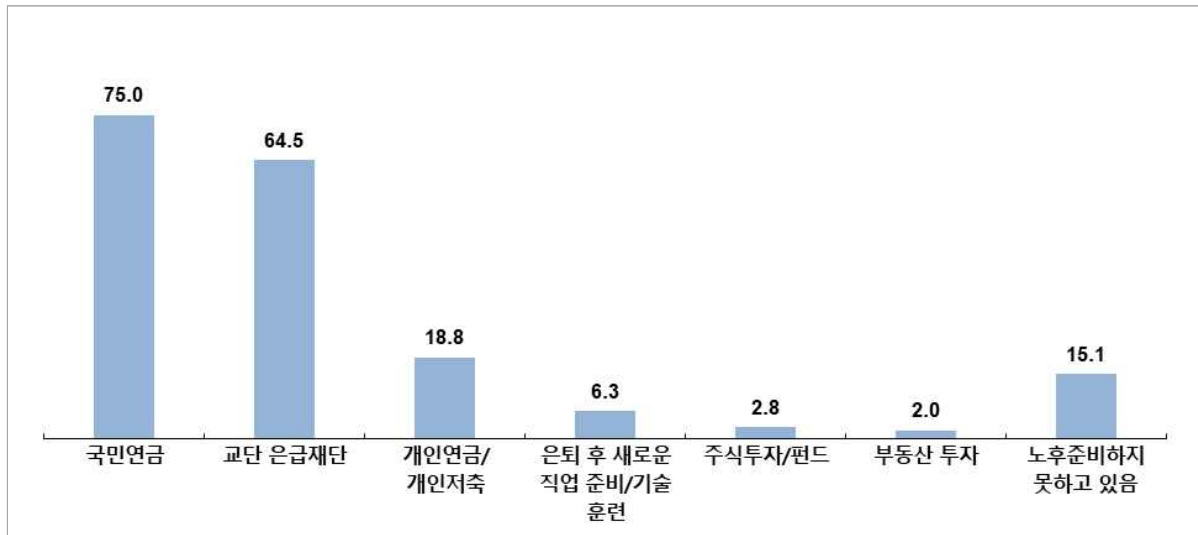
은퇴 후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었다(복수 응답). ‘국민연금’(75.0%)을 4명 가운데 3명이 응답할 만큼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었고 그 다음으로 ‘교단 은급재단’(64.5%)도 과반수가 준비하고 있는 방법이었다. 한편 ‘개인연금/개인저축’(18.8%)은 10명 가운데 2명 정도의 소수만 이용하고 있었다. ‘은퇴 후 새로운 직업 준비/기술 훈련’(6.3%), ‘주식투자/펀드’(2.8%), ‘부동산 투

자’(2.0%)는 미미했다.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비율도 15.1%나 되었다. ‘국민연금’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응답율도 높아졌고, ‘주식투자/펀드’는 연령이 낮을수록 응답율이 높았다. 39세 이하 목회자의 경우 ‘주식투자/펀드’(6.0%)와 ‘부동산 투자’(2.0%)를 합해서 8%로 비교적 높았다.

농어촌 목회자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노후에 대한 대책이 없고, 노후 준비를 하는 목회자들도 사실상 금액 면에서 국민연금이나 교단 은급재단 지급액이 적어서 실질적인 노후 준비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목회자 은퇴 후 노후 준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림] 은퇴 후 노후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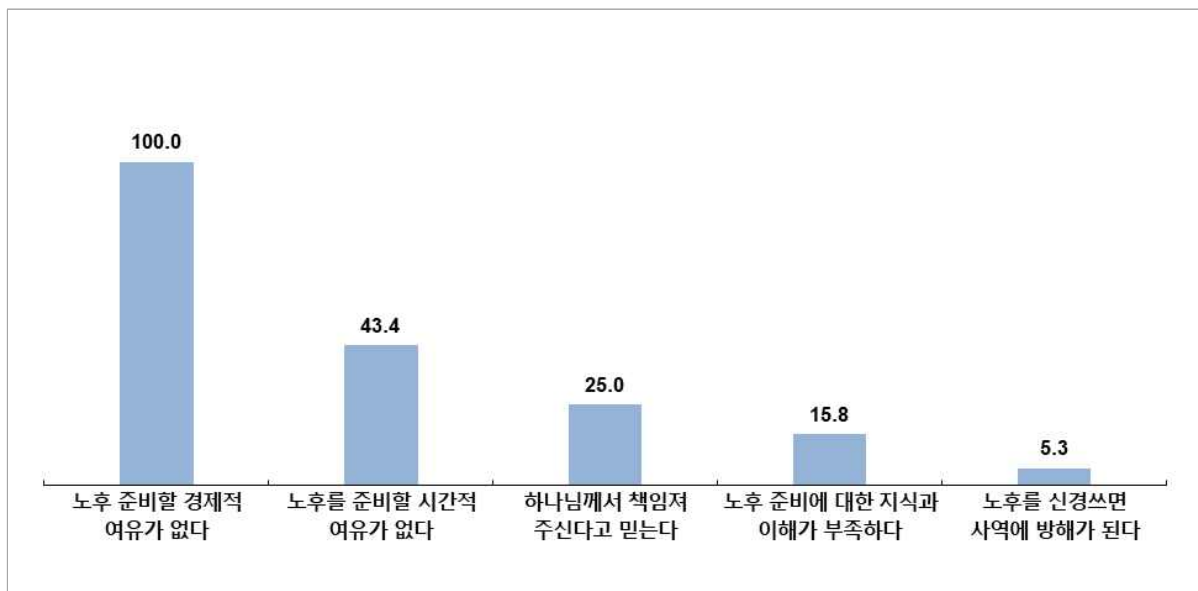
(Base=전체, N=504, %)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2개 응답)는 ‘노후 준비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가 100%였다. ‘노후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43.4%), ‘노후 준비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다’(15.8%)도 노후 준비를 못하는 이유로 응답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다’(25.0%), ‘노후를 신경쓰면 사역에 방해가 된다’(5.3%) 등 믿음과 사역으로 인해 준비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있었다.

[그림] 노후 준비를 못 하는 이유 (1+2순위)

(Base=노후 준비 못하는 목사, N=76, %)



4. 결론 및 제언

1) 조사 결과 요약

이번 농어촌교회에 대한 조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회 현황과 관련하여, 대개 출석 교인 50명 이하를 초소형 교회로 분류하고 재정 자립이 어려운 교회로 보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농어촌교회의 83%인 대다수가 초소형 교회이고 96%가 소형교회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주일 예배 참석 인원도 50명 이하가 87%였다. 성비 구성은 남녀 비율이 3:7로 여성이 두배 이상 많았다.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65%로 3분의 2를 차지했다. 교회학교는 44%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학생 수는 평균 8.1명으로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조사에 참여한 목회자들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경우로 추정되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였고, 농어촌교회의 당면 문제도 이와 같았다. 지역 문제가 농어촌교회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84%는 농어촌 목회에 탈진한 목회자가 많다고 생각했고, 77%는 농어촌 목회에 사명을 갖고 농어촌교회로 오는 목회자가 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농어촌교회 목회자들 3명 가운데 1명은 교회를 떠날 생각을 했고, 또 3명 중 1명은 지금도 떠날 생각이 있다. 그 이유는 교회의 미래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이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이다. 떠날 경우에는 도시 교회 담임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러나 농어촌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주장에 절반이 넘는 52%가 동의하지 않았고, 84%는 목회자가 하기에 따라서 농어촌교회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농촌의 현실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지만 여전히 희망을 버릴 수 없고 여기에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농어촌 목회자들 4명 가운데 1명은 농어촌 주민과 소외 받는 이들을 섬기기 위해(19%), 그리고 사라져가는 농어촌교회를 지키기 위해(5%) 농어촌교회에 왔다. 그리고 3명 가운데 1명은 농어촌교회에는 목회자 하기에 따라서 기회가 많다고 생각한다. 또한 5명 가운데 1명은 공동체 문화가 있는 것도 좋은 점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척박한 환경에서도 여전히 농어촌교회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절반 가까이 교인의 텃세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다.

농어촌교회의 가능성 가운데 하나는 최근 귀농어촌 인구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농어촌교회에는 2개 중 1개꼴로 귀농어촌 교인이 출석하고 있었고, 비율도 15%로 적지 않았다. 대다수의 귀농어촌 교인들은 이미 신앙생활을 하다가 농어촌 지역에 있는 교회로 옮겨왔지만 10명 중 1명은 농어촌에 와서 처음 신앙을 가졌다. 전도의 가능성과 함께 교인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 목회자 83%는 긍정적인 영향이 많다고 보았고 무엇보다도 교회 활력이 증가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귀농어촌 교인이 있는 교회들 5개 중 3개는 표면적이지는 않지만 귀농어촌 교인들과 알게 모르게 부조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귀농어촌 사역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62%의 목회자들은 이들에 대한 상담이나 정착 지원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어촌 지역에는 다문화 또는 이주민 가정도 늘어나고 있다. 농어촌교회 4곳 가운데 1곳에는 다문화 가정 교인이 있었는데, 비율은 6%로 많지 않았다. 그런데 고등학교 이하의 학생이 있는 교회 중에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있는 비율이 10%로 비교적 많았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나 학생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 다문화 목회를 하는 경우도 조사되었다. 다문화 가정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잘 지내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돕기도 한다. 그러나 전문적인 사역은 많지 않아서 다문화나 이주민 사역에 대한 교육과 안내가 필요하다.

농어촌교회 목회자 5명 가운데 1명은 마을 목회를 하고 있고 4명 중 1명은 앞으로 마을 목회를 할 계획이다.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어린이 돌봄 및 학습 지도이다. 마을 목회를 하지 않는 이유

는 교회 규모가 작아서 인력과 재정 능력이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다수는 농어촌 목회는 교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가 아니라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농어촌교회는 규모가 작아서 마을/지역 사회를 섬기는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데에는 44%가 동의하지 않았다.

농어촌 목회자 10명 가운데 4명은 교단 본부 선교국 산하 사회농어촌환경부가 농어촌 선교 정책을 담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12%는 농촌 선교주일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37%는 농어촌선교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루 100원 모으기 1만 성도 운동이 목회자와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39%는 농촌선교훈련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영성 수련 프로그램이 목회자나 교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38%는 서로살림농도생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본부의 활동과 정책에 대한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30대 이하 젊은 목회자들은 과반수가 생협이 필요하다고 응답해서 이에 대한 교육과 안내가 중요하다.

농어촌 목회자 가정의 전체 수입 평균은 243만 원이었고, 이 가운데 교회 사례비는 153만 원이었다. 이중직을 하는 경우 수입은 92만 원이었고, 배우자 수입은 127만 원이었다. 자녀의 수입은 평균 63만 원이었고, 가족이나 친인척의 보조비는 36만 원, 외부 보조비는 41만 원이었다. 이렇게 빠듯한 재정 상태 때문에 절반 정도는 개인 부채가 있다고 응답했고, 이들 대다수는 부채 때문에 가정과 목회가 힘들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15%는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목회 이중직에 대해 농어촌 목회자 5명 중 4명이 찬성을 하였고 15%는 현재 이중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직종은 매우 다양했다. 절반 정도는 이중직을 계속하거나 앞으로 이중직을 할 의향이 있었다.

2. 농어촌 목회를 위한 제언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농어촌교회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농어촌 목회를 위해 농어촌 목회자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재교육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 목회의 현실은 매우 척박하다. 교회 성장 이후기를 맞아 한국 교회 전체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지만, 절대 인구가 부족한 농어촌교회의 현실은 붕괴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어촌교회의 목회자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고 여전히 사명감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농어촌교회에 오는 목회자들의 상당수가 농어촌교회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를 하고 온 것이 아니라 우연한 계기로 오고 있는 현실이다. 농어촌 지역이나 교회의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이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단순히 의지와 열정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면 이내 농어촌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3분의 2 가량의 목회자들이 농어촌교회를 떠날 생각을 했거나 지금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교회에 부임하거나 부임할 계획이 있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농어촌 지역의 현실과 농어촌교회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목회관을 잘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도시 지역과 달리 농어촌 지역은 단순히 개교회 목회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도시에 비해 지역사회에 개방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을의 경조사에도 관여하게 되고 이러저러한 지역사회 활동에 개입하게 마련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농어촌 목회는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목회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 처음 부임하는 목회자들이 이러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농어촌에서 마을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제 사역에 대해 안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농어촌 지역이 모두 공통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도시 지역도 지역마다 나름대

로의 특성이 있듯이, 농(산)어촌도 각각 특성이 있다. 지역 정서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에 부임하는 목회자들이 농어촌 지역의 일반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부임하는 지역의 독특한 특수성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역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이러한 바탕에서 지역 맞춤형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이 정착 지역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의 필요에 반응하는 지역 밀착형 목회가 필요하다.

여기서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농업은 경제라는 잣대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산업 사회가 가져다 준 문명의 편리함은 특정 상황에서는 포기하고 불편을 감수할 수 있지만, 식량은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다. 식량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농업에 주목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 시대의 식량 위기와 에너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류는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노력보다도 더욱 절실하고 치열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농업은 그 중심에 서 있다.⁴⁾ 산업 측면, 특히 경제 측면에서만 보아서는 농업과 농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며 그 가치를 무시하게 된다. 따라서 이제는 농촌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농촌에는 인간의 원초적인 그리움을 간직한 많은 생활양식과 편안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어우러져 있다. 이것은 인공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농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움이다. 이러한 농촌의 가치를 어메니티(amenity)라고 부른다. 곧 농촌 어메니티란 사람들에게 휴양적, 심미적 가치를 제공해주는 농촌에 존재하는 특징적인 모습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여기에는 생물 종의 다양성, 생태계, 지역 고유의 정주패턴, 경작지, 고건축물, 농촌공동체의 독특한 문화나 전통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농촌 어메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 각박한 산업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기댈 수 있고 재충전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터전을 보존하고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관계라는 근본적인 깨달음에서 출발한다. 이것이 바로 농도 공동체 운동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를 위해 농도 생협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늘어나는 귀농어촌 인구는 농도 교류의 차원에서 그리고 갈수록 줄어드는 농어촌 인구를 감안할 때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농촌진흥청이 노후 농촌 생활에 대한 가치 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67%는 은퇴 후 우선 거주 지역으로 농촌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때 대량 해직 사태가 벌어지면서 비자발적 귀농 행렬이 이어진 이후에 2011년 이후 귀농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도시 노동 시장의 불안정이 귀농 인구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면서 사회안전망이 충분치 않은 현실에서 하나의 대안으로서 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 대안으로 농어촌 이주가 부상하기도 하였다.⁵⁾

이에 따라 귀농어촌 증가가 지속가능한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귀농어촌은 농어촌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인구 증가를 통해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하는 측면이 가장 크고, 농어업 후계인력 확보에 기여하거나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생활 정치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농어촌사회의 혁신과 변화를 꾀할 수 있으며 농도 교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귀농어촌은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귀농어촌의 증가는 주민들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고, 농어업 관련 창업이 증가하여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세금 수입 증대로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도 있다.

4) 조은기, 「농촌불패: 농업이 미래다」(서울: 모던플러스, 2009), 4.

5) 유상오. 2011.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 준비를 위한 지원 방안”,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확산을 위한 정책 세미나 자료집, 59-99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번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귀농어촌 인구는 교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인 수 증가뿐만 아니라 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귀농어촌인과 기존 주민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 공동체의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기존 주민과 격리된 생활로 인해서 사회적 위화감 조성될 수도 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잠재적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주민 화합과 통합에 교회와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귀농어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잘 정착하고 기존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귀농어촌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새로운 정착지에서 새롭게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들을 잘 안내하고 이들이 기존 주민들과 잘 화합하도록 하는데 교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 최근에는 귀농어촌 상담소를 운영하는 교회가 늘고 있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지를 마련해 주는 등 구체적인 지원을 하는 교회도 늘고 있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귀농어촌 관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여기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족한 자원 조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회나 목회자가 주도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받는 것은 적절하지만 때로는 정부 사업에 대한 의존이 심해서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서 적실성 있는 귀농어촌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단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어촌 목회자들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앞에서 말한 마을 목회는 개교회 활동만으로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특정 교회가 마을공동체 활동에 홀로 참여하기보다는 지역에서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만한 다른 교회를 물색하여 협력 사업을 벌이는 것이 보다 효과 있는 방법이다. 한국 교회는 개 교회 내부 결속력은 강하지만, 다른 교회와의 협력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연계 활동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교회가 지니고 있는 물질과 제도 자원이 지역사회를 위해 효과 있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과 함께 연합 활동을 하는 벌이는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마을공동체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지역의 여러 자원들과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을공동체 활동은 기존에 교회가 해왔던 사회봉사나 구제 활동과 같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혜 성격의 활동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을공동체 활동의 주체는 주민이기도 하거나 개교회 중심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주민들과의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원 단체나 지역 네트워크를 설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역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나 교회들 사이에 협력 관계를 형성한다면 이런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교회 규모가 작아서 인적, 물질 자원이 충분하지 않거나 개교회의 역량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얼마든지 마을 목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에 관심 있는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합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 운동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하고 독려를 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자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시민단체와도 협력하여 지역사회 협의체를 구성하여 필요에 따라 유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일이다. 교회가 하는 대부분의 사회봉사 활동은 체계적이지 않고 지속적이지 않아서 대개 같은 활동을 비정기적으로 반복할 뿐 더 발전된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교계에도 마을목회 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는데 이러한 기구를 통해서 지속적인 논의를 함으로써 보다 건설적인 지역공동체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에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따라서 교단 차원에서도 거점 지역에 농도 공동체 운동을 위

한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농어촌 목회자들의 어려운 경제 현실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농어촌 목회자의 사례비와 월 소득은 거의 극빈층에 해당할 정도로 좋지 않다. 월 평균 교회 사례비는 153만 원으로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5년 전에 ‘한목협’에서 조사했을 때 전국 목회자 평균 사례비 176만 원보다도 20만원 이상 더 적었다. 이렇게 어려운 형편 때문에 노후 준비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현직에 있을 때나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나마 이번 조사에 참여한 목회자들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경우일 가능성이 있다. 매우 어려운 형편이 있는 목회자들은 이러한 조사에 응답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농어촌교회의 현실이 이번 조사 결과보다 더 열악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농어촌 목회자들의 경제 현실에 대해서 공교회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종직을 보다 활성화 할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농업을 포함한 적합한 직업 훈련도 필요하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이종직을 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농업에 관심이 있는 목회자가 적지 않았으나 기술이 없고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하다.⁶⁾ 또한 농어촌 목회자 최저생활 보장 제도나 기본 소득 제도, 자녀 교육 지원 그리고 은급 제도 현실화 등 당장 실행하기는 어렵더라도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농어촌교회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공동체로서의 역할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6) 귀농창업을 한 목회자 사례로, 박세광, “농의 재발견,”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농어광산촌선교위원회 역임, 『처음처럼 새롭게 마지막처럼 간절하게: 세상 속 우리들의 교회 이야기』(서울: 신앙과지성사, 2022)을 볼 것.

농어촌교회 실태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감리회 농어촌선교위원회로부터 연락받으신대로 농어촌교회 실태조사를 위탁받은 기독교 전문 여론 조사회사 지앤컴리서치입니다. 본 조사 질문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개별 응답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셔서 저희 이번 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감리회 농어촌교회 지원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SQ1) 귀하의 담임 교회의 소속 연회는 어디입니까? (단수응답)

- | | | | |
|---------|----------|------------|------------|
| 1) 서울연회 | 2) 서울남연회 | 3) 중부연회 | 4) 경기연회 |
| 5) 중앙연회 | 6) 동부연회 | 7) 충청연회 | 8) 남부연회 |
| 9) 충북연회 | 10) 삼남연회 | 11) 호남특별연회 | 12) 미주자치연회 |

SQ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단수응답)

- | | |
|-------|-------|
| 1) 남자 | 2) 여자 |
|-------|-------|

SQ3) 귀하의 나이는 만으로 몇 살입니까? 만 ____ 세

교회 일반

문1) 귀하 담임 교회 창립 연도는 몇년도입니까? _____년도

문2) 귀하 담임 교회 출석 성인 교인(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인 포함)은 몇 명입니까? (단수응답)

- | | |
|--------------|-------------|
| 1) 10명 이하 | 2) 11~30명 |
| 3) 31~50명 | 4) 51~100명 |
| 5) 101~300명 | 6) 301~500명 |
| 7) 501~1000명 | |

문3) 그러면 지난 주일 예배 참석 성인은 몇 명입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경우 온라인 예배 참여 인원까지 합해서 응답해 주세요. (단수응답)

- | | |
|--------------|-------------|
| 1) 10명 이하 | 2) 11~30명 |
| 3) 31~50명 | 4) 51~100명 |
| 5) 101~300명 | 6) 301~500명 |
| 7) 501~1000명 | |

문4) 지난 주일 예배 참석 인원 가운데 성인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합해서 100%가 되도록 응답해 주세요.

남자	()%
여자	()%
합계	100%

문5) 그러면 지난 주일 예배 참석 성인 인원 가운데 연령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29세 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이상	()%
합계	100%

문6) 귀하 담임 교회의 교인들은 어느 직종에 가장 많이 종사합니까?
높은 비율로 두 가지만 선택하십시오. (2순위 필수응답)

- | | |
|--------------|------------------|
| 1) 농업(수산/축산) | 2) 기능/숙련공 |
| 3) 사무/기술직 | 4) 판매/서비스 |
| 5) 전업주부 | 6) 학생 |
| 7) 자영업 | 8) 공무원 |
| 9) 무직 | 10) 기타() |

문7) 귀하 담임 교회에 교회학교(고등부 이하)는 있습니까? (단수응답)

- | | |
|-------|-------|
| 1) 있다 | 2) 없다 |
|-------|-------|

(문7의 1번 응답자에게)

문8) 귀하 담임 교회에는 교회학교(고등부 이하) 출석 인원은 몇 명입니까? _____명

농어촌교회 현실

문9) 귀하는 지금의 농어촌 현실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2개를 응답해 주세요. (2순위 필수응답)

- 1) 농어촌 인구 감소
- 2)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 3) 소득 감소
- 4) 정부 농어촌정책의 미비
- 5) 농수산물 값 하락
- 6) 기타 ()

문10) 귀하가 농어촌에서 목회하면서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장 바라는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2순위 필수응답)

- 1) 귀농어촌 활성화 정책
- 2) 농산물 판매 및 유통 안정화
- 3) 소규모 농민에 대한 지원 확대
- 4) 농업을 우선 정책으로 전환
- 5) 직불제 확대/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실시
- 6) 교육·의료 등 복지 시설 확충
- 7) 농어촌 거주자에 대한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원
- 8) 기타 ()

문11) 농어촌교회가 당면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점 두 가지를 순서대로 체크해 주세요.

(2순위 필수응답)

- 1) 교인 감소
- 2) 열악한 교회 재정
- 3) 잦은 목회자 이동
- 4) 교인 고령화
- 5) 교회와 지역 사회와의 반목
- 6) 교인들 간의 갈등
- 7) 기타 ()

문12) '농어촌교회는 인구 감소, 고령화 현상 때문에 희망이 없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1) 동의한다
- 2) 동의하지 않는다

(문12에서 1번 응답자에게)

문13) 농어촌교회 인구 감소 때문에 교인이 줄어드는 데에 대한 대책으로 농어촌교회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 | |
|----------------|----------------|
|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2)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 3) 약간 동의한다 | 4) 매우 동의한다 |
| 5) 잘 모르겠다 | |

(문13에서 1번 응답자에게)

문14) 그렇다면 농어촌교회 통폐합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단수응답)

- | | |
|-------------|-------------|
| 1) 매우 불가능하다 | 2) 약간 불가능하다 |
| 3) 약간 가능하다 | 4) 매우 가능하다 |
| 5) 잘 모르겠다 | |

(문12에서 2번 응답자에게)

문15) '농어촌교회는 희망이 없다'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응답)

- 1)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게 하지 않을 것이다
- 2) 농어촌 인구가 줄어들어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므로 교회는 존재할 것이다
- 3) 귀농(촌)자가 많아져서 교회가 존재할 것이다
- 4) 기타 ()
- 5) 새로운 농어촌교회 지원 정책이 나오면 된다
- 6) 농어촌교회만의 모델이 필요하다
- 7) 전도를 해야 한다
- 8) 목회자가 하기 나름이다
- 9) 농어촌교회만의 사명이 있다
- 10) 한 사람의 성도만 있어도 희망이 있다

문16) 농어촌교회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교회 스스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한 것 2가지를 응답해 주세요. (2순위 필수응답)

- 1) 마을목회 실시
- 2) 귀농어촌자 정착 지원 및 전도
- 3) 외부 교회/단체의 재정적 지원 요청
- 4) 교회의 재정 자립을 위한 경제 활동(영농조합법인 설립, 생태농업 등)
- 5) 교회에 목회자 사례비 부담을 주기 않기 위해 목회자 이중직 수행
- 6) 기타 ()
- 7) 충실한 목회(말씀 교육 등)

문17) 농어촌교회를 위하여 지방회, 연회, 본부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한 것 2가지를 응답해 주세요. (2순위 필수응답)

- 1) 도시 교회와의 자매 결연 주선
- 2) 농어촌교회 전문 사역자 양성
- 3) 농어촌 미자립 교회 목회자 최저생활비 지원
- 4) 농어촌교회 자녀 지원(장학금/학사 운영)
- 5) 도시 교회와 농수산물 직거래
- 6) 농어촌 목회자 영성 훈련 및 소명감 고취
- 7) 농어촌교회 통폐합
- 8) 농어촌 목회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류
- 9) 기타 ()

문18) 다음 농어촌교회 목회자에 대한 설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응답해 주세요

내용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잘 모르겠다
1) 외부 지원만을 받으면서 목회에는 관심없는 농어촌 목회자가 많다					
2) 농어촌 목회에 탈진한 목회자가 많다					
3) 농어촌을 떠날 생각 때문에 농어촌교회에 전념을 하지 않는 농어촌 목회자가 많다					
4) 목회자가 하기에 따라서 농어촌 교회도 발전할 수 있다					
5) 농어촌 목회에 사명을 갖고 농어촌교회로 오는 목회자가 늘어난다					

농어촌 목회

문19) 귀하께서 농어촌에서 목회를 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응답)

- 1)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 2) 도시 목회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 3) 사라져가는 농어촌교회를 지키기 위해
- 4) 농어촌 주민과 소외받는 이들을 섬기기 위해
- 5) 도시 교회에서 담임목사 기회가 없어서
- 6)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목회를 경험하고 준비하기 위해
- 7) 우연한 계기로
- 8) 기타(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_____)
- 9) 하나님의 인도하심

문20) 농어촌 목회의 장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있다면 어떤 것이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1) 큰 교회와 경쟁하지 않는다
- 2) 목사가 사랑받는다
- 3) 공동체 문화가 있다
- 4) 목회자 하기에 따라서 기회가 많다
- 5) 기타(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_____)
- 6) 장점이 없다
- 7) 시간이 많다(기도, 공부, 가족과의 시간)
- 8)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 9) 생태 목회를 할 수 있다

문21) 귀하께서 농어촌 목회를 하실 때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순서대로 두 가지를 응답해 주세요. (2순위 필수응답)

- 1) 성도가 줄어들어서
- 2) 성도들이 고령화되어서
- 3) 성도들의 화합이 안 돼서
- 4)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 5)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배타적이어서
- 6) 농어촌교회 목회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기 힘들어서
- 7) 농어촌 목회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 8) 개인/가정생활과 자녀 교육 등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 9) 사례비가 적어서
- 10) 성도들이 목사에게 비협조적이어서
- 11) 기타(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_____)
- 12) 변화가 안 나타남

문22) 다음 농어촌교회에 대한 설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응답해 주세요.

내용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잘 모르겠다
1) 농어촌 목회는 일부 교인의 텃세 때문에 힘들다					
2) 농어촌 목회는 교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가 아니라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3) 농어촌교회는 규모가 작아서 마을/지역사회를 섬기는 활동을 하기 어렵다					

문23) 귀하 담임 교회에는 귀농어촌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단수응답)

1) 있다

2) 없다

(문23에서 1번 응답자에게)

문24) 귀하 담임 교회에 귀농어촌하신 분들이 교인 가운데 몇 %나 될까요? _____%

(문24에서 1번 응답자에게)

문25) 귀하 담임 교회에 귀농어촌하신 교인 가운데 이미 신앙을 갖고 귀농어촌하신 교인과 귀농어촌해서 신앙을

갖게 되신 교인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합이 100이 되도록 응답해 주세요

귀농어촌 전에 신앙을 가진 분 ()%

귀농어촌 후에 신앙을 갖게 되신 분 ()%

합계

100%

(문23에서 1번 응답자에게)

문26) 귀농어촌하신 교인들이 귀하 담임 교회나 목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단수응답)

1) 긍정적 영향이 더 많다

2) 부정적 영향이 더 많다

3) 아무런 영향이 없다

(문26에서 1번 응답자에게)

문27) 귀농어촌하신 분들이 미치는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은 무엇입니까? (단수응답)

- | | |
|--------------------------------|-------------|
| 1) 교인 증가 | 2) 교인 활력 증가 |
| 3) 교회 평균 연령 하향 | 4) 재정 증가 |
| 5) 기타 () | |

(문26에서 2번 응답자에게)

문28) 귀농어촌하신 분들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무엇입니까?

- | | |
|--------------------------------|---------------|
| 1) 기존 교인과 화합이 안 됨 | 2) 교회 소속감이 낮음 |
| 3) 교회에 대한 비판적 발언 | 4) 쉽게 교회를 떠남 |
| 5) 기타 () | |

(문23에서 1번 응답자에게)

문29) 교인 가운데 원주민 교인과 귀농어촌하신 교인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1) 갈등과 반목이 표면적으로 드러난다
- 2) 갈등과 반목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재적으로 있다
- 3) 갈등과 반목은 없지만 출신에 따라 잘 섞이지 못한다
- 4) 갈등과 반목없이 화합하여 잘 지내고 있다

(문23에서 1번 응답자에게)

문30) 귀하 담임 교회에서 귀농어촌하신 교인에 대한 지원 활동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지원 활동입니까? 하시는 활동을 모두 응답해 주세요. 하시는 활동이 없으면 '없다'에 응답해 주세요.

- 1) 농촌 체험 기회 제공
- 2) 주택 알선
- 3) 농지 알선
- 4) 영농 작물 추천 및 영농 기술 지도
- 5) 영농 기계 및 도구 임대 및 구입 상담
- 6) 영농 자금 및 각종 금융 지원 상담
- 7) 각종 법률 및 행정 절차 상담
- 8) 기타 ()
- 9) 특별히 하는 것이 없다

문31) 귀하 담임 교회에서 귀농어촌자를 위한 상담/정착 지원 활동(상담/정착지원 조직 구성 포함)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 | |
|------------|------------|
| 1) 전혀 의향없다 | 2) 별로 의향없다 |
| 3) 약간 의향있다 | 4) 매우 의향있다 |
| 5) 잘 모르겠다 | |

문32) 귀하 담임 교회에 다문화 가정 또는 이주민이 있습니까? (단수응답)

1) 있다

2) 없다

(문32에서 1번 응답자에게)

문33) 귀하 담임 교회에 다문화 가정/이주민이 교인 가운데 몇 %나 될까요? ____%

(문32에서 1번 응답자 & 문7에서 1번 응답자에게)

문34) 학생 가운데는 다문화 가정/이주민 자녀가 몇 %나 될까요? 없으면 '0'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____%

(문32에서 1번 응답자에게)

문35) 성도들은 다문화 가정/이주민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단수응답)

- 1)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차별한다
- 2) 은근히 무시하고 차별한다
- 3)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지낸다
- 4)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문32에서 1번 응답자에게)

문36) 귀하 담임 교회는 다문화 가정/이주민을 위한 지원 활동이 있습니까? 하시는 활동을 모두 응답해 주세요. (복수응답)

- 1) 한글 교육을 한다
- 2) 일자리를 소개한다
- 3) 직업적, 사회적 권익을 위해 돕는다
- 4) 경제적으로 돕는다
- 5) 관광/여행 등을 시켜 준다
- 6) 가정 문제 상담 등을 한다
- 7) 기타 ()
- 8) 특별한 목회적 도움이 없다

문37) 귀하께서는 현재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한 적 있습니까? (단수응답)

- 1) 과거에는 했는데 현재는 없다
- 2) 지금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있다
- 3) 그런 생각을 한 적 없다

(문37의 1번과 2번 응답자에게)

문38) 현재 교회를 떠나게 되면 어떤 진로를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1) 다른 농어촌교회의 담임목사
- 2) 도시교회 담임목사
- 3) 다른 교회 부교역자
- 4) 기관 사역
- 5) 목회직 포기
- 6) 기타 ()
- 7) 특정한 진로를 생각하지 않았다
- 8) 은퇴
- 9) 어디든 상관없다(보내시면 간다)

(문37의 1번과 2번 응답자에게)

문39)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응답)

- 1)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 2) 교회의 미래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 3) 교인들과의 갈등이 있어서
- 4)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있어서
- 5) 농어촌 목회가 너무 힘이 들어서
- 6) 교육/문화적 향유를 받지 못해서
- 7) 자녀 교육이 힘들어서
- 8) 기타 ()
- 9) 분위기 변화를 위해
- 10) 발전과 새로운 경험을 위해
- 11) 도시/다음세대 목회를 위해
- 12) 탈진/건강 문제

(문37의 1번 응답자에게)

문40) 현재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셨다가 안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응답)

- 1) 농어촌 목회에 대한 소명감을 갖게 되었다
- 2) 다른 교회로 갈 기회가 없었다/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
- 3) 교인들이 붙잡았다
- 4) 기타 ()
- 5) 갈등이 해소되었다
- 6) 적응이 되었다
- 7) 나이가 많아서/은퇴가 멀지 않아서
- 8)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다

농어촌교회와 지역사회

문41) 귀하 담임 교회는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지자체, 사회단체)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공부방, 노인복지센터,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글교육 등) (단수응답)

- 1) 현재 하고 있다
- 2) 앞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 3) 계획없다

(문41에서 1번 응답자에게)

문42) 귀하 담임 교회에서 실시하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응답해 주세요. (복수응답)

- 1) 지역 독거노인, 빈곤층 생활 돕기(반찬/도시락 배달, 집수리 등)
- 2) 노인 보호 및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제공
- 3) 지역 의료 서비스 제공
- 4)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어린이집/마을 학교 등 돌봄 및 학습 지도 사역
- 5) 청소년 카페/센터 등 청소년 대상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 6) 지역주민을 위한 카페 운영
- 7)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 운영
- 8) 지역주민의 회의, 모임, 행사(결혼식 등)를 위해 교회 공간 제공
- 9) 지역주민을 위해 종교와 무관한 일반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
- 10) 지역주민을 위한 인문학 및 교양 문화 강좌 개설
- 11) 지역주민을 위한 상담센터(가족, 건강, 법률 등) 운영
- 12) 지역사회 행사(마을 경조사, 마을잔치, 축제 등) 기획 및 운영
- 13) 지역 마을 환경 개선 활동
- 14) 지역 소득 증대 활동(작물 재배, 판매 활동)
- 15)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마을을 기초로 하는 사회적 경제 활동
- 16) 마을 공동체 조직(자치 조직, 주민자치위원회)에 활동가로 참여
- 17) 이장, 통장, 반장, 동대표 등 활동
- 18) 무료 급식(노인 및 노숙자)
- 19) 재활용 물품 수집 및 저가 판매(예시:아름다운 가게 등)
- 20) 귀농(촌)자를 위한 상담/안내
- 21) 다문화 가정 상담/지원
- 22) 지역/마을을 위한 기타 활동()

(문41에서 2번 또는 3번 응답자)

문43) 귀하께서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를 응답해 주세요. (2순위 필수응답)

- 1) 교회는 복음 전도에 전념해야 하므로
- 2) 교회 규모가 작아서 인력과 재정 능력이 안되므로
- 3)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 4) 교인들이 고령자들이라서
- 5) 지역에서 교회에 반감을 갖고 있어서
- 6) 교인들이 반대해서
- 7) 지역 사회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 8) 기타 ()
- 9) 지자체/사회단체가 잘 하고 있어서
- 10) 섬김 대상자가 없어서
- 11) 준비가 안되서

(문41에서 1번 또는 2번 응답자에게)

문44) 귀하 담임 교회에서 현재 하고 있는 활동 중 계속 진행하거나 새로 계획하고 있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응답해 주세요. 없으면 없다고 응답해 주세요. (복수응답)

- 1) 지역 독거노인, 빈곤층 생활 돕기(반찬/도시락 배달, 집수리 등)
- 2) 노인 보호 및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제공
- 3) 지역 의료 서비스 제공
- 4)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어린이집/마을 학교 등 돌봄 및 학습 지도 사역
- 5) 청소년 카페/센터 등 청소년 대상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 6) 지역주민을 위한 카페 운영
- 7)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 운영
- 8) 지역주민의 회의, 모임, 행사(결혼식 등)를 위해 교회 공간 제공
- 9) 지역주민을 위해 종교와 무관한 일반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
- 10) 지역주민을 위한 인문학 및 교양 문화 강좌 개설
- 11) 지역주민을 위한 상담센터(가족, 건강, 법률 등) 운영
- 12) 지역사회 행사(마을 경조사, 마을잔치, 축제 등) 기획 및 운영
- 13) 지역 마을 환경 개선 활동
- 14) 지역 소득 증대 활동(작물 재배, 판매 활동)
- 15)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마을을 기초로 하는 사회적 경제 활동
- 16) 마을 공동체 조직(자치 조직, 주민자치위원회)에 활동가로 참여
- 17) 이장, 통장, 반장, 동대표 등 활동
- 18) 무료 급식(노인 및 노숙자)
- 19) 재활용 물품 수집 및 저가 판매(예시:아름다운 가게 등)
- 20) 귀농(촌)자를 위한 상담/안내
- 21) 다문화 가정 상담/지원/교육
- 22) 지역/마을을 위한 기타 활동(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_____)
- 23) 없음

(문41에서 1번 응답자에게)

문45) 귀하 담임 교회는 마을과 지역을 섬기는 활동에 지자체나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단수응답)

1) 있다

2) 없다

(문45에서 1번 응답자에게)

문46) 지자체나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사업/활동의 주체는 어디였습니까? (단수응답)

1) 교회 단독

2) 교회와 지역사회 공동

문47) 귀하께서는 마을과 지역을 섬기는 활동에 지자체나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1) 부족한 재정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

2) 재정 지원을 받으면 지자체/정부의 간섭을 받을 수 있어서 반대한다

3) 잘 모르겠다

문48) 귀하 담임 교회가 지역자치단체(재정적 지원 제외)나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행사나 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단수응답)

1) 전혀 없었다

2) 1~2번 있었다

3) 3~4번 있었다

4) 5번 이상 있었다

문49) 지자체 또는 사회단체와 협력하려는 교회를 위하여 농촌선교위원회, 지방회, 연회, 본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약간 필요하지 않다

3) 약간 필요하다

4) 매우 필요하다

5) 잘 모르겠다

감리교 농어촌 선교 정책

문50) 귀하는 교단 본부 선교국 산하에서 사회농어촌환경부가 농어촌 선교 정책을 담당하고 있음을 아십니까? (단수응답)

1) 안다

2) 모른다

문51) 감리회는 각 연회마다 “농촌선교위원회”와 본부 선교국의 “농어촌선교위원회”가 조직되어 농촌선교를 위해 여러 방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위 두 조직이 농어촌선교 활성화를 필요하다고 여기십니까?

- 1) 두 조직 모두 필요하다
- 2) 연회의 농촌선교위원회만 있어도 된다
- 3) 본부 선교국의 농어촌선교위원회만 모든 연회에 있으면 된다
- 4) 잘 모르겠다

문52) 귀하 담임 교회는 “농촌선교주일(추석 후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단수응답)

- 1) 지킨다
- 2) 지키지 않는다

(문52에서 2번 응답자)

문53) 귀하 담임 교회가 “농촌선교주일(추석 후 주일)”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응답)

- 1) 농촌선교주일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 2) 필요성을 못 느껴서/관심없어서
- 3) 농촌선교주일은 도시 교회가 지켜야 하는 것이므로
- 4) 기타 ()
- 5) 도움을 받지 못해서

문54) 농어촌선교위원회는 주요사업 중의 하나로 “하루100원 모으기 1만 성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농촌선교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농어촌교회의 가족농 지원 사업과 농촌교회 농산물 직거래 유통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귀하와 교회에 필요하다고 여기십니까?

-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 2) 약간 필요하지 않다
- 3) 약간 필요하다
- 4) 매우 필요하다
- 5) 잘 모르겠다

문55) 감리교 농촌선교훈련원은 농촌 목회에 있어서 영성의 중요함을 알고 다양한 영성 수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귀하의 목회나 교회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 1) 전혀 도움이 안 된다
- 2) 별로 도움이 안 된다
- 3) 도움이 된다
- 4) 매우 도움이 된다
- 5) 잘 모르겠다

문56) 서로살림농도생협은 친환경농업을 하는 친환경 농가들의 생산비를 보장하고, 도시교회에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여 도시와 농촌이 서로를 살리는 생명공동체를 지향하는 생협입니다. 서로살림농도생협이 귀하의 목회나 교회에 필요합니까?

-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 2) 약간 필요하지 않다
- 3) 약간 필요하다
- 4) 매우 필요하다
- 5) 잘 모르겠다

가정 경제 및 이중직, 기타

문57) 귀하께서는 일반적으로 목회자가 목회 외의 다른 경제 활동, 이른바 이중직을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 | |
|----------|----------|
| 1) 적극 반대 | 2) 약간 반대 |
| 3) 약간 찬성 | 4) 적극 찬성 |

문58) 귀하는 이중직을 하고 있습니까? (단수응답)

- 1) 현재 하고 있다
- 2)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한다
- 3) 전혀 한 적 없다

(문58에서 2번, 3번 응답자에게)

문59) 귀하께서 이중직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응답)

- 1) 목회에 전념하기 위해서
- 2) 재정적 능력이 있어서
- 3) 직업적 재능이 없어서
- 4) 할만한 일을 찾지 못해서
- 5) 주위(목회자, 교인, 가족, 마을 주민)의 시선을 의식해서
- 6) 사모가 반대해서
- 7) 기타 ()
- 8) 건강상 이유로
- 9) 필요하지 않아서

문60) 그러면 사모(배우자)님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단수응답)

- 1) 현재 하고 있다
- 2)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한다
- 3) 전혀 한 적 없다

문61) 귀하 가정의 생활비는 어디서 충당이 됩니까? 경제적 수입 종류별 월 평균 금액은 얼마입니까?
만원 단위로 입력해주시고 해당 수입이 없는 경우 '0'으로 입력해 주세요

종류	월 평균 만원
1) 교회 사례비(도서비, 자녀교육비, 목회활동비 등 포함)	만원
2) 배우자 수입	만원
3) 자녀 수입	만원
4) 가족/친인척 보조	만원
5) 외부(교회, 선교단체, 지인)의 보조	만원
6) 나의 이중직 수입	만원
7) 기타	만원
합계	만원

(문58에서 1번 응답자에게)

문62) 귀하께서는 현재 이중직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 일을 하시면 주된 직종을 선택해 주십시오. (단수응답)

- | | |
|-----------------------|-----------------------------|
| 1) 대리운전/택시 | 2) 택배/물류 |
| 3) 청원경찰/경비 | 4) 목공/도배 |
| 5) 단순 노무직 | 6) 카페/음식점 근무 |
| 7) 편의점 등 판매점 근무 | 8) 다단계 판매 |
| 9) 자영업 | 10) 교사 |
| 11) 학원강사/과외 | 12) 통역/번역 |
| 13) 출판/편집 | 14) 일반 사무직 |
| 15) 공장 생산직 | 16) 농업 |
| 17) 어업 | 18) 임업 |
| 19) 농산물/수산물 유통업 및 가공업 | 20) 기타(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_____) |
| 21) 사회복지기관/사회복지사 | 22) 지역아동센터/방과후 교실 |

(문62에서 16번 미체크자에게)

문63) 귀하께서는 농업(경제적 수입을 목적으로 한 농사)을 하실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단수응답)

- | | |
|-------|-------|
| 1) 있다 | 2) 없다 |
|-------|-------|

(문62에서 16번 미체크자에게)

문64) 귀하가 경제적 수입을 위한 농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응답)

- 1)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 2) 농어촌에 정착할 마음이 없어서
- 3) 농토가 없어서/농토를 빌릴 돈이 없어서
- 4) 농촌 지역이 아니라서
- 5) 농사 기술도 없고 엄두가 안나서
- 6) 기타 ()

문65) (문58에서 1번 응답자에게) 귀하는 앞으로도 이중직을 계속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문58에서 2번, 3번 응답자에게) 귀하는 앞으로 이중직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단수응답)

- | | |
|----------|----------|
| 1) 전혀 없다 | 2) 별로 없다 |
| 3) 약간 있다 | 4) 매우 있다 |

문66) 귀하의 가정에 학자금 대출 및 개인 부채를 포함한 부채는 있습니까? (교회로 인한 부채는 제외)
(단수응답)

1) 있다

2) 없다

(문66의 1번 응답자에게)

문67) 귀하 가정의 부채가 귀하 가정과 목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가정과 목회를 매우 힘들게 한다
- 2) 가정과 목회를 약간 힘들게 한다
- 3)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68) 귀하는 은퇴 후를 대비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것을 모두 응답해 주세요.
(복수응답)

- 1) 교단 은급재단
- 2) 국민연금
- 3) 개인연금/개인저축
- 4) 주식투자/펀드
- 5) 부동산 투자
- 6) 은퇴 후 새로운 직업 준비/기술 훈련
- 7) 기타 (구체적으로_____)
- 8) 노후준비하지 못하고 있음

(문68에서 8번 준비하지 못하는 응답자에게)

문69) 노후 준비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부터 두 가지를 응답해 주세요. (2순위 필수응답)

- 1) 노후 준비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
- 2) 노후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 3) 노후 준비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다
- 4)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다
- 5) 노후를 신경쓰면 사역에 방해가 된다
- 6) 기타 ()

인구통계학적 질문

DQ1. 귀하의 현재 연급은 어떻게 됩니까? (단수응답)

- 1) 전도사(서리/준회원)
- 2) 정회원목사(연급1-10년)
- 3) 정회원목사(11년 이상)
- 4) 기타 (구체적으로 응답:_____)

DQ2. 귀하는 목사 안수 이후 목회를 시작한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도시 농촌 상관없이 전체 기간을 응답해 주세요. _____년

DQ3. 그러면 목사 안수 이후에 농촌 목회를 시작한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_____년

DQ4. 귀하께서 담임목회를 하신 것은 현재 교회가 몇번째 교회입니까? (단수응답)

- 1) 첫 번째 교회
- 2) 두 번째 교회
- 3) 세 번째 교회
- 4) 그 이상

DQ5. 귀하는 현재 교회에서는 몇 년째 담임목회를 하시는 것입니까? _____년

DQ6. 귀하의 동거 가족 수는 몇 명입니까? _____명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리교 농어촌교회 실태조사 심층인터뷰

조성돈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목회사회학연구소

인구감소와 노령화, 그럼에도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

— 농어촌목회에 대한 인식 변화 / 귀농귀촌 인구이동

조성돈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목회사회학연구소)

본 조사는 감리교 농어촌목회자 10명과 인터뷰를 기반으로 진행했다. 2명은 정책적인 면에서, 그리고 다른 이들은 전국 각 도별로 나누어 배정했다. 인터뷰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이 조사는 설문조사와 병행해서 상호 간에 소통 가운데 진행했다.

1 인구감소와 노령화 : 공황장애

농촌교회에서 교인들이 줄어가는 것은 너무 잘 알려진 현실이다.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해서 마을이 유지될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가운데 존재하는 농촌교회는 마을의 운명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농촌교회 목회자들은 대개 이러한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 다른 이야기보다 한 교회를 사례로 해서 상황을 보고자 한다.

전라북도 익산 부근에 있는 한 전형적인 농촌교회이다. 이 교회는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사람이 많았다. 중고등부만 100여 명 정도 되었다고 한다. 이후 동네에 사람이 빠르게 줄어들었다. 2007년 현재의 담임목사가 부임했다. 당시 교인은 80명 정도 되었다. 예배 출석인원은 50-60명 정도가 유지되었다. 그런데 현재는 20명 정도가 모인다. 코로나 전만 해도 30명은 되었는데 이제는 그나마도 유지가 안 된다. 목사의 생각에는 앞으로 닥칠 농촌소멸의 비극이 코로나로 인해서 앞당겨진 것 같다고 한다.

목사는 특별한 이야기를 했다. 농촌교회 목회자들에게 정신건강 관련해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한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농촌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성도가 팍팍 줄어들잖아요. 막 돌아가시고. 괜찮다고 하지만 아마 그분들도 정신 감정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우울증이 많이 있을 거예요. 힘들고 병들고... 제가 그 당시 일산에 있는 그 친구는 스트레스로 부정맥이 왔고요, 저는 공황장애가 왔어요.”

익산의 목사는 특히 교인들이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 충격을 많이 받았다.

“제가 한 5년 전에 공황장애가 왔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나면은 성도님들... 갑자기 권사님 혈액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떤 권사님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또 우리 장로님 한 분은 또 가정적인 문제로 교회를 쉬고, 또 잘 나오신 권사님 내외가 갑자기 그분도 병으로 돌아가시고. 이삼 년 사이에 어 딱 강대상 올라가면 자리가 다 비좁아요.

그럼 목회자들은 그렇죠 신학적으로는 천국 갔잖아요. 다들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강단에 설 때마다, 볼 때마다 뭐가 보여요. 빈자리가 보이고 이게 몸에 충격을 받더라고요. 나는 괜찮겠다 했는데 어느 날 강단에 섰는데 너무 이게 가까운 거예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한 번은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중단했어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앉아 가만히 있었어요. 숨을 못 쉬겠는 거야 막 뛰쳐나가고 싶은 거야 막...”

이후 이 목사는 치료를 위해 지인의 소개로 익산에서 경기도 일산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다녔다. 3개월간 병원을 왔다갔다하며 치료를 받고, 5년 동안은 약을 받았다고 한다. 이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느껴져 너무 마음이 아팠다. 많은 농어촌목회자들이 느끼는 심정일 것 같다. 강대상에 올라서면 하나, 하나 줄어가는 성도들의 빈자리가 보일 것이다. 평생 교회에 헌신해 오셨던 장로님, 권사님, 할아버지, 할머니 교인들이 돌아가신다.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여건상 못 나오는 것도 아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영영 그렇게 떠나간다. 한때 교인이 많이 있을 때 지은 교회당은 이럴 때 더욱 을씨년스럽다. 교회당 빈자리마다 사연이 있다. 그 자리에 앉았던 교인이 있다. 그 자리를 볼 때면 그 분이 생각난다. 목사는 그날 강대상에서, 그것도 송구영신의 뜻깊은 자리에서 그 자리들을 보았던 것 같다. 그리고 채워지지 않을 미래도 본 것 같다.

목사는 이런 이야기도 한다.

‘(강대상에) 올라갈 때마다 보여요. 저 권사님은 명절 되면, 추석 되면 항상 소고기 두 근 사가지고 오시는 권사님. 이런 것도 애정, 참 사랑이잖아요. 그냥 목회자가 사랑을 보고 살더라고요. 보니까 큰 백만원, 천만 원이 아니라 명절 때 소고기 한 근, 두 근 끊어 가지고 오시고, 어떤 분은 양말 하나 주시고 이런 분들이 다 떠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이게 사랑이 갈급한 거죠.’

농촌교회의 현실을 목회자 개인이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자녀교육의 어려움 등 보다 바로 내 눈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떠나보낼 때, 그리고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겪는 그 어려움은 다른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남는다. 그는 농촌교회의 어려움에서 그 무엇보다 먼저 목회자들의 정신건강을 걱정했다. 몸과 마음이 병들어 가지만, 어디 풀어 이야기할 곳조차 없이 적막한 예배당을 지켜가는 이들의 마음이 걱정이란단다. 현재의 농촌교회 문제는 이렇게 목회자들의 마음으로까지 와있다.

2 농촌교회의 가능성

1) 사회적 목회

결성감리교회는 충남 결성에 있다. 결성면은 홍성군에 속해 있는데, 홍성은 홍주와 결성이 합쳐지면서 이루어진 이름이다. 즉 과거에 결성면은 상당한 규모를 자랑했다. 그런데 현재는 인구 2천 명의 작은 마을이 되었다. 이곳에 결성감리교회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다. 교회당은 언덕 위에 아주 당당하게 서 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교인들은 많이 줄어들었다. 현재는 약 70명 정도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결성감리교회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목회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과는 구별되는 지점들이 있다. 첫째는 평화기도회이다. 한 달에 한 번 주일오후예배에 겸해서 드린다. 이 기도회에는 결성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한다. 면장, 농협조합장, 양돈사업자, 복지사업가, 장애인공동체 운영자, 향토사학자 등등이다. 이분들이 오셔서 자기들의 사업을 소개하고, 때론 자신들의 이야기를 한다. 기도회라고 하지만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초청된 사람들이 모두 신자는 아니어서 주저된 적도 있다. 그러나 이런 평화기도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지역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진행하고 있다. 교인들도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초청된 연사들도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한다. 심지어 기도회에 참여인원이 30명 정도 되었는데, 연사는 60-70명 정도 모였다고 기억한다. 그만큼 이 자리를 귀하게 본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둘째는 기부봉사단이다. 교인들이 한 달에 1만원씩 기부를 한다. 그런 기부금이 한 달이면 약 50만원 정도가 모인다. 그러면 매달 결성 면민 가운데, 또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돕는다. 때론 물품을 사서 드리기도 하고 현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가능하면 매 월 이 모인 돈이 쓰이도록 한다. 이 돈을 쓰기 위해서 기부봉사단을 만들고, 운영위원을 두어서 운영한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써야 할 돈을 세워 놓으니 생각이 바뀌었다. 전에는 누가 교회에 도와달라고 하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그런 부담이 없어졌다.

‘지금은 누구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이게 관심사예요. 왜냐면 내가 매달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예전에는 두려웠는데, 지금은 반가워요. 왜냐하면 내가 도울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누구를 도울 것인가를 찾아다니니 쉽지 않아서 면사무소의 사회복지 담당팀과도 협조하고 있다. 요즘은 그러한 의도가 닿아서 추천을 잘 해 준다. 특히 이런 담당자를 통해서 구체적인 정보가 온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분은 쌀과 반찬이 필요합니다.”, “이분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이분은 어렵지만, 필요 없습니다.”, “다른 지원이 있습니다.” 등등으로 구체적이다. 이렇게 면사무소와도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는 공유냉장고이다. 한 번은 마을에 노숙인이 나타났다는 정보가 왔다. 농촌마을에 노숙인을 본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마을에서는 처음이었다. 이야기를 듣고 그가 기거한다는 비닐하우스를 찾아갔다. 그가 있었다. 그냥 흙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기거하고 있고, 낮에는 노동을 하면 살았다.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지적장애인이었다. 면사무소에 이야기해서 먼저 주거를 해결했다. 농촌지역에는 비어 있는 집들이 있다 보니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먹는 문제가 남았다. 직접 매번 해 드리는 것도 서로 부담일 것 같았다. 그래서 교회에 냉장고를 들였다. 교회와 교인들이 그 냉장고에 먹을 것을 채웠고, 그가 와서 편할 때 꺼내 갈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때 홍성군에서 공유냉장고 사업을 시작했다. 같이 갈 마음에 신청을 했고, 홍성군 공유냉장고로 인정을 받았다. 이 냉장고는 이후 이 분만 아니라 마을에 거하는 외국인들에게도 개방되었다.

2021년 언론에 인상적인 뉴스 영상이 나왔다. 한 외국인 여성이 현관에서 교회를 향해 깊은 절을 하는 장면이었다. 당시 코로나 상황에서 신천지의 방역 방해와 교회가 방역에 어려움을 가져온다고 해서 사회적 인식이 아주 안 좋던 시기였다. 그런데 뉴스에 이러한 것이 나왔으니 상당히 센세이션했다. 바로 이 교회가 결성감리교회다. 외국인 여성은 공유냉장고에서 음식을 가져가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로써 이 교회는 절 받는 교회가 되었다.

결성감리교회 목사는 농촌교회가 지속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했다.

‘농촌교회도 기본적으로 도시교회와 그 기본적인 어떤 영적인 욕구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농촌교회가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 어떤 질문이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창조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동체 목회는 창조적으로 그래서 어떤 목회자의 은사나 이런 거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목회자가 충분히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도시보다 많을 거예요. 또한 공동체의 규모가 작으니까 참여의 효과가 훨씬 좋은 것도 있고요.’

2) 청년회장: 마을동화형

외령리는 충북 괴산군에 있다. 인터뷰를 위해 교회를 찾아가는데 길이 정말 험준하다. 중간에 음료수라도 사 가려고 했는데 살만한 가게를 결국 만나지 못해 그냥 가야 할 정도였다. 마을에는 57가구가 있다. 최근 귀촌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45가구에서 이렇게 늘었다. 현재 교인이 20명 정도 되는데 원 토박이는 4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귀촌한 이들이다. 즉 교회는 귀촌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목사는 40대였다. 교회에 부임한지 이제 5년 정도 되었다. 인상이 상당히 푸근했다. 손님 대접도 특별한 것이 없이 그냥 자신이 내린 커피를 주고,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치 오랜 친구 만난 듯 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특별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냥 그의 모습 그대로

목회를 했던 것 같다. 아주 푸근하게 마을 청년으로 마을 가운데 들어가 살았다.

동네에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수도를 연결했다. 그런데 식수로 쓰기에는 냄새도 나고 흙탕물이 섞여 나오기도 했다. 그래서 본인이 정수기를 달았는데, 좋았다. 그래서 주변에 달아드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21개나 달아 주었다. 현재 관리까지 하는 곳은 14곳이다. 정수기를 달아주니 3~4개월에 한 번씩 가 보아야 한다. 필터도 갈아주어야 하고 손도 봐야 한다. 그렇게 마을의 세대들을 심방한다.

그리고 한 번은 LED등을 달았다. 역시 좋아서 마을 분들 달아드렸다. 이진 한 집에 5개도 달아야 하니까 쉽지 않았다고 한다. 예산도 필요했다. 교회에서 이에 대한 예산을 따로 세웠다. 그래서 등을 사서 마을 세대들을 돌아다니며 달아드렸다. 현광등을 달고 살다가 환한 LED등을 달고 좋아들 하신다.

시골이다 보니 간식이 마땅치 않다. 농사를 짓다가 새참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그래서 빵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사택에 빵 굽는 기계를 들여와서는 빵을 구워서 새참 때가 되면 들고 나간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신다.

이 동네 와서는 교회와 사택 수리를 내내 했다. 외부 교회의 지원을 받았다. 재정 지원도 받고, 자원 봉사단체 등을 통해서 인력 지원도 받았다. 그렇게 사택과 교회가 점점 번듯하게 세워졌다. 이렇게 해 놓으니 마을사람들이 마음을 연다. 어느 분은 지나가며 ‘이제 이렇게 지었으니 목사님 어디 안 가시겠네요’ 하더라. 그 동안 목사가 되기 위해 잠시잠시 머물렀다 가는 목회지였는데, 이제 이렇게 차리니 마을사람들이 안심도 하고 마음을 열게 된 것이다. 어쩌면 농촌교회는 정착하는 모습만 보여도 일부분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외령교회의 목사는 특별한 목회라고 할 것은 없을지 모른다. 그런데 정말 청년회장처럼, 마을 어르신들의 손자처럼 그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그로써 농촌교회의 한 형태를 만들었다.

3) NGO 활동

경북 의성에 자리한 의성서문교회에 부임한 목사다. 2017년에 부임했으니 인터뷰 당시 약 5년 정도 목회를 했다. 교회는 거의 개척교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교회가 전략적으로 개척을 지원하여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이전에 있는 교회의 명맥을 이었다. 현재는 14 가정이 출석하고 아이들까지 해서 50명 정도 성도들이 모이고 있다. 농촌교회로서는 빠른 성장이다.

목사가 의성에 빠르게 정착하고 목회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조직에 흡수해 들어갔기 때문이다. 목사에게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는데, 오자마자 이 가정은 ‘의성장애티부모회’에 가입을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 이 장애인부모회는 당시 설립된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고,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할 때인데 같이 참여했다. 모임 장소로 교회 카페를 내어놓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며 역시 부모들에게 운영권을 주었다. 그러면서 의성장애티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운동을 벌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군에서 인정을 받았고, 군의 지원으로 센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무실을 얻었고, 활동지원을 받고 있다. 이로써 목사부부는 의성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 NGO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낯선 지역에서 빠르게 자리할 수 있었다.

의성에 와서 목사는 지역 문화원에서 하는 ‘의성문화바로알기’라는 강좌에 참여했다. 이 강좌는 의

성향토사연구회의 회장이 강의하고 있었다. 젊은 사람이 지역에 들어와서 이렇게 지역문화를 알려하고, 또 지역을 알려보고자 노력을 하니까 회장이 기특하게 보았다. 목사를 향토사연구회로 초청을 했고, 자연스럽게 지역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룹에 속할 수 있었다. 그렇게 1년을 지나니 젊은 사람이 일해야 한다고 해서 연구회에 사무국장이 되어서 현재까지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성에 있는 공룡발자국을 목사가 발견하여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지역에서 알려진 인사가 되었다.

특히 이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재청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의 향교, 서원을 활용해서 의성의 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인데 3년 째 연속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에 100년 넘는 교회들이 많고, 구세군의 역사적인 현장들이 많은데, 그런 곳을 돌아보는 기독교순례길을 조성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의성의 목사는 지역의 NGO 등에 참여하면서 빠르게 자리하고,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목회를 이루어 가고 있다.

4) 전통목회형

충남 상황리에 있는 목사는 39세이다. 그는 지방에서도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한다. 여기 오기 전에 있던 교회도 울진의 시골에 있었다. 마을 주민이 30명 밖에 안 되지만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번듯하게 만들어 놓으니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고 왔다고 한다. 그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쳐 있었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를 했다. 부임한 첫 해 5월 5일에 교회에서 주일학교 만들겠다고 행사를 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15명이 왔다. 상황리가 속한 서부면에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전교생이 40명이다. 그런데 그 교회에 15명이 모였으니 대단한 거다. 아이 15명이 교회에 오니 동네에서 구경을 다 왔다.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였는가 싶어서 궁금했던 거다. 지금도 이 아이들은 번갈아 가면서 교회를 들락거린다. 주일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수시로 교회에 온다.

이 아이들 중에는 귀촌 가정도 있다.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니 부모들이 나온다. 교회 행사가 있으면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한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잔치가 되고, 부모와 조부모가 와서 구경을 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귀촌인구가 많다고 한다. 귀촌마을이라고 한다. 귀촌이 가능하도록 빈집도 알아보고 땅도 확보해 보려고 한다. 그는 기도한다. ‘그 집터를 오시는 분들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귀촌해 오게 해 주세요.’

그에게 10년 그 교회의 미래를 그려 달라고 했다. ‘이 교회는 저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마을 상황이나 어떤 지자체의 지원, 이런 걸 볼 때 우리 교회만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준다면 충분히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에게는 농촌교회라 갖게 되는 어려움보다는 그가 운에서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는 소망이 더 보였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었다.

경기도 여주에 있는 교회는 역시 리단위에 있다. 그런데 제적이 100명에, 현재 출석교인이 50명 정도 된다고 한다. 수도권에 있기는 하지만, 경기도 끝 여주에, 그것도 리단위에 있는 교회인데 상당히 많이 출석하고 있었다. 담임목사는 현재 이 교회에 부임하여 목회한지 28년이 되었다. 그 동안 꾸준히 목회를 하며 이러한 결과를 이루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별한 방법이 있지도 않았다. 그냥 지치지 않고 변함없이 이어온 결과였다. 재밌는 것은 농촌지역에 있지만 교인들은 농사 짓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오히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특별히 월급이 많은 직장도 아니고 시골에 있는 작은 단위의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꾸준히 모인다.

특별하다면 이주민 여성들이 꽤 있다. 지역이 가까운 곳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꾸준한 돌봄으로 이들이 마음을 열고 이 교회로 찾고 있다. 또 이들 덕에 주일학교도 유지가 된다.

목사는 농촌교회의 장점이 무엇이나고 물었더니 자기 소신껏 목회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교인들이 호응도 해 주고, 좀 무엇이랄도 하면 교인들이 좋아하고, 그런 면이 농촌교회의 장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단절되지 않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답을 쌓지 않고 저 스스로도 열어놓고 또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고 뭔가 아이디어를 얼마든지 이렇게 창의성 있게 생각만 되면 그거를 이게 신학적으로 뭐 이게 괜찮을까 이런 고민 없이 그냥 어쨌든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들을 구현해 갈 수 있어서 제가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하고 제가 이제 작은 교회다 보니까 그리고 오래 있다 보니까 그냥 뭐든지 한다고 하면 교인들하고 미리 얘기만 하고 이렇게 공고하고 광고하고 의논하고 그러면 다 뭐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게 감사하죠.’

3 농촌교회가 블루오션이다

농어촌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은 어렵다. 노령화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쉬울 수 없다. 특히 마을에 주민이 몇 십 명 있고, 그나마 그들도 20-30년이면 자연수명이 다 하여 돌아가실 상황이다. 마을로 보면 미래를 그려볼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을까.

좀 이상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농어촌교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나 도심에서 하는 목회에 비하면 안정적이다. 보통 수도권에서 개척을 하는 교회들의 경우 성공확률, 아니 정확히는 생존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미자립교회 80%를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기존의 자립교회를 빼고서는 생존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이다. 이 틈에서 개척교회가 가능하다고 할 수가 없다.

대부분 교회를 개척하면 그 비용이 1억을 쉽게 넘어간다. 교회 임대를 위해서 보증금이 필요하고, 인테리어와 가구, 성구 등이 들어간다. 그리고 교인이 모이기까지 살아갈 수 있는 목회자 생활비와 월세 등을 생각해 보면 2-3억이 기본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목회자가 이런 돈이 어디 있겠는가. 심지어 목

회자의 경우는 대출도 어렵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돈을 꾸는 것이다. 다행이라면 개척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개척자금을 대 주는 경우이다. 그리고 개인적인 개척후원을 받는 정도이다.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면 다들 꿈을 꾸다. 적어도 50명, 많게는 100명의 교인이 모이는 꿈이다. 그래서 무리가 되더라도 교회당은 그 인원에게 맞게 꾸민다. 50명이 들어갈 공간과 50개의 의자이다. 그런데 사람이 안 모인다. 결국 월세가 밀리고, 보증금이 다 하는 순간 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 목회자에게 남는 것은 빛이다. 개인 빛만 아니라 그에게 돈을 꾸어준 일가친척과 지인들의 빛까지 남는다.

수도권에 작은교회들이 밀집해 있다. 특정 지역을 가보면 거리에 온통 교회다. 건물마다 교회가 들어가고, 심지어 한 건물에 몇 개의 교회 간판이 걸려 있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지역을 원하셔서 그렇게 많은 교회가 몰려 갔을까. 아니다. 그냥 거기가 임대료가 싸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교회들은 부흥해서 생존할 수 있을까. 아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

요즘 개척이 어렵다는 것이 알려지니 큰 교회의 경우는 부목사들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40대는 일반적이고 50대도 상당하다. 그런데 50대가 되면 부목사로 버티고 있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도 담임목사가 연령이 있으면 버틸만 하다. 그런데 교회에서 담임목사가 바뀌면 어려워진다. 새로 부임한 담임목사가 부목사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가 많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담임목사보다 나이가 많은 부목사는 사퇴를 하게 된다. 그러면 50대에 있는 부목사들이 대거 사임하게 되는데, 이들이 갈 곳이 없다. 주변에 이렇게 부목사에서 다른 교회로 연결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한 목사들이 적지 않다. 이미 50대가 넘어서면 다른 교회 부목사도 어렵고, 담임으로 지원하기에도 어렵다. 그래서 50대에 목사로서의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농어촌교회의 목회가 어렵지만 실은 도심에서 하는 목회보다 안정적이라는 사실이다. 어촌지역에 부임한 한 목사는 그래도 교회당이 있어서 좋다고 한다. 그리고 보면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에서는 자기 교회당과 사택이 마련되어 있다. 또 꾸준히 출석하는 교인들이 있다. 특별히 부흥할 일도 없지만, 그래도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거나 부흥의 압박도 없다. 이것은 농어촌목회의 아주 큰 장점이다. 특히 도시의 목회가 빛으로 시작되고, 끝나면 다시 빛만 남는 구조를 가지는데, 적어도 농어촌목회는 이러한 파산의 빛은 없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요즘 청년들이 농촌에 대한 로망이 있다. 도시의 삶에서 지친 청년들이 농촌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몇 년 전 나왔던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가 있다. 직장에서 치여 살다가 퇴직하고 부모님이 하던 과수원을 일구는 청년, 서울에서 임용고시를 노리다 계속 떨어져 실의에 빠져 고향집을 찾은 청년, 그리고 그 농촌을 벗어나고자 했으나 끝내 실패한 청년의 삶이다. 영화의 내용은 그냥 농촌에서 농사 지으면서 밥 해 먹은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영화가 나름 인기를 모았다. 이러한 저예산 영화에 관객이 150만 명이나 찾았다. 청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꿈을 꾸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로망을 이룬 청년들에게서 스스로를 발견했다.

2021년 귀농귀촌 인구는 51만 5천 명이었다. 누적된 인원이 아니라 한 해에 51만 명이 귀촌했다. 그중 45.8%가 30대 이하로 23만 5천 명이었다. 특히 농사를 주업으로 짓지 않는 귀촌인들만 보면 49만

5천 명 정도인데, 이 가운데 30대 이하는 56.8%였고, 인원은 23만 여 명이었다.

귀촌청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니 청년들은 귀촌의 이유로 직업과 주택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30대의 경우는 1순위 직업(34.8%), 2순위 주택(29.3%), 3순위 가족(24.2%)을 그 이유로 꼽았고, 20대의 경우는 1순위 직업(39.1%), 2순위 가족(23.6%), 3순위 주택(23.2%)을 뒀다. 이를 보면 확실히 도심에서 겪게 되는 문제가 농촌에서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평생 돈을 모아도 사기 힘든 주택,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절대 이룰 수 없는 꿈이 된 주택 문제를 귀촌하면 해결할 수 있다. 직접 집을 사는 것은 둘째 치고 전세나 월세를 얻어 살기에도 빠듯한 도시에서 벗어나서, 오기만 하면 주택을 제공하고, 집을 얻는데 지원이 되는 농촌지역으로 오는 것이다. 그리고 청년들 최대의 과업인 취업의 문제도 해결이 된다. 이렇게 농촌에서 청년 최대 과제인 주거와 취업을 이룰 수 있으니 귀촌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들이 그런데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상당히 보편적인 상황이다. 한 해에 30대 이하에서 23만 명이나 되는데 얼마나 큰 인구인가.

청년목회자들도 비슷한 메리트가 있다.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치이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농촌교회가 좋다. 개척한다고 하다가 실패하고 빚만 끼어는 것보다는 농촌교회가 더 좋다. 적은 수입으로 아이들 학원 보내고 경쟁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개인 교육이 가능한 농촌이 좋다. 이중직 한다고 오토바이 몰고, 험한 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인 농촌교회가 더 좋다. 이렇게 보면 청년목회자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다고 본다. 실제로 자연친화적인 환경과 안정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농촌교회는 많은 가능성을 가진 블루오션이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를 보면 목회자가 하기에 따라서 농어촌교회도 발전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3.9%나 되었다. 농어촌교회의 미래를 밝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농어촌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질문에 연령과 연급이 낮을 수록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39세 이하에서는 62.0%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젊은 목회자들은 농어촌교회에서 희망을 보고 있다. 오히려 기성세대들이 지레짐작하여 권해보지도 못하고 있다. 확실히 농어촌목회는 블루오션이다.

4 장기적 과제

1) 주민이 먼저 되어라

이제 농촌에 인구가 많지 않다. 목회 역시 예전 같지 않다. 목회자의 상이 변하고 있다. 전에는 목사에게 제사장의 이미지가 있었다. 교인들과는 구별되고, 성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들이 필요했다. 그는 일반인들과는 달랐다. 경제문제는 초월해 있었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일이 중요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돌보아야 할 교인도 그렇게 많지 않다. 할 일도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도 않다.

특히 이중직이 일반화 되면서 교인들과 주민들과 함께 일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 그냥 이중직이라고

할 것도 없이 직접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농사일이 바쁠 때에 도와 주어야 할 일도 있다. 마을에 젊은 일손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인지 모른다. 그런데 목사라고 외면하고 있을 수가 없다. 더군다나 80, 90세가 되신 어르신들이 혼자 사는 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집들도 돌보아야 한다. 그러니 점점 주민들과의 접촉점이 많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목사가 이전과 같이 성직자로, 제사장으로 사람들과 구별하려만 들면 안 된다. 이제 사람들이 그런 목회자상을 원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혼자서 성직자라고 생각하고 마을사람들과 구별하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마을주민이 되어야 한다. 성직자 이전에 마을에 청년으로,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돌보아 주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요구하는 농촌교회의 목회자상은 ‘모범적 신앙인’이다.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와 어울리지만 선한 이웃으로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모범적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요즘 이 시대가 요구하는 목회자이다.

그런 의미에서 귀농귀촌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농이촌인이 되어야 한다. 비록 농촌에 대한 경험이 없고, 자신이 살던 고향이 아니니 귀농귀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농촌에 이주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마을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하고, 구별된 성직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주민으로 살아야 한다.

2) 마을 청년회장, 이장이 되는 목회

의령이 목사처럼 농촌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목회자가 필요하다. 어르신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 드리고, 자신이 사는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돌아시기까지 어르신들이 자신의 인생이 담긴 고향집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일이다.

요즘 농어촌 지역에는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들이 있다. 농어촌 지역에서 이러한 사업을 받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서류작업이 필요하고,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 이런 일은 목사들이 잘 할 수 있다. 컴퓨터를 다룰 줄 알고,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 기획력도 있고 추진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요즘 농어촌에서는 지혜로운 젊은이 하나만 있어도 마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목사가 청년회장, 마을 이장처럼 일을 하면 마을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마을에 일자리도 만들고, 좋은 주거환경도 만들고 하면 주민이 늘어난다. 주민이 늘어나면 미래가 생긴다. 귀농귀촌인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다. 주민이 늘어야 교인도 늘고, 지속가능한 목회도 가능하다.

3) 이중직을 통한 정주목회: 농촌목회자를 불우이웃 만들지 말고 생활인으로 만들자.

농어촌목회는 쉽지 않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무래도 큰 문제이다. 어르신 10명, 20명 모인 교회에서 재정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농어촌교회의 경우는 대부분 도시에 있는 교회의 후원으로 유지된다. 문제는 목회자들이 이런데 의지하다 보니 다른 교회 기웃거리는 일이 많다. 그리고 도시에 있는 교회

나 지원하는 단체들은 농어촌교회나 목회자를 재정적으로 돕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은 어쩌면 자본주의적인 가치관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어렵고 힘든 일이고, 그래서 불쌍한 마음으로 돕겠다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농촌목회자를 불우이웃처럼 도와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중직의 굴레를 벗어주고, 농어촌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실제로 농어촌 지역은 일자리가 많다. 오히려 노동력 부족이 큰 문제이다. 그리고 노령화가 되면서 농사를 짓지 못해 쉬고 있는 땅도 적지 않다. 그런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것도 방법이다.

이번에 인터뷰 가운데 확인한 것은 사모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최저 임금 기준으로 180만 원 이상을 받는 직장이 어렵지 않게 구해진다. 목사들의 경우는 직장을 다니거나 농사를 짓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농어촌교회에 교인이 적어지면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은데 이중직에 대한 법적 규제나 인식의 굴레 등으로 인해서 목사는 경제활동을 거의 안 한다. 오히려 목회자들에게 이중직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그 마을에서 생활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 문제가 풀리면 농어촌교회의 목회는 지속가능하다. 생활비를 목회사례에만 의존하면, 농어촌목회는 미래가 없다. 생활비는 목회자가 스스로 벌고, 나에게 맡겨진 교회에 어르신들이 남은 여생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목회를 하면 어떨까 싶다. 마지막 한 분까지 함께 찬송하고 말씀 나누면서 가실 수 있도록 하는 목회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 아니 더 귀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농촌목회를 재정적인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섬기는 목회로 목회인식을 전환해 보아야 한다.

5) 귀농귀촌인 목회 / 다문화가정 목회 / 조손가정 목회

이미 언급했듯이 한 해에 귀농귀촌 인구가 50만 명이 된다.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렇게 귀농귀촌인구가 늘어난 것은 몇 년 사이의 일이 아니다. 이미 꽤 오랜 전부터 귀농, 특히 귀촌인구가 급격하게 늘었다.

한 해에 50만 명의 귀촌인구가 있다면, 10년이면 500만 명이고, 20년이면 1천 만 명이다. 500만 명이면, 인구 대비 10%이고, 1천 만 명이면 인구 대비 20%이다. 앞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 정도가 되면 인구이동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정도 속도라면 과거 산업화 시절에 도시로 사람들이 몰렸던 인구이동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특히 청년인구에서 귀촌인이 상당히 많다. 한 해에 출생인구가 26만 명이다. 그런데 귀촌하는 청년이 23만 명이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일이다. 요즘 청년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 감소비율이 급격한데 이렇게 농어촌지역으로 청년들이 몰려온다면 이것은 이 사회의 아주 큰 변화이다. 분명 이러한 인구이동은 사회의 트렌드와 구조까지도 변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교회도 분명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주민이 바뀌는데 교회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 벌써 농어촌의 많은 교회들이 귀촌한 교인들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47.4%가

귀촌교인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고, 그 중에 82%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대답하고 있다. 머지않아 이러한 귀촌교인의 합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아주 일상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교회의 대책이나 준비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농어촌에 나타나는 인구로 다문화 가정이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나타났고 적은 도움으로 큰 혜택이 될 수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실제로 여주의 경우 이주여성에 대한 봉사가 좋은 결실을 맺고, 주일학교에 중요한 부분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또 빼먹을 수 없는 것이 조손가정이다. 농어촌지역에 조손가정이 많이 늘고 있다. 이혼가정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조부모에게 맡겨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에 대한 배려도 농어촌교회의 한 몫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단기적 과제

1) 신학적 뒷받침

그 동안 농어촌교회의 목회는 선교적 관점에서 많이 다루었다. 농촌운동의 연장선상에 있고, 사회적 관점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그런데 이제는 목가적 삶에 대한 강조도 필요하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학적 정의도 수정이 필요하다. 도시의 치열함에서 벗어나서 농어촌의 여유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장위주의 도시 목회에서 벗어나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목회, 또 어르신들을 영적으로, 생활도 섬기는 섬김의 목회 등은 중요한 테마가 되어야 한다.

2) 청년목회자 포럼

농어촌으로 간 청년목회자의 건의이다.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동료목회자를 만나고 싶다고 한다. 정보도 나누고 배울 수 있지만, 더불어서 생각도 나누고 동료의식을 나누고 싶다고 한다. 그러한 교류가 가능하다면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고, 격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3) 자녀교육 지원

인터넷이 발달하고, 농어촌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면서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이 꽤 줄어들었다. 특히 대학 진학에 있어서 농어촌 혜택도 있고, 장학금 혜택도 많아져서 과거보다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농어촌에 갇혔다는 생각이다. 아이들에게 좀 더 넓은 세계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특히 외국경험을 하게 되면 견문이 넓혀질 것 같다. 그래서 외국 선교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거나, 서구 국가들을 경험하며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고 한다.

그리고 농어촌 아이들을 위해 도시에서 성경학교 한다고 찾아오지 말고, 아이들을 서울로 초대해서 성경학교를 해 주면 어떨까하는 제안도 있다. 도시 체험도 하고, 놀이공원도 가고, 수영장도 가고 하는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면 큰 메리트가 될 것이다.

4) 직업훈련

농어촌에서 정주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해 주어야 한다. 건축, 농사, 정부지원사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 내지는 수입사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스스로 알아서 길을 찾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6 결론

이번 조사를 하면서 농어촌교회에서 미래를 발견한 것은 큰 전환점이다.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정의되던 농어촌교회가 시야를 달리해서 살펴보니 여러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시에서의 목회가 예전처럼 부흥 일변도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실패와 좌절의 현장으로 변하고 보니 오히려 농어촌 목회가 다르게 보인다. 특히 교회당과 사택 문제가 해결된 목회현장이라는 점은 도시목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다.

사회적으로도 귀농귀촌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30대 이하의 청년들이 가히 인구이동이라고 할 정도의 규모로 귀촌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분명 농어촌교회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 같다.

변화되어진 환경 속에서 새롭게 정의되는 농어촌목회가 필요한 때라고 본다. 사람들의 인식과 사회 환경, 그리고 정부차원의 지원 등이 이제 농어촌 사회의 변화를 이끌 것이고, 이것은 역시 농어촌교회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대한 농어촌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에 감리교 농어촌 선교 역시 새로운 국면을 열어갈 필요가 있다.



농촌 의료 정책

임종한 교수

인하대학교의과대학학장/보건대학원원장

농촌사회 건강돌봄에는 교회와 지자체, 사회적협동조합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임중한 교수 (인하의대 교수,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1 농촌사회, 의료 및 사회적서비스의 현황

최근 몇 년사이에 우리사회에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소득불평등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사회양극화가 더욱 진행되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말이 아니다. IMF 시기보다 더 어렵다고들 한다. 우리나라에서 10% 상위층이 전체 소득에서의 점유율은 1995년 29.2%에서 2012년 44.9%로 2017년 50.6%로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소득불평등이 심각하다. 소득불평등뿐인가? 취약계층의 의료이용은 경제적인 부담이 늘면서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고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송파세모녀 사건과같은 사소한 질병으로 일이라도 못하게되면, 소득이 끊어져 꿈쩍없이 가족이 동반자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만든 의료보험인데, 국내에선 이런 일에 의료보험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아팠을 때는 평소소득의 일부를 보장해주는 상병 급여가 외국에는 보장되어 있는데, 국내에선 이같은 서비스를 받는 것은 꿈과 같은 일이다.

2025년 65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이에 대비는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노인 가구중 빈곤가구 비율이 유난히 높고, 65세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나이들어서 일자리를 갖기도, 아파서 치료받기도, 문화생활을 누리기도 어렵다. 가족은 해체되고, 초핵가족으로 1인 1가구로 쪼개지고 있다. 자녀들과 동거하는 문화에서 노인들이 독립생활을 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외롭게 지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도 병원 문턱이 높아 병원에 가기도 어려운데, 그런데도 10년동안 의료비 상승률은 OECD 수위를 달리고 있다. 당뇨, 고혈압등 만성질환등을 앓고 있는 국민들의 비율은 갈수록 늘고 있으며, 2014년 전체진료비중 35%가 만성질환 진료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제보험 급여비에서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3년 45.5%에서 2014년 27.5%로 줄어들었고, 상급종합병원의 외래비용은 21.5%에서 31.3%로 증가되었다. 시민들의 건강을 돌볼 의원은 점차 문을 닫고, 상급종합병원은 공룡과도 같이 몸집을 자꾸 늘리고 있다. 소위 재벌 병원의 등장과 더불어 동네 의원, 중소병원, 지방병원은 경쟁력을

않어가고, 의료환경은 무한경쟁속에 승자독식과 다름없는 환경으로 변모되고 있다. 2026년이면 우리 사회가 65세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상회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된다. 향후 30년간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 초고령사회화, 일차의료의 붕괴, 지역공동체의 약화등의 변화로 건강불평등 심화, 만성질환 급증, 의료비 폭등으로 재앙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사회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고령화 추세는 사회전반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OECD국가중 지난 10년간 65세이상 고령층의 자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층을 위한 의료복지, 고용 대책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취약층들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35년에 독거노인 숫자는 현재의 3배가량인 3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40~50대 중장년 중 220만명 정도가 향후 10~20년 사이에 독거노인층으로 대거 흡수된다는 뜻이다. 이들 상당수는 이혼, 사별 등으로 이미 혼자 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을 ‘잠재적 고독사군’으로 분류한다. 홀로 죽음을 맞게 될 수백만명의 ‘고독사 예비군’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이다.

국내 지역사회에 일차의료 기능이 약화되어 고령화, 사회양극화에 따른 건강불평등 증가에 적절한 대비를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50년 고혈압·당뇨 환자는 1849만명으로 2010년~2011년(1073만명)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30세 이상 고혈압·당뇨 환자 비율은 같은 기간 34.0%에서 49.1%로 급속히 증가한다. 국내 의료체계를 평가한 OECD 보고서에는 회피할 수 있는 당뇨 급성합병증 입원률, 회피할 수 있는 고혈압 입원률 등 만성질환관리지표에서 낮은 평가등급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의료비 상승률은 OECD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사회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추세가 도시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동체가 공동화되고 있으며, 도시보다 의료안전망이 부실하여 치료가능한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예방가능한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도시보다 훨씬 높다.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며, 만성질환 증가등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농촌의료체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여서, 국내 농촌의료복지체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성찰과 비전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돌봄서비스는 인간의 삶 전반에 걸친 문제로 생애주기가 의존이 필요한 어린이 단계에서 독립적인 성인의 단계, 다시 의존관계를 필요로 하는 노인단계로 구성된다고 볼 때, 생애과정 전 주기는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며 이는 가정 내 여성의 역할에서 사회화된 서비스로 전환되어 왔다. 한국 상황에서 돌봄서비스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통해 제공되는 노인요양서비스, 간병서비스, 아동방문보육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산후조리서비스, 가사서비스 전체를 포괄한다.

돌봄은 인간 삶의 기본 욕구이며 생활하는 공동체의 상호 관계 속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돌봄공동체는 상호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공간적, 지리적 위치의 근접성, 특정 가치 즉 돌봄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공유, 사적 가족이 아닌 공동체 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주민들 또는 조직들의 상호작용을 위한 네트워크, 다양한 주민과 조직의 자발적 참여, 돌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가 가진 자원을 나누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돌봄서비스는 상호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각각의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안에서 포괄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분절된 서비스가 아닌 생애주기별 연계 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확대되고 있으나 연계된 복합돌봄서비스는 아직 제대로 시도되지 못

한 상황이다. 또한 정부 재정 확대와 민간공급기관의 사업수행이라는 경직된 발전경로로 인해 자발적 돌봄공동체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영세민간업체들에 의해 질적으로 저하된 돌봄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201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작,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을 계기로 자발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사업이 시도되고 있으며,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돌봄사회적협동조합 등 자생력을 가진 돌봄공동체의 성장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2 농촌지역 사회서비스의 대안으로 부각되어지는 사회적경

기독교대한감리회 농어촌 교회 실태조사¹에 의하면, 교회에서 마을목회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현재 ‘하고 있다’는 비율은 17.9%였고 ‘앞으로 할 계획이다’가 25.6%이어서 앞으로 마을 목회를 하는 교회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교회가 하는 마을목회활동은 매우 다양한데, 그 가운데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어린이집/마을 학교등 돌봄 및 학습지도(51.1%)가 가장 보편적인 마을목회활동이었다. 두 번째로 많이 하는 활동은 ‘지역 독거노인, 빈곤층 생활돕기(37.8%)였다. 마을목회가 지역복지차원의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할수 있다. 마을목회 활동중 계속 진행하거나 새로 계획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물었을 때, 현재 활동에서 2위였던 ‘지역 독거노인, 빈곤층 생활돕기(27.4%)를 1위로 응답했다. 마을공동체 조직에 활동가로 참여가 19.2%, 협동조합, 마을기업등 마을을 기초로 하는 사회적경제 활동이 13.7%, 지역의료서비스 제공이 8.2%로 나왔다. 마을목회에 정부/지자체 재정지원 받는 사업활동주체는 교회 단독 (34.4%)보다는 ‘교회와 지역사회 공동(65.6%)이 더 높았다. 마을공동체를 살리는데 교회가 협동조합, 마을기업등 사회적경제와 협력하는 것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주었다.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육아, 교육, 복지, 의료등 인간 생애와 관련된 영역에서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삶의 방식을 실현하려고 한다. 사회적 경제조직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있다.

사회적 경제는 지역 재생, 공동체 복원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경제위기에 탄력적이며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유지가 가능해 지역경제 운용에 유리하며, 사람중심의 사회적 경제 조직은 의료, 복지 서비스 제공에 탁월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사회적경제 (유럽), 혹은 비영리섹터 (미국)등의 접근을 통해 이러한 사회문제의 해결에 노력을 기울인지 오래되었고, 최근에는 공공-사회적경제-사부문간의 협력(public-social-private partnership)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여 성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사회적경제의 육성 방향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 지원

¹ (주) 지앤컴리서치, 기독교대한감리회 농어촌 교회 실태조사, 2023.1. 27.

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시민사회가 스스로 지역사회 욕구를 찾아내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사회적 경제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개별 조직의 지원보다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밀도를 높였을 때 지속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업종별 협의회 강화를 통한 내부 지원체계 조직화가 중요하다.

협동조합을 통해 경제적민주화, 사회적약자를 위한 돌봄 사역등의 여러 나라의 선례를 살펴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2008년 국제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속에서도 유럽연합(EU)의 25만개 협동조합은 5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듦으로 충분히 스스로의 생명력을 입증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성숙을 통해 그리스도의 완덕(完德)에 도달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세에서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회적 경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세상을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경제시스템 안에서 모범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면 협동조합 안에 자리한 그리스도의 정신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에서도 협동조합 활동이 매우 역동적인 모습으로 손꼽히는 이탈리아는 ‘협동조합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협동조합이 아름답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 가톨릭신문에 기고한 이용훈 주교(수원교구장)의 글 일부이다. 이용훈주교는 자본주의 위기속에 시민들의 협동과 연대로 만들어진 사회적경제는 하나님나라로 나아가는 디딤돌의 하나로 인식했다.

이태리 에밀리아-로마냐 지방은 제조업을 비롯해 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의 네트워크로 성공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공정과 나눔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정신이 기업의 철학과 기능에 스며들어 있으며, 협동조합의 원리가 시장경제를 지배하는 사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이탈리아도 10% 안팎의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지만, 협동조합 천국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해고가 없는 협동조합 중심의 지역경제 특징을 잘 살려냄으로써 약 3-4%대의 실업률을 유지하면서, 유럽에서 제일 잘사는 5대 도시 중 하나로 꼽히며 행복지수가 높은 도시가 되었다. 이는 하느님의 정신을 인식하고 전개하는 협동조합이 공동선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재벌중심의 성장제일주의가 이끈 승자독식체제로 인해 현재 우리 사회는 심각한 양극화의 병폐 속에 있다. 이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협동조합’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민간의 사회적경제 활동은 역사성을 가지며 다양하고 자발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비공식부문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사회적경제 영역이 공식 부문으로 흡수·제도화되는 과정 속에서 양적성장과 함께 정부의 관리 대상이 되었다. 1950년대-1990년대 1차 시기에 농협, 신협, 소비자생협 등이 제도화되었고, 2000년대 - 현재에 이르는 2차시기에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으로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과 노동의 가치, 협력과 연대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민간 주체들은 끊임없이 지역·주민·노동·시민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경제를 확대하고 실현해온 과정이었다.

2차 시기의 특징은 외환위기 이후 국가와 시장의 실패에 대한 보완적 관점 속에서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용없는 성장과 취약한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사회적경제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 성과만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사회적경제를 단순히 고용창출 사업으로 축소하거나 사회복지 전달시스템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하고 자율적인 사회적경제를 정책적,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대두하고 있다. 국가와 시장이라는 조직 원리로 한 번씩 온 사회가 뿌리까지 재구조화되는 극심한 사회 변동 속에서 아직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전면적으로 제기되지 않은 가치가 있다. 바로 ‘인간 발전’이라는 가치이다. 최근 십 몇 년 간에는 ‘경제 성장’과 ‘경쟁력 강화’라는 시장중심의 사회발전 전략이 생명경시, 공동체 약화를 가져와 우리사회의 균형된 발전전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와 ‘경제’에 대한 플라니의 새로운 이해에 근거하여 ‘인간 발전의 영역’으로서의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은 공동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만드는 공동 소유와 민주적 운영 기반의 기업 모델.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면서 협동조합 붐이 일고 있다.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할 정도로 제도적 제약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11년후 전국에서 2만 4천여개의 협동조합, 4,200여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등록됐다.

3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례

협동조합은 지역 기반의 맞춤형 복지·교육·안전을 책임지는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이 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노인·아동·노숙인 같은 취약 계층에 돌봄·교육·여가·주택 등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지역 기반의 공동체 문화를 만든다. 유럽에서도 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시의 시민들이 지역 내의 상호 연대를 통해 성장시켰다. 협동조합은 여러 사회의 계층 및 세대들을 포괄하는 사회통합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민간공급, 기부, 자선에 의존하는 시장 모델의 경우, 민간에서의 서비스 모델을 질관리체계 (Quality Assurance System)로 관리하기에는 한계를 보여, 유복한 상류계층이 이용하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서비스의 질, 접근성, 비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보인다. 국내에선 민간공급시설에 기부, 자선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열악한 상태이다.

이에 비하여 덴마크, 스웨덴 등 공적사업계획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보육, 돌봄, 의료 복지 체계를 만들어온 북유럽국가에서는 높은 수준의 사회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의 잘 갖추어진 사회서비스는 여성들의 사회적인 진출, 고령자의 고용 의료복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높은 수준의 사회생산성을 갖춘 선진국 도약의 기반이 되었다. 국내에서는 이에 대하여 사회서비스의 제공수준이 낮아 사회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보육, 돌봄, 의료 복지분야에서 공공기반이 취약한 국내 여건에선 사회적경제와 지자체, 중앙정부가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모델을 발전시키는 것이 최선의 대

안이다. 사회적경제 모델은 “공익적 서비스제공” + “질 좋은 일자리창출 + 시장에 대한 합리적 규제/대안” 이 모두 세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 대안이다.

의료협동조합중 지역사회 기여와 의료의 공공성을 가장 강조해온 형태가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이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그들의 건강, 의료와 관련하는 생활속의 문제를 다루고자 조직체를 구성하여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의 활동과 그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임원과 직원, 의사를 비롯한 의료전문가들과의 협동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주민의 자주적 협동조직체이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의료기관이 사유화되어 이윤중심으로만 운영되는 것을 막고, 검증되지 못한 의료 실험이나 약물 투여, 생명조작 등 반생명적인 시술로 인한 인권 침해, 생명 경시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 바로 의료사협이다. 더구나 현대사회에서 의료복지 분야의 영역이 커가지만, 특히 시민의 참여가 쉽지 않다고 하는 극히 전문적인 의료분야에서 시민들의 자치 경험을 이룩하고, 경영적으로도 성공적인 결실을 맺고 있어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의료사협에서 시민들이 전문가와 대등하게 지역사회의 현안이 되는 의료문제를 논의하고, 지역사회의 대안을 찾아가며, 공동출자, 공동운영의 경험을 가진 것은 우리사회에서 아주 소중한 경험이다. 의료사협은 지역에서 풀뿌리민주주의를 성장시키는 산실과도 같다. 일부지역에서 시작되었지만,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큰 변화를 우리사회에서 의료사협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의료사협 사회적 활동의 중심테마는 ① 의료 민주화의 실현 ② 사람사이 협동과 좋은 건강 습관의 창조 ③ 건강마을 만들기이다. 이러한 당면과제에 초점을 두고 의료사협은 [환자의 인권, 생명존중]의 창립 사명(미션)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 한국 상황에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은 지역사회의 공동체운동에 있어 다양한 실험을 실행하고 주민자치, 건강자치의 새로운 장을 만들고 있어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경쟁의 시대속에서 시민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의료, 육아, 사회복지 등 생활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개인의 시간을 쪼개서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일은 바보같은 일이고, 개인적으로 경쟁에 뒤지게 하는 일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다. 하지만, 이 바보같은 일들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길을 개척하는 일들을 의료사협이 시작해나가고 있다. 일반 서민들이 건강, 교육, 문화, 환경, 경제 등 시민들의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한 쉽게 접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은 사회민주화를 이루어가는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들의 각 생활 영역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실행하는 주민자치의 이상을 실현해나갈 때 시민들이 정보 능력, 경영관리 능력을 갖추는 것은 바로 주민자치를 실현해가는 기본적인 전략이다. 저는 초고령사회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그룹이 바로 시민들이라고 본다. 국내 의료복지분야에서 시민 참여와 관련해 가장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온 그룹이 의료협동조합이다.²

통계청 ‘2010~2035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가구당 가구원수 추세를보면, 2010년에에는 1인가구가 23.9%, 2인가구가 24.2%, 3인가구가 21.3%, 4인가구가 22.5%, 5인가구가 6.2%였다가, 2012년

² 자세한 것은 아래 책 참조
가장 인간적인 의료(스토리플래너, 2011), 참좋은공동체를 소개합니다(스토리플래너, 2015).

에는 1인가구가 25.3%, 2인가구가 25.2%, 3인가구가 21.3%, 4인가구가 20.9%, 5인가구가 5.6%였다가, 2035년에는 1인가구가 34.3%, 2인가구가 34.0%, 3인가구가 19.4%, 4인가구가 9.8%, 5인가구가 1.92%로 변화된다. 지역공동체가 약화될 뿐만아니라 전통적인 공동체로 가족조차 핵가족으로 쪼개지고 중국적으로는 1인가구형태가 가장 큰 비중이 커진다.

소득이 낮은 노인단독가구가 양산되는 반면, 가족형태의 변화로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형태가 점차 사라지면서, 노인층의 돌봄과 건강관리문제는 우리사회에서 큰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다

지역공동체가 해체위기에 놓여있고, 자녀들도 부모를 모시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에, 어린이의 돌봄을 국가가 지원하고 책임지는 구조로 가듯이, 노인들의 돌봄도 결국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가가 지원하지만,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돌봄체계를 제대로 구성할 수 없다.

의료협동조합의 원조격이라면 장기려박사의 청십자 민간의료보험조합³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68년 장기려박사와 부산교회가 협력하여 가난한이들이 제때 진료받을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설립되었는데, 정부의 의료보험조합보다 무려 10년이나 앞선 모델이었다.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안성의료사협)은 1994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협동조합이다. 두번째 의료협동조합은 인천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인데, 안성의료사협, 인천평화의료사협은 모두 젊은 기독교의료인모임인 기독교청년의료인회의 지원으로 모두 시작되었다.

안성의료사협은 2021년부터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모형을 개발하였는데, 안성의료사협은 지역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며, 건강의 기본 단위가 지역사회임을 자각하고 조합원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참여와 협동을 통해 보건, 의료, 복지의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자군을 1-4단계로 분류하여 각 단계에 따라 제공할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구체화하여 일차의료서비스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였다. 지역사회 내의 보건의료자원과 건강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안성의료사협을 기반으로 하여 가치기반 지역사회중심 건강관리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함으로서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모형의 확산 가능성을 높였다.

2022년 3월 - 11월에 시행된 가치기반 지역사회중심 건강관리모델 시행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사업 참여자는 1520명으로 대조군에 비해 입원 일수가 평균 0.81일(대조군 1.40일)로 적었다. 입원 진료비는 382,502원(대조군 551,800원)로 적게 사용하였다. 9개월간 사용한 총진료비가 1,169,105원(대조군 1,446,300원)으로 20% 가량 적게 사용하였다. 안성의료사협 의과의원 내원일당 평균 진료비는 2만 2천원(대조군 3만 2천원)으로 31% 적게 사용하였다.

요약하자면 참여한 분들은 진료비를 적게 사용하면서 더 건강하게 생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안성의료사협의 조합원 평생건강관리

“안성의료사협에서는 조합원이 더 건강한 방향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배치하고 노력하고 있다.”

³ 김은식. 장기려 우리곁에 살다간 성자. 불나루. 2020년(23쇄)

안성의료사협의 조합원 건강관리 방안

-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킨다.
- 병이 걸리면 조기에 발견한다.
- 아플 때 잘 치료한다.
- 장애가 생겼을 때 집에서도 적절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

1)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킨다

- 지역별 건강모임,
- 건강학교 나행시(나를 돌보는 행복한 시간)
- 주치의와 함께 하는 건강 수다, 건강학교
- 각종 소모임(수십 개)
- 건강과 돌봄 마을공동체
- 노인 일자리 사업
- 이웃을 돕는 자원활동가 양성
- 독감 등 백신 접종에 조합원 할인, 독감 백신 접종
- 조합원 연령별로 건강안내서 '평생건강관리체계' 제공

2) 병이 걸리면 조기에 발견한다

- 공단검진이 시작되기 훨씬 전 94년에 의료생협 생기자마자 조합원 검진을 시작
- 검진에서 문제가 있으면 1개월 후, 3개월 후에 전화를 하여 치료나 생활관리

3) 아플 때 잘 치료한다

- 적정 진료
- 항생제 주사제 처방률을 운영위에서 공개
- 암 등 위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 가까이서 관리
-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회의
- 코디네이터 간호사 상담
- 만성질환 매년 합병증 체크를 하고 당뇨병은 당화혈색소를 2-3개월에 한 번
- 혈압계를 임대하고 자체 제작한 수첩을 드려서 집에서 혈압을 체크
- 안과 합병증 관리 권고, 안저검사
- 자체 제작한 수첩 내용으로 집중 교육

4) 장애가 생겼을 때 집에서도 적절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

- 주치의가 왕진
- 가정간호사 방문
- 재택의료센터 :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방문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파견
- ‘우리마을건강지킴이’ 이웃에 사는 불편한 노인의 안부를 묻고 건강을 체크
- 문턱이 높거나 집 구조가 장애인에게 불편한 경우에 ‘사랑의 집 고치기’

가치 기반 지역사회 중심 건강모델⁴을 안성의료사협에서 시행하여 건강습관의 향상, 우울증, 주관적 건강인식의 향상, 높은 의사 및 케어코디네이터 만족도,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에서 우수한 관리 성적, 의료비의 절감 효과를 확인하였음. 우리사회에서 일차의료기관이 적절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우수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건강증진활동을 해온 안성의료사협에서 일차의료의 잠재력과 역량을 확인하였지만, 이를 일반의원에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가치기반 지역사회중심 의료기관이 운영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가치 기반 지역사회중심 건강모형이 확산 및 정착되려면, 새로운 지불제도의 도입,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의사 및 케어코디네이터등 관련인력의 교육훈련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치기반 의료에는 환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핵심요소이므로 환자군의 분류가 필요하며, 환자군의 위험 분류에 기반한 인구기반 보상금액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가치기반 지역사회중심 건강모형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양적 기반’에서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전환위해 행위별 수가제도 外 새로운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지불제도의 시행은 농촌사회에 적합한 의료기관의 설립을 지원해줄 수도 있다.⁵

아니다

4

맺음말: 농촌사회에 공동체 강화의 비전은 꿈이 아니다.

한국사회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2023년 3월까지 24,036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도 점차 증가되어 2012년 1개, 2013년 102개, 2015년 380개, 2016년 581개, 2019년 1,709개, 2023년 3월 기준으로 4,244개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증가되었다.⁶ 그중 의료, 돌봄, 육아분야의 사회적서비스분야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개인과 집단의 이기주의를 넘어 협동과 연대, 나와 너를 넘는 공

⁴ 임종한등. 가치기반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델 효과분석. 심사평가연구원 보고서 2021년, 2022년.

⁵ 보건복지부. 제 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2023. 3. 28.

⁶ 협동조합 설립현황. <https://www.coop.go.kr/home/index.do>

동체 의식이 우리사회에 비로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들 사회적협동조합은 의료, 돌봄, 육아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해 모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고, 이분야에서 일하는사람들에게 노동권을 보장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시민-노동자 모두에게서의 윈윈전략이 되고 있다. 이들 사회적협동조합은 의료, 돌봄, 육아 등 분야에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훌륭한 기반이 된다. 국가가 모든 국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다 제공하기 힘들어지고, 이미 복지국가의 한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사회적경제)가 협력하여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도 우리사회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성장은 매우 의미있다고 하겠다. 이제 우리사회에서 장애인, 노인, 농민,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새터민, 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적약자의 건강을 돌보고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이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사회가 재도약하기 위해선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나? 더불어 살수 있고, 각 사람 모두 공정하게 대우받고, 존중받는 사회의 건설은 정녕 불가능한가? 다가오는 대선에서 시민들의 이같은 한결같은 바람을 충족시켜줄 사람을 뽑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단지 정권의 교체에 국한하지않고, 진정으로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가 되기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관료의 전횡, 정작 유착과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 행정기관, 대기업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지 투명하게 살펴보고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힘을 지닌 관료와 대기업의 갑질은 결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의 시민의식 변화, 참여를 통해서 한국사회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이상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생활 곳곳에 남아있는 적폐를 청산하지 위해, 방관하지 않고, 우리사회 여러 영역을 개혁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루어지지않으면, 정권이 바뀔다고 해도 여야의 교체가 있을 뿐, 시민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특별히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인 의료, 돌봄, 육아 등 사회서비스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관료의 전횡이나 시장논리에 의해 휘둘리지 않게 새로운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직접 개혁해나가는 것이야 말로, 향후 개혁의 핵심요체라고 볼수 있다. 각 생활영역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확장시켜 나아가, 시민사회, 생활세계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와 형식적인 정치적 민주화에 머무른 우리사회가 경제적인 민주화, 지방자치, 생활자치, 주민자치로 민주주의가 더 심화 발전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시민들이 법과 질서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높은 시민정신을 가진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단지 경제적으로 GDP가 높은 사회만이 아닌 사람살만한 사회로 가야한다. 우리사회 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선진사회의 분명한 지표이다. 이러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의료, 돌봄, 육아의 공공성을 높여가는 것이 우리사회의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들분야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분야여서 2050년 우리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지역공동체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역사회의 조직들이나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와 지역사회 지원을 이끌어 낸다. 협동조합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협동조합 사업체를 통해 스스로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민의 참여를

통해 공공의료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고, 민간의료기관이 영리에 좌우되지않게 안전판 역할을 해낸다. 협동조합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의료, 돌봄, 육아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훌륭한 역할을 해낼수 있다. 지역사회를 매개로 주민들, 동네 의원,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원, 주간보호시설 등이 서로 연대하고 협동하는 것이다. 이를 가능케하는 강력한 조직적 수단 중의 하나가 협동조합이다.

사회에서 취약계층이 늘어나는 변화속에서, 시민의식의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 개인의 소득, 학력, 능력, 성, 연령, 장애여부와 관련없이 각 개인이 다 소중하다.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시민문화와 법,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협동조합에선 사람이 자본을 통제한다. 협동조합은 또한 노동권을 존중한다.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대가도 협동조합이 미래의 지배적인 경영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존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말했다. “(협동조합 등) 결사체 형태(the forms of associations)는, 인류가 계속 발전한다면 결국 세상을 지배할 것임에 틀림없다. 노동자 자신의 결사체가 평등과, 자본의 집단적 소유를 기초로, 스스로 선출하고 또한 바꿀 수 있는 경영자와 함께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사회적경제가 발달한 국가나 지역에서는 사회적경제에서 새로운 혁신적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다.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분야의 대안으로 부각되어지고 있지만, 사회서비스분야의 사회적경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사회서비스협동조합 외부의 법 제도 개선 과제로 정부 정책에서 사회적 경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 모든 관련 부처의 정책에 사회적 경제 분야를 결합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각종 복지제도와 사회적경제의 결합이 이루어져 복지의 최종전달은 지역공동체에서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협동조합 내부의 과제로 사회적경제 주체 하나하나가 ‘생물’ 같이 살아있어야 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가 만들어져 상호작용을 할수 있어야 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더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창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역사에서 협동조합 운동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전개됐으며 공동체자본주의는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성경적, 시대적 대안으로 경제정의를 지향하고 있다. 협동운동은 왜곡된 자본주의로 인해 피폐화된 현대인들에게 민주적인 협동을 통해 공동체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협동조합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부여로 ▲창조질서의 회복과 생명가치의 보존 ▲초대교회 공동체의 나눔과 섬김의 실천 ▲온전한 인간회복을 이뤄가는 희년 사상 등을 들 수 있다.자본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 정신은 경쟁적인 인간관계를 극복하고 상호존중, 공존을 도모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공동체성이 붕괴되고 있는 이 때, 협동조합 운동은 새로운 공동체적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이러한 사회를 향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협동운동의 가야할 목표와 사회적 가치를 분명히하도록 하며, 이러한 운동이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돌보아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다.

협동조합은 사회적약자와의 연대와 돌봄이라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에서 사회에 형상화된 예수그리스도의 정신을 살펴볼 수 있다. 작년 6월 18일에 창립된 희년상생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한국사회에 희년상생 정신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회적경제 기반의 새 사회운동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농촌사회에서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 양

질의 돌봄과 일차의료 제공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복지와 의료의 결합되어야 한다. 시민은 건강의 주체이며 돌봄의 협력자이다. 주치의는 건강에 대한 조력자. 시민과 주치의는 책임과 공감의 동반자 관계이다.

주민들의 응원을 받기 위해서 공적인 조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마을 단위의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 면 단위로 방문의료, 방문간호, 작업치료등 커뮤니티케어(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지자체가 협력하면,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재택의료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는 보건소와 보건지소등 공공의료자원을 잘 활용하되, 대상자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 협동조합과 같은 공동체를 구성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는 향후 신체 기능이나 인지 상태가 떨어질 가능성이 큰 농촌에 거주하는 잠재적 등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가 되지 않도록 막는 예방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는 주간보호센터 등과 같은 면 중심지 돌봄 시설과 일상생활 돌봄을 제공하는 마을 단위 소규모 돌봄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면 중심지에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고 대상자가 면 돌봄 시설에 방문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제공한다. 생활 돌봄을 제공하는 소규모 돌봄 시설은 마을 내에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노인정을 개선하여 활용한다. 돌봄 시설 설치와 개선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정 사업을 활용한다.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는 다른 정책 사업과도 연계한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자원을 파악하고 배치하는 것이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이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주민 주도 마을 복지 계획 수립·실행 사업이나 주민자치회의 자치 계획 등의 정책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농업과 연계하여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7,8} 사회적 농업이 효과적인 이유는 농촌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농업 활동 경험이 많은 돌봄 대상자가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돌봄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 농장은 농촌 내에 있어 대상자가 접근하기도 쉽다. 따라서 사회적 농업을 돌봄 서비스로 인식하고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과 연계하여 돌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강화군에 일꾼교회는 사회적기업인 (주)콩세알을 세워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어르신에 대한 돌봄을 사회적농업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고, 농촌에 지원주택을 건설하여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농촌교회는 농촌공동체 돌봄을 위하여 이같은 좋은 모델을 많이 만들어가야 한다.

⁷ 김남훈, and 하인혜.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 (2020): 1-103.

⁸ 김남훈, 김정섭. (2021). 제3장 주민이 함께하는 농촌 공동체 돌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서.(), 75-104.

